

보 고 서
공 개 여 부
비 공 개

서비스경제과-161(2024.3.25)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보 고 서
공 개 여 부
비 공 개

서비스경제과 - 161 (2024.3.25)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저 자 이재희, 최은영, 김자연, 윤지연, 김수현, 박윤현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수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윤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발 행 일 2024년 3월

발 행 처 기획재정부

주 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 화 044-215-2114

팩 스 044-215-8033

인 쇄 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II. 연구배경	17
1. 국내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9
2.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22
3.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 유관 통계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의 고충사항	26
III. 서비스 수출 지원 제도 현황	37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39
2.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	42
3. 기타 수출 지원 관련 정부 사업	48
4. 의료기관 해외진출	53
IV. 해외국가 산후조리원 시장조사	57
1. 중국	59
2. 미국	75
3. 일본	82
4. 베트남	89
5. 몽골	96
6. 말레이시아	103
7.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108
8. 인도네시아	118

9. 유럽	121
10. 기타 국가	131
V.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135
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사례	137
2. 국제개발협력(ODA) 사례	142
VI. 정책제언	149
1. 산후조리원 해외 시장조사 종합 및 해외수출 SWOT 분석	151
2. 산후조리원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	154
참고문헌	165



표 목차

〈표 II-1- 1〉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 정의	20
〈표 II-1- 2〉 표준산업분류 상 산후조리원	20
〈표 II-1- 3〉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 규정	21
〈표 II-2- 1〉 표준산업분류 상 산후조리원	22
〈표 II-2- 2〉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	25
〈표 II-2- 3〉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	25
〈표 II-2- 4〉 지역별, 서비스 세부 업종 별 서비스 수치, 수출, 수입액	26
〈표 II-3- 1〉 의료기관 해외진출 국가	27
〈표 II-3- 2〉 의료기관 해외 진출 기관	29
〈표 II-3- 3〉 조제분유(HSK 19011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2023년 11월)	29
〈표 II-3- 4〉 이유식(HSK 21042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2023년 11월)	30
〈표 II-3- 5〉 의료기기(HSK 90189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 ~2023년 11월)	31
〈표 II-3- 6〉 생리대, 탐폰, 기저귀 등(HSK 961900) 주요 수출국 순위 (2019년 1월 ~2023년 12월)	32
〈표 II-3- 7〉 서비스 세부업종별 해외 진출 애로 요인	34
〈표 III-1- 1〉 KSP 사업 형태	40
〈표 III-1- 2〉 KSP 사업 주제	40
〈표 III-2- 1〉 주요 수출지원 프로그램	42
〈표 III-2-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보조금	44
〈표 III-2- 3〉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및 내용 예시	45
〈표 III-2- 4〉 2023년 서비스거점 현황	46
〈표 III-2- 5〉 해외규격인증 유야관련 품목	47
〈표 III-3- 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49
〈표 III-3- 2〉 내수초보 기업 육성(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요건 및 절차, 지원내용	49
〈표 III-3- 3〉 서비스 BM 대상 업종	50
〈표 III-3- 4〉 서비스 BM 지원금액	51
〈표 III-3- 5〉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내용	52
〈표 III-3- 6〉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원대상	52
〈표 III-4- 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트랙별 및 지원규모	53
〈표 III-4- 2〉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	54
〈표 III-4- 3〉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진출 현황('16~'22)	54
〈표 III-4- 4〉 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 사례	55
〈표 IV-1- 1〉 중국(홍콩, 마카오)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59
〈표 IV-1- 2〉 1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	61

〈표 V-1- 3〉 2022년 도시 가구 소득 분위별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	61
〈표 V-1- 4〉 2022년 도시 가구 지역별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	62
〈표 V-1- 5〉 1인당 연평균 소비 지출액	62
〈표 V-1- 6〉 중국 혼인 건수 및 혼인율	63
〈표 V-1- 7〉 혼인 연령	63
〈표 V-1- 8〉 혼인을 원하지 않는 이유	63
〈표 V-1- 9〉 중국 출생 건수 및 출생률	64
〈표 V-1-10〉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	64
〈표 V-1-11〉 중국 지역별 출산휴가	65
〈표 V-1-12〉 중국 산후조리원 서비스	66
〈표 V-1-13〉 중국 산후조리원 주요 모델 및 특징	67
〈표 V-1-14〉 2014-2021년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규모	67
〈표 V-1-15〉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 추산 (2022년)	68
〈표 V-1-16〉 2021년 중국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 의향 조사	68
〈표 V-1-17〉 2025-2030년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 예상	69
〈표 V-1-18〉 중국 도시별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	70
〈표 V-1-19〉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 점유율	70
〈표 V-1-20〉 중국 산후조리원 매장 현황	70
〈표 V-1-21〉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2년 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71
〈표 V-1-22〉 2021년 산모/유아용품 소비자 연령대	73
〈표 V-1-23〉 소비자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73
〈표 V-1-24〉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의 주요 요소	73
〈표 V-1-25〉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74
〈표 V-1-26〉 중국 소비자의 산후조리 관련 정보 수집 경로	74
〈표 V-1-27〉 95허우 엄마의 산후조리 방식	75
〈표 V-2- 1〉 미국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76
〈표 V-2- 2〉 미국 LA 제때 산후조리원(2018~2021) 이용항목	79
〈표 V-2- 3〉 미국 산후조리원 사례	80
〈표 V-2- 4〉 미국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81
〈표 V-3- 1〉 일본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82
〈표 V-3- 2〉 산후케어 서비스 비교	88
〈표 V-4- 1〉 베트남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89
〈표 V-4- 2〉 베트남 산후관리 지원 제도	92
〈표 V-4- 3〉 산후조리 관련 업체 및 서비스	96
〈표 V-5- 1〉 몽골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97
〈표 V-5- 2〉 몽골 출산지원 정책	99
〈표 V-5- 3〉 몽골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1일)	101

〈표 V-5- 4〉 몽골 주요 산후조리원	102
〈표 V-6- 1〉 말레이시아 혼인 건수	104
〈표 V-6- 2〉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104
〈표 V-6- 3〉 LYC Healthcare 제공서비스	107
〈표 V-6- 4〉 Esther Postpartum Care 제공서비스	107
〈표 V-6- 5〉 Little Precious Postnatal Care 제공서비스	108
〈표 V-7- 1〉 UAE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109
〈표 V-7- 2〉 UAE 병원별 출산 비용	115
〈표 V-7- 3〉 UAE Blissful Beginnings Postnatal Retreat 산후 0~6개월 이용항목	117
〈표 V-7- 4〉 UAE 보모 이용 금액	118
〈표 V-8- 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119
〈표 V-9- 1〉 독일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121
〈표 V-9- 2〉 네덜란드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124
〈표 V-9- 3〉 2012~2017년 영국의 총 인구와 연간 인구 증가율	126
〈표 V-9- 4〉 2018~2023년 영국의 인구 수와 연간 인구 증가율	126
〈표 V-9- 5〉 2012~2016년 이민자 수와 자연적인 인구변화 수, 합계출산율	126
〈표 V-9- 6〉 2017~2020년 이민자 수와 자연적인 인구변화 수, 합계출산율	126
〈표 V-9- 7〉 영국 &Breath Prenatal Postnatal Retreat 이용항목	130
〈표 V-10-1〉 대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131
〈표 V-10-2〉 싱가포르 산후도우미 취직 자격증 신청 요건 및 비용	132
〈표 VI-1- 1〉 산후조리원 시장 조사 개요도	152
〈표 VI-2- 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154
〈표 VI-2- 2〉 국가 별 산후조리원	157
〈표 VI-2- 3〉 중국, 말레이시아 유아용품 박람회 예시	159
〈표 VI-2- 4〉 농림축산식품부 바이어 거래 알선 지원 내용	160
〈표 VI-2- 5〉 사업별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160
〈표 VI-2- 6〉 중국 산후회복용품(산후용품) 시장규모	161
〈표 VI-2- 7〉 중국 산후관리 1인당 평균 소비액	162
〈표 VI-2- 8〉 중국 산후회복 제품	162
〈표 VI-2- 9〉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163



그림 목차

[그림 II-1-1] 산후조리원 현황	19
[그림 II-2-1] 서비스 공급유형 개념도	24
[그림 II-3-1] 해외진출 신고 수	27
[그림 II-3-2]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형	28
[그림 II-3-3] 외식기업 해외진출 점포 수 및 업체 수	32
[그림 II-3-4] 외식기업 해외진출 국가 현황	33
[그림 II-3-5] 외식기업 해외진출 희망 국가	33
[그림 II-3-6] 서비스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필요한 정책지원	34
[그림 II-3-7] 해외 판로 개척	35
[그림 II-3-8]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분야	35
[그림 II-3-9] 해외진출 여건	36
[그림 III-1-1] 기존 KSP 신청경로와 민간 사업제안제 활용	40
[그림 III-1-2] KSP 연도별 사업현황	41
[그림 III-1-3] KSP추진 결과 2021년, 2022년 분야별 사업 현황	41
[그림 III-2-1] 바우처 신청 가능 사업 유형	43
[그림 III-2-2] 수출바우처 사업 흐름도	46
[그림 III-3-1] 붐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 팸플릿	48
[그림 III-3-2] 서비스 BM 지원 내용	51
[그림 III-4-1]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대표사례	55
[그림 IV-1-1] 산후조리원 개소 수(예상)와 증가율	69
[그림 IV-3-1] 일본 영유아 예방접종 스케줄	85
[그림 IV-4-1] Vinmec 시설 및 서비스	94
[그림 IV-4-2] MISS CARE 제공 서비스	95
[그림 IV-5-1] 몽골 산후조리원	101
[그림 IV-7-1] UAE 산부인과	115
[그림 IV-9-1] 2012~2022년 영국의 연령별 인구율	127
[그림 IV-9-2] 2012~2022년 영국의 국내 총생산	128
[그림 IV-9-3] 2012~2022년 영국의 연간 GDP 성장률	128
[그림 IV-9-4] 2012~2022년 영국의 1인당 GDP	129
[그림 IV-9-5] 영국 산후조리원 유사 서비스 사례(& Breath Prenatal care service)	129
[그림 IV-9-6] kraamhotel 시설	130
[그림 V-1-1] 우시 'G' 산후조리원	138
[그림 V-1-2] 중국C 산후조리원 로비 & 객실	139
[그림 V-1-3] 중국C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 신생아용품	140

[그림 V-1-4] SPA룸	140
[그림 V-1-5] SN산후조리원 설치 위치 및 디자인 컨셉	142
[그림 V-2-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	143
[그림 V-2-2]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2015~2024년)	144
[그림 V-2-3] 우리나라 ODA 지원 분야별/형태별 비중	144
[그림 VI-1-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SWOT 분석 결과	154
[그림 VI-2-1] 해외지식재산센터 모형	156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비스 수출이 과거보다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같은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고유의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유망시장 선점과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 조사 및 관련 정책자료 검토
 - 산후조리원 관련 사업 및 정책자료 검토
- 해외 국적 여성 면담
 - 결혼 이민자 등 산후조리원 문화가 있거나 익숙한 국가의 여성 대상 면담 진행
- 현지 시장 조사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산후조리원 진출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문화 및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시장 조사 실시
-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사례 조사
 -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을 추진한 사례 등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 실시

2. 연구 배경

가. 국내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 및 관련 법 제도

-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7,800억 수준임
-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관리를 받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 상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함

나.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생아 관리 서비스, 산모관리 서비스, 교육서비스, 감염 및 환경관리 서비스, 기타서비스로 구분됨
-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을 10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을 추진하였고 최근 2023년도에 발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 산후조리원을 수출 대상 서비스로 선정하였음
-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서비스 무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외 관광객 방문, 외국 현지에 단독 법인 또는 합자회사 설립, 컨설팅과 같은 자연인 주재 등의 서비스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무역 통계는 지식재산권 사용료(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포함)과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임
- 산후조리원이 해당하는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체 수출 비중에서 0.9%를 차지함

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 유관 통계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의 고충사항

-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분야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총 28개국에 진출하였으며 진출 개소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순이었음
-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피부·성형이과 산후조리원 밀접한 병원인 산부인과는 6개소 진출하였음
- 산후조리원과 동반 수출이 가능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무역통계를 조사함
 - 조제분유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이었음
 - 이유식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만, 홍콩, 베트남 순이었음
 -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본, 중국, 브라질 순이었음
- 서비스 산업 중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외식산업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미국이었으며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순이었음
- 외식산업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중국이 가장 진출을 많이하고 선호하는 국가였으나 코로나 봉쇄로 인해 선호도가 감소하였으며 진출 개소수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베트남이 외식산업 진출의 유망국가로 떠오르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소규모 업체가 많아 수출 경쟁력이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의 고충사항은 해외 바이어/수요발굴, 현지정보부족, 해외진출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었음

3. 서비스 수출 제도 현황

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하여 협력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기반 개발협력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4년 출범 이후 89개 국과 협력함.
 - 협력국이 ODA사업을 신청하던 구조에서 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협력국에 제안하는 형태로 개선하여 수출을 활성화 하고자함.
 - 사업주제는 총 18개로 사업당 2~4억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나.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

- 2023년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18개의 부처가 모여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세우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접수상담,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인증 지원, 무역 및 기타 등을 전문기관에서 지원할 전략을 세움.
 -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KOTRA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수행하며, 수출 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산업 수출마케팅 지원: 코트라 해외 무역관 28개소에서 1년간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서비스거점 무역관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1:1로 매칭하여 마케팅을 지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수출기업에 대해 중진공의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통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다. 기타 수출 지원 관련 정부 사업

- KOTRA 주관 사업으로 북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연중상시 운영함.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내수초보 기업 육성사업,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함.
- 산업통상부 주관 사업으로 해외 지사화 사업을 운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단계별로 기초 마케팅 지원(진입), 마케팅 및 수출지원(발전), 수출 및 현지화 지원(확장)을 함.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사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1,000+사업을 운영하며 수출 성장단계별로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 강소+기업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함.

라. 의료기관 해외진출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토대로,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패키지(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 진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목표로 함.
 -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2022년 12월 기준 총 28개국 162건(누적)의 해외진출 사례가 있었음.

4. 해외국가 산후조리원 시장 조사

가. 중국

- 중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산후조리 기간이 30일~45일로 길었음
- 중국은 전통적으로 출산 후 한달 동안 집에 머무르며 쉬게하는 전통이 있으며 이를 쥐위에즈(坐月子)라고 하였음
- 중국의 산후조리원은 1999년 베이징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2016년도에 급속도로 성장함
- 중국은 산후조리원은 중국의 전통문화인 쥐위에즈(坐月子)와 결합하여 위에즈센터(月子中心)'라고 명명함
- 중국의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한국과 거의 유사하지만 호텔 서비스식, 사회 가정식 등 상대적으로 유형이 다양함

- 중국의 산후조리원 시장규모는 2021년 1조 8천억 수준이며 현재 설립된 산후조리원 수는 5,000개 이상으로 추산됨
- 최근 95허우 중심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산후조리원 선호도가 높음
 -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10% 미만임
- 중국의 산모는 산후조리원을 한달 정도 이용하며 이용 금액은 도시별로 상이함
 - 2022년 기준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4주 기준 43800위안(약 810만원)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상하이, 베이징, 선전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음
- 중국의 산후조리 관련 규정은 소방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서비스 규제 및 표준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나. 미국

- 미국은 산후 관리에 관한 논의만 있고 산후조리 문화는 없는 상황임
- 산후조리 서비스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영향을 받아 산후조리원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음
- 미국 LA,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에 산후조리원이 개설되었으며 하루에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산후조리원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관리사 파견)을 알선하는 소수의 회사도 있음
 - 산후관리사 이용 비용은 시간당 약 3만원 수준이지만 출퇴근, 입주형, 도시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다름

다. 일본

- 일본의 산후조리 서비스 유형은 데이케어, 호텔형, 입원형, 아웃리치(산후관리사 파견) 등이 있음
- 한국형 산후조리원(호텔형, 입원형)에 대한 수요도 최근 늘고 있음
 - 호텔형은 일박에 70만원의 넘는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입원형은 하루에 6만원 정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금도 지급됨

□ 일본의 독특한 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있음

- 산후조리를 낮 시간만 이용하는 형태로 지자체 지원시 매우 낮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

라. 베트남

□ 베트남은 산후조리원이 없으며 산후조리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2~3일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음

□ 이러한 산후조리시설의 경우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회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베트남에서 보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는 SPA 형태임

- 다양한 형태의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후 마사지의 경우 1만 5천원에서 ~ 3만8천원, 종합 건강 검진 및 모니터링은 1만 5천원 ~ 3만 8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마. 몽골

□ 몽골에서 최근 산후조리원이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총 8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은 2주에 300만원~500만원 수준이고 음식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서비스가 거의 유사함

□ 산후조리원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산후조리원도 진출해 있으며 중국의 산후조리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출산 인구의 약 5%가 이용하고 있음

바.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화교인과 말레이인들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어 중국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로 산후조리 두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슬람문화에서도 40일 정도의 산후조리 기간을 두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화교의 영향으로 산후조리원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며 주도시인 셀랑고르, 페낭, 조호르, 쿠알라룸푸르 등에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의 산후조리원은 호텔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셀랑고르주는 예외적으로 의료센터로 분류하고 있음

- 대부분 중국계, 대만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음

사. UAE

- UAE는 이슬람 국가로 40일을 산후조리 기간으로 보고 있음
- UAE 산모는 산후조리원은 없고 주로 보모나 가정부를 두어 산후조리 도움을 받음
- 일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 퇴원 후에 조산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산후조리원과 유사하게 호텔과 결합한 posnatal reteat가 개설되었으며 호텔 객실 중에 산후조리를 위한 전용 객실이 마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출산 후 40일 동안 외출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의료기관 이외에 별도의 시설이 없고 소규모 의료기관 (clinic)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과 같은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가 아닌 정산과 의사 상담이나 피부 관리를 받는 시설임
- 인도네시아에서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규제가 따로 없어 한국 산후조리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 유럽

-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시설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곳은 없었음
-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출산 후 조산사나 전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케어해주는 형태로 관리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조산원과 호텔서비스를 결합한 kraamhotel이란 시설이 있음
 - kraamhotel은 출산 후 최대 8일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주로 집에서 산후조리가 힘든 경우 이용하는 시설임

차. 기타 국가

- 대만은 한국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 보편화된 국가로 2022년 기준 총 270개소의 산후조리원 설치되어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약 42%이며 평균이용 기간은 22.6일로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정도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싱가포르의 산후도우미 방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국가임
 - 싱가포르에서는 산후도우미의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이 있음
 - 중국계 산후조리원이 진출하기 시작하였음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문화 등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전기/수도 시설 문제로 인해 시설이 있더라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5.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가.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사례

- 한국의 일부 산후조리원은 주로 중국에 진출한 상태임
 - G산후조리원, D산후조리원 등이 중국의 우시, 베이징 등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
 - 과거에 Y산후조리원 등이 진출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출이 안전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음
-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 법률지원 등이었음
 - 또한 현지조사 지원, 바이어 발굴,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국제개발협력(ODA) 사례

-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ODA 사업은 대부분 병원, 보건소 및 기타 의료 시설 건축사업 및 의료 장비,약품, 기자재 지원사업과 같은 물적 협력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주요 ODA 사업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아동사망 감소를 위한 모자보건 증진사

업, 필리핀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사업 등이 있었음

-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ODA 사업은 엘살바도르의 산후조리원 지원 사례로 산후조리 인프라가 열악한 엘살바도르 지방도시에 한국형 산후조리원 시설을 설치하였음

□ 교육과 육아정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보건의료보다 교육과 컨설팅 중심의 개발협력사례가 있었음

- 캄보디아 초등교원, 세네갈 교사,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사 등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개발협력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6. 정책제언

영역	내용	관련부처	관련기관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 세계지식재산기구 등록 - IP확보 및 지원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 상담 및 컨설팅 마련	- 서비스 수출 상담창구 개선 - 수출바우처 사업과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 특성별 맞춤 전략 개발	- 국가 특성별 해외진출 전략 개발 - 서비스 차별화 및 컨설팅을 통한 홍보 - 유망 국가 KSP 적극 추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 수출과 연계와 산후조리원 수출홍보사이트	-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 구축 - 한국 산후조리 문화에 스토리 구축 - 한국 서비스산업 수출 홍보 사이트 개설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 무역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서비스산업 무역박람회 추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어 거래 알선	-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개별 바이어 초청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 자금용자	- 내수초보 기업 육성 강화 - 서비스업종 매출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테나숍 모델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 산후조리원 안테나숍 형식의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ICA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영역	내용	관련부처	관련기관
재외공간 네트워크 활용	- 대사관 및 외교관을 활용한 산후조리 홍보 강화	외교부	주한 외국대사관 국외 한국대사관
산후조리원과 연계한 동반 수출 전략 개발	- 배후 산업과 연계한 수출 모델 개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후조리원 영역 R&D 투자 증대	- 관련 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후조리원 관련 인력 국제 자격증	-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자격증 개발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문대학 등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산업 발달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다양화 추진	- 중국 호텔형 산후조리원, 일본 데이케어 센터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 시설 개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전통적으로 산후 3주까지 초기 산육기간을 삼칠일이라고 명명하여 산모가 절대적으로 타인을 돌봄을 받으며 신체·심리·사회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송주은, 2007;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 2021: 40 재인용). 한국 산모는 이러한 산후조리 기간을 주로 가정에서 보냈으며 친정 또는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 도움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핵가족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춰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전문 간호사 또는 조산사 등을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민간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먼저 포착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산업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에서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봄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인 '산후조리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6년도에 탄생한 산후조리원은 급격하게 한국 사회에 퍼져나갔으며 현재는 출산한 산모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정책의 범위로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포함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정부에서 산후조리원 평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산후조리 문화 변화에 힘입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도 탄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수요는 매우 높아졌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총 19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되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은 한국의 고유한 출산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유일의 산후조리 전문 기관인 산후조리원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우수성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가 유사한 중국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고유의 시스템인 중국에 산후조리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확인한 정부는 2010년도에

‘10대 유망 중소 해외진출’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부 산후조리원 등에서 중국 등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선정하여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성과가 보인 곳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과 한국에서 출산한 다문화 여성 등의 입소문에 힘입어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물론, 몽골,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산후조리원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탄생한 산후조리원의 수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 수출이 과거보다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같은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고유의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유망시장 선점과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개소 수,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산업 규모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수출이 유망한 국가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일부 국가의 보건환경, 출산율, 경제적 수준,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한다.

셋째,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하여 현지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국가에 산후조리원이 있는지 여부,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수요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넷째,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다. 진출 방법 및 경과, 현재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다섯째,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시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육아 분야 ODA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산후조리원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조사 및 관련 정책자료 검토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련 사업 및 정책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해외 수출의 경우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과 관련된 통계와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추가로 산후조리원 수출 서비스 대상 국가를 탐색하기 위해 영유아 용품에 대한 무역통계 자료도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 유망국가의 보건의료 지표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의 정책 자료 등을 탐색하였다. 주요 조사 자료는 정책제도, 근로일수, 의료이용 특성, 출산·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주택 특성 등이다.

나. 해외 국적 여성 면담

국외 여성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국적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자녀를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디서 하고 지원 인력이 누구인지, 산후조리 문화(기간, 회복방법, 먹는 음식 등)가 어떠한지, 출산 후 지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임신·출산·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후조리원이 모국에 진출한다면 이용 고객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 현지 시장 조사

산후조리원 수출이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여 현지 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장 조사 내용은 수출입 품목, 출산 장소, 분만 방법, 평균 산후조리 기간, 주요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출산 후 모자보건 지원제도 및 정책, 출산 휴가, 산후조리 관련 트렌드,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서비스 현황, 산후조리원 이용 시 평균 비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UAE, 인도네시아 등과 일부 유럽 국가이다.

라. 사례조사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을 경험했던 업자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례조사 내용은 해외진출 국가, 진출 방식, 해외진출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시 도움 받은 정부 기관, 해외 진출 시 정부에서 가장 지원해야 할 부분, 향후 해외진출 희망 여부 및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유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국가,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요 외국인 국적 등이었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산후조리원 수출 촉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전문가는 무역 컨설턴트, 무역협회, KOTRA 소속 전문가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 향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였다.

II

연구배경

- 01 국내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 02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 03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 유관 통계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의 고충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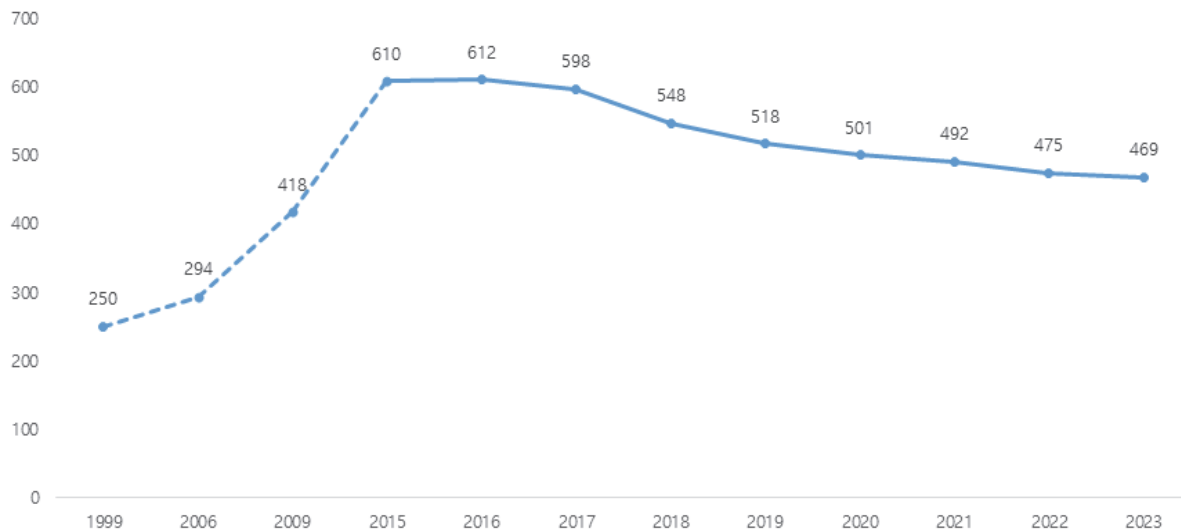
II. 연구배경

1. 국내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가. 산후조리원 현황 및 시장 규모

1996년도 후반에 처음 국내 시장에 등장한 산후조리원은 탄생한지 3년 만에 크게 확대되어 1999년도에 250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도에 612개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여파로 인해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도에는 469개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용률은 크게 상승하여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81.2%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그림 II-1-1]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통계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임

2011년 하나금융그룹에서 발간한 산후조리업의 현황과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3,500억 정도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산전/후 관리 내용까지 포괄되면서 서비스 이용 비용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도 증가하였다. 현재 정확한 산후조리원 시장규모를 추정할 순 없지만 이정림·이재희·조미라·박여정(2021)이 수행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근거하여 추산해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기본 이용

비용은 326만 1천원이었으며 산전후 관리까지 포함한 이용금액을 포함하면 385만 6천원이었다. 1인당 이용 비용을 2022년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이용률과 출산한 신생아 수 기준으로 산출하면 7,800억원(25만×80%×386만) 수준으로 추산된다. 즉 최근 10년 사이에 2배가량 시장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나. 산후조리원 업종 분류 및 관련법령

산후조리원이 처음 탄생한 시기에는 신생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산업 분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 발생 문제 등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가 2003년부터 감염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종이 포함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 상에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고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표 II-1-1〉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 정의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2024. 1. 22. 인출)

표준산업분류상에 산후조리원은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 활동에 포함되는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사한 산업은 요양보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표 II-1-2〉 표준산업분류 상 산후조리원

분류코드	96993	분류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설명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 산후 조리원 • 개인 간병 서비스 <제외> • 개인 여행안내(75290) • 조산원(86909)		
색인어	개인 간병서비스, 방문 간호서비스, 산모 조리서비스, 산후조리원 운영, 요양보호서비스, 재가 요양서비스, 출산 산후조리서비스		

자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사이트에서 산후조리원 검색,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2024. 1. 22. 인출)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15조부터 15조의 22까지 산후조리원 관련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업신고부터, 결격사유, 준수사항, 종사자 건강진단,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산후조리원 폐쇄, 과징금, 손해배상책임보장, 산후조리원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다.

〈표 II-1-3〉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 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변경신고)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업무의 위탁)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8조의2(행정처분대상 등)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7조(행정처분기준)	제18조의2(행정처분대상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11(과징금)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청문)		제18조의2(행정처분대상 등)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2024. 1. 22. 인출\)](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2024. 1. 22. 인출))

특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원 규모에 따른 인력 기준(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 위치 및 면적, 일조, 채광, 환기, 급수시설, 급식시설, 세탁실 등과 관련된 기준이다. 산후조리원은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적용을 받아 해당 법 기준에 따라 화재 예방관리를 실시해야한다.

2.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전술한 것과 같이 산후조리원은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산후조리원은 주로 신생아와 산모의 요양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초기에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생아 관리 서비스, 산모관리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감염 및 환경관리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구분된다. 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입실시 신생아 신체 사정(확인), 신생아 건강기록부 작성/관리, 신생아 관찰 및 활력 징후 측정, 신생아 영양 및 위생 간호, 배설 간호 등이 포함된다. 산모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체 사정, 산모 정서 상태 및 우울평가, 모유수유 지원 및 관리, 유방관리, 회음부 관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서비스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관리 교육, 아버지교육, 안전교육을 포함한다. 감염 및 환경관리 서비스는 감염관리, 세탁, 환경 및 기구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신생아 관리, 산모관리, 교육서비스, 감염 및 환경관리 서비스는 95%의 이상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정림 외, 2021).

하지만 기타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발전되고 산모의 수요가 확장되면서 발전된 서비스이다. 최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정림 외, 2021). 주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모 전신관리 및 피부 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1〉 표준산업분류 상 산후조리원

구분	상세현황
신생아 관리 서비스	입실시 신생아 신체 사정(확인)
	신생아 건강기록부 작성/관리
	신생아 관찰 및 활력 징후 측정
	신생아 영양 간호(모유/분유 수유관리)
	신생아 위생 간호(목욕, 배꼽, 눈, 피부 관리)
	배설 간호(기저귀 갈기, 엉덩이 부분 목욕)
	신생아 황달 체크
산모관리 서비스	신생아 배변상태 확인(똥은 변, 설사, 푸른 변 등)
	산모 신체 사정
	산모 정서 상태 및 우울 평가
	모유수유 지원 및 관리(모유수유 시간 및 자세 지도)
	유방관리 (유방 울혈 예방, 모유 분비 촉진을 위한 건·습식 마사지)
	회음부 및 좌욕관리
	산모 영양 관리

구분	상세현황
교육서비스	신생아 관리 교육
	아버지 교육
	안전교육
감염 및 환경관리 서비스	감염관리 (손 씻기, 감염증상 체크, 방문객 관리)
	세탁
	환경 및 기구관리(산모실 및 신생아실 청소, 정기 소독 등)
	공기 질 관리(공기청정기 사용 등)
기타 서비스	산전관리
	산모 전신 관리 또는 스파
	피부 관리
	한방산후관리
	가슴 관리(모유 수유를 위한 유방 관리 외)
	요가, 필라테스, PT 등 체형 교정 프로그램
	신생아 마사지 교육
	이유식 만들기 및 영양사 상담
	아기 이름 작명
	아기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제작
	산모 자조 모임 프로그램
	모빌 제작
산모 및 신생아 픽업 서비스	

자료: 이정림·이재희·조미라·박여정(2021).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나.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을 10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을 추진하였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0. 6.11). 주요 국가는 산후조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베트남, 대만과 한류 영향으로 국내 유아식 제품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진출 전략은 한국산 유아식(용품)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를 활용하여 1단계로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베이비케어 관련 업체와 제휴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운영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0. 6.11). 2단계로는 임신·출산·산후조리 교육을 온·오프라인 형태로 하여 인지도를 높인 후 현지 산부인과와 연계방안을 추진하는 것이었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0. 6.11).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당시에는 수출과 관련된 후속 지원과 이어지지 못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 활성 방안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 11. 27).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분석과 동향조사 실시, 산후조리 관련 산업과 컨소시엄 구성,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산후조리 관련 산업 컨소시엄은 병원, 산후조리원, 연관 산업체(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반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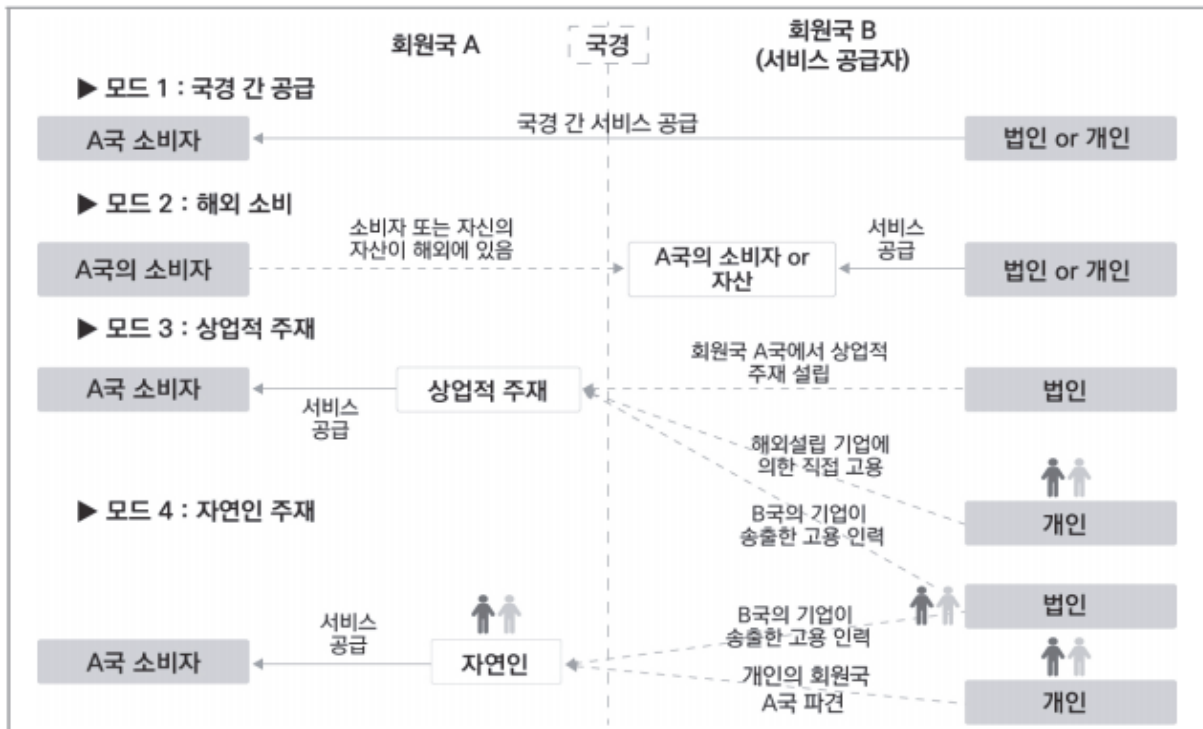
다.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관련 통계

학술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김종덕·조문희·김현수·김혁항·강준구·권현호·김천곤, 2022). 하지만 최근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박용태·김문수·강인태·김철현·윤병운·신준석·이성주·이학연, 2010).

무역 분야에서 서비스의 정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제시되어 있다¹⁾. WTO에서 제시한 방식은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특성보다는 서비스의 공급방식에 따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공급의 유형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모드 1은 국경 간 공급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모드 2는 해외 소비는 해외 관광 등으로 온 고객에게 현지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드 3은 사업적 주재로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에 주재하여 실제 현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드 4는 자연인 주재로 서비스 공급자가 파견한 또는 송출한 자연인이 외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림 II-2-1] 서비스 공급유형 개념도



자료: UN(2011).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010. New York: United Nations. p. 15에 있는 내용을 박용태 외(2022: 45)가 번역한 자료임

1) WTO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gatsintr_e.htm(2024. 1. 24 인출)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돌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드 1의 무역은 발생하기 어렵고, 모드 2~4의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드 2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해당 할 수 있다. 모드 3은 외국 현지에서 단독 법인 또는 합자회사 형태의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 모드 4는 외국 현지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컨설팅을 하거나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인력이 해외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 교류의 확대로 인해 세계 서비스 무역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2%이다(심혜정·이혜연, 2020). 서비스 무역 비중이 2010년에는 20.1%이던 것이 2019년도에는 24.1%로 증가하였으며 WTO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6. 5.).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서비스 수출 규모는 1,30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수출(6위) 대비 국제적 위상이 낮은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6. 5.). 특히 서비스 무역수지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2-2〉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역년)	'15	'16	'17	'18	'19	'20	'21	'22
상품수출액(A)	5,431	5,119	5,803	6,263	5,567	5,179	6,495	6,905
서비스 수출액(B)	975	948	897	1,037	1,038	896	1,199	1,302
비중(B/(A+B), %)	15.2	15.6	13.4	14.2	15.7	14.7	15.6	15.9
서비스 수입액(C)	1,121	1,122	1,264	1,331	1,307	1,043	1,252	1,357
서비스 수지(B-C)	△146	△173	△367	△294	△269	△147	△53	△5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6. 5).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p. 2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무역 통계는 지식재산권 사용료(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포함)와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무역 통계이다. 현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상황이고 2022년 수출 금액은 6,895백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에 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금액과 비중은 2020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산후조리원이 포함되는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수출은 흑자 상황이지만 2022년 수출 규모가 1,126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이 0.9%로 매우 낮다.

〈표 II-2-3〉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BPM6)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4,670	-5,287	-5,548
서비스 수출액	103,678	103,839	89,596	119,949	130,181
서비스 수입액	133,047	130,684	104,266	125,235	135,729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BPM6)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2,493	-2,415	-2,063	-2,157	-2,993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출	6,936	7,287	7,749	7,752	6,895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출 비중(%)	6.7	7.0	8.6	6.5	5.3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	9,429	9,702	9,812	9,909	9,888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수출	1,639	1,590	2,011	955	1,060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수입	2,148	2,296	1,969	1,839	1,869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수지	468	198	227	271	183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수출	1,132	925	1,089	1,267	1,126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수출 비중(%)	1.1	0.9	1.2	1.1	0.9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수입	664	728	862	996	94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4.1.25.일 인출\)](https://ecos.bok.or.kr/#/SearchStat(2024.1.25.일 인출)).

지역별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서비스 수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동남아로 4,918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 중남미 순이었다. 적자가 가장 높은 지역은 EU로 -7,846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서비스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역시 동남아로 37,091백만 달러로 가장 수출액이 컸으며 다음으로 미국 30,512백만 달러, 중국 19,342백만 달러 순이었다. 지식 재산권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동남아가 2,599백만 달러로 가장 수출액이 컸으며 다음으로 미국 2,214백만 달러, 중국 1,038백만 달러 순이었다. 기타사업서비스의 수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미국이 12,335백만 달러, 동남아 8,694백만 달러 순이었다.

〈표 II-2-4〉 지역별, 서비스 세부 업종 별 서비스 수지, 수출,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지역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지식 재산권 수지	지식 재산권 수출	지식 재산권 수입	기타사업 서비스 수지	기타사업 서비스 수출	기타사업 서비스 수입
미국	-2,022	30,512	32,534	-2,613	2,214	4,827	-1,562	12,335	13,897
중국	-585	19,342	19,927	-137	1,038	1,175	-1,666	1,437	3,103
일본	2,435	8,585	6,150	-460	312	771	1,122	2,569	1,448
EU	-7,846	11,092	18,938	-493	833	1,325	-2,775	3,301	6,075
동남아	4,918	37,091	32,173	2,181	2,599	418	618	8,694	8,076
중동	-924	4,337	5,261	0	16	16	-516	588	1,104
중남미	1,173	2,948	1,775	106	109	3	88	477	389
기타	-2,695	16,275	18,970	-2,335	806	3,142	-2,895	2,968	5,86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4.1.25.일 인출\)](https://ecos.bok.or.kr/#/SearchStat(2024.1.25.일 인출)).

3.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 유관 통계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의 고충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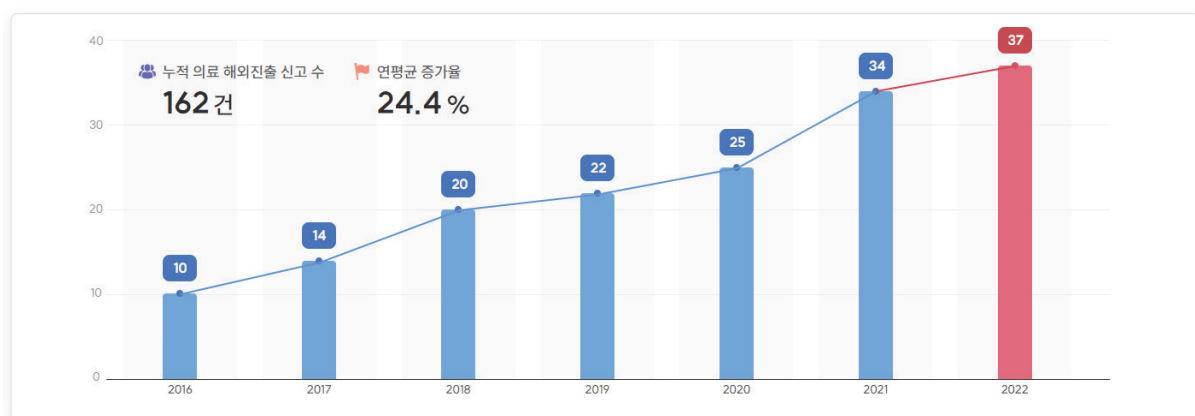
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통계

한국에서는 산후조리원은 명확하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밀

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고 종사하는 인력에게 산모와 신생아와 관련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과 연계하여 산후조리원이 개설된 곳이 많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특성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의료정보포털에 제시되어 있는 국내 의료기관 신고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해외진출 신고 수는 162건이 연평균 증가율은 24.4%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의 경우에는 37건이 신고되었다.

[그림 II-3-1] 해외진출 신고 수



자료: 국제의료정보포털, <https://www.medicalkorea.or.kr/ghip/icStatsInfo>(2024. 1.25.일 인출).

의료기관 해외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총 28개국에 진출하였다. 가장 건수가 많았던 국가는 중국으로 63건이었다. 다음으로 베트남 24건, 몽골 9건, 카자흐스탄 8건, UAE 6건이었다.

<표 II-3-1> 의료기관 해외진출 국가

구분	건 수	비율 (%)
중국	63	38.9
베트남	24	14.8
몽골	9	5.6
카자흐스탄	8	4.9
UAE	6	3.7
일본	6	3.7
카타르	5	3.1
미국	5	3.1
우즈베키스탄	5	3.1
러시아	4	2.5
캄보디아	4	2.5
말레이시아	3	1.9
태국	3	1.9
페루	2	1.2
싱가포르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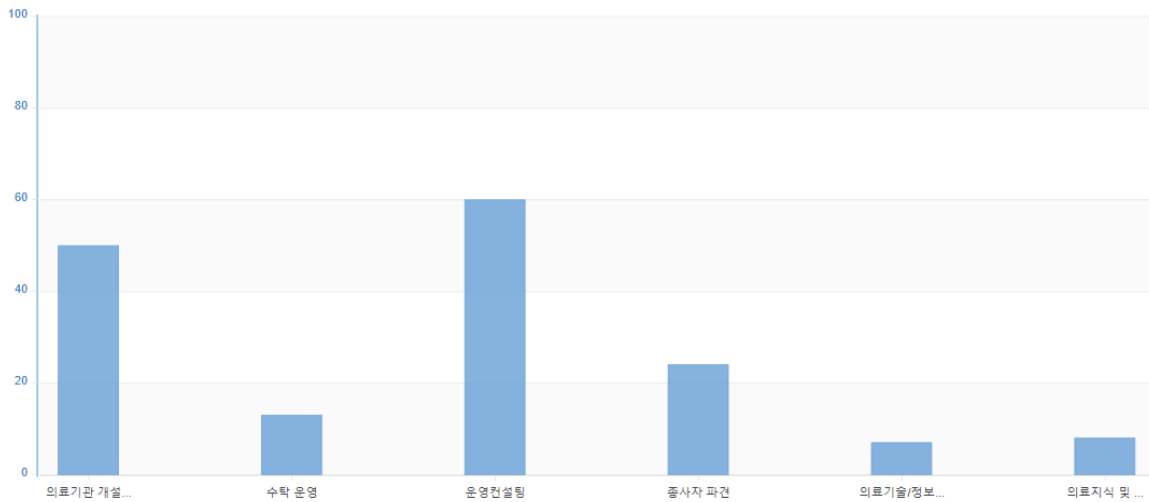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구분	건 수	비율 (%)
인도네시아	1	0.6
방글라데시	1	0.6
스리랑카	1	0.6
쿠웨이트	1	0.6
아르메니아	1	0.6
칠레	1	0.6
아제르바이잔	1	0.6
헝가리	1	0.6
오스트레일리아	1	0.6
미얀마	1	0.6
필리핀	1	0.6
벨라루스	1	0.6
사우디아라비아	1	0.6
합계	162	100.0

자료: 국제의료정보포탈, [https://www.medicalkorea.or.kr/ghip/icStatsInfo\(2024.1.25.일 인출\)](https://www.medicalkorea.or.kr/ghip/icStatsInfo(2024.1.25.일 인출))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형을 살펴보면 운영 컨설팅이 3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30.9%, 종사자 파견 14.8%, 수탁 운영 8.0% 순이었다.

[그림 II-3-2]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형



구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탁 운영	운영컨설팅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정보시스템 이전	의료지식 및 의료기술 지원·교육	합계
건수	50	13	60	24	7	8	162
비율(%)	30.9	8.0	37.0	14.8	4.3	4.9	100.0

의료기관 해외진출 기관을 살펴보면 피부·성형이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과 19.1%, 종합 6.2%, 한방과 4.9%,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3.7% 순이었다.

〈표 II-3-2〉 의료기관 해외 진출 기관

구분	건 수	비율 (%)
피부·성형	67	41.4
치과	31	19.1
종합	10	6.2
한방과	8	4.9
산부인과	6	3.7
재활의학과	6	3.7
일반외과	6	3.7
정형외과	5	3.1
신경외과	4	2.5
정보시스템	4	2.5
건강검진	3	1.9
진단검사의학과	3	1.9
이비인후과	2	1.2
흉부외과	2	1.2
내과	1	0.6
신경과	1	0.6
안과	1	0.6
비뇨기과	1	0.6
가정의학과	1	0.6
합계	162	100.0

나. 육아용품 수출 통계

산후조리원 수출 시 연계할 수 있는 육아분야 제조 물품을 탐색하기 위해 육아용품 수출 통계를 살펴보았다.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산후조리원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우리나라 조제분유의 수출 최대 실적 국가는 중국이었다. 수출금액이 326,264천 달러로 다른 어떤 교역국보다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평균 연간 증감률도 13.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이 84,982천 달러, 캄보디아 33,065천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8,453천 달러 순이었다.

〈표 II-3-3〉 조제분유(HSK 19011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2023년 11월)

단위: Kg, %, 천 달러

순번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평균증감률	중량	수입액	평균증감률	중량	
	총계	485,302	-	47,621,273	485,303	-	26,757,026	-1
1	중국	326,264	13.6	30,166,237	276	9.1	107,572	325,988
2	베트남	84,982	0.2	4,600,437	46	5.5	3,671	84,936
3	캄보디아	33,065	4.2	3,167,185	12	3.2	310	33,053

순번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평균증감률	중량	수입액	평균증감률	중량	
4	사우디아라비아	8,453	-	991,135	1	-3.1	60	8,452
5	파키스탄	7,996	-	1,379,798	0	-	0	7,996
6	러시아	6,252	-	3,625,323	8	-	426	6,244
7	대만	6,244	6.3	720,752	1	-	20	6,243
8	몽골	2,466	2.8	1,033,013	0	-	4	2,466
9	태국	2,277	0.9	91,815	32	4.9	3,420	2,245
10	미국	1,789	4.7	41,551	6,234	9.0	212,061	-4,445
11	인도네시아	1,646	-	55,857	4	4.7	384	1,642
12	아프가니스탄	1,460	-	968,747	0	-	0	1,460
13	카자흐스탄	599	-	460,879	0	-	6	599
14	미얀마	392	-	15,287	0	-	19	392
15	우크라이나	384	-	5,384	0	-	0	384
16	타지키스탄	381	-	197,240	0	-	0	381
17	라오스	127	-	5,843	0	-	0	127
18	방글라데시	111	-	18,682	0	-	0	111
19	말레이시아	77	21.0	4,743	28	0.8	6,090	49
20	홍콩	65	-	9,263	8	3.6	228	57

자료: 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2024. 2. 1 인출)

이유식은 상대적으로 조제분유보다 수출금액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우리나라가 이유식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998천 달러였으며 다음으로 대만 900천 달러, 홍콩 798천 달러, 베트남 300천 달러 순이었다.

〈표 II-3-4〉 이유식(HSK 21042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2023년 11월)

단위: Kg, %, 천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평균증감률	중량	수입액	평균증감률	중량	
-	총계	4,562	-	606,886	5,841	-	628,951	-1,279
1	미국	998	6.8	228,632	2,546	-0.8	250,311	-1,548
2	대만	900	5.6	20,349	1	-12.8	31	899
3	홍콩	798	3.1	106,708	1	-	51	797
4	베트남	300	-	11,339	383	11.3	36,193	-83
5	캐나다	240	1.9	43,706	6	-	526	234
6	중국	177	-4.7	8,162	1,723	4.5	225,354	-1,546
7	쿠웨이트	162	-	10,343	0	-	0	162
8	필리핀	152	5.5	39,175	1	-	57	151
9	호주	151	-2.8	25,449	25	-0.4	1,126	126
10	말레이시아	128	2.2	12,108	1	-	106	127
11	태국	128	-	2,505	83	1.9	13,378	45
12	뉴질랜드	108	0.6	40,775	11	-	1,224	97
13	인도네시아	88	-	20,265	3	-0.2	167	85
14	일본	68	-	7,145	242	-0.1	12,093	-174
15	싱가포르	60	5.2	13,545	4	2.7	298	56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평균증감률	중량	수입액	평균증감률	중량	
16	몽골	36	-	4,158	0	-	2	36
17	독일	15	2.6	2,439	101	0.3	6,323	-86
18	캄보디아	12	-	1,596	0	1,079.3	18	12
19	멕시코	8	11.7	1,600	0	-	11	8
20	아랍에미리트 연합	6	-	1,288	0	-	19	6

자료: 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2024. 2. 1 인출)

우리나라가 의료기기를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으로 486,092천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이 374,168천 달러, 중국 240,983천 달러, 브라질 155,366천 달러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평균 증감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25.8%로 매우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3-5〉 의료기기(HSK 90189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 ~2023년 11월)

단위: Kg, %, 천 달러

순번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평균증감률	중량	수입액	평균증감률	중량	
	총계	3,486,525	-	40,089,552	5,267,171	-	44,289,292	-1,780,646
1	미국	486,092	25.8	3,777,024	1,728,461	16.5	4,479,458	-1,242,369
2	일본	374,168	15.4	1,785,889	634,297	17.5	4,840,187	-260,129
3	중국	240,983	8.4	3,050,235	391,984	23.5	11,575,895	-151,001
4	브라질	155,366	9.2	1,404,816	448	3.8	1,546	154,918
5	인도(인디아)	149,565	11.2	3,800,506	9,290	5.9	100,811	140,275
6	프랑스	126,924	11.8	1,599,488	157,720	5.4	2,728,519	-30,796
7	러시아	123,462	15.7	1,676,923	1,404	-	12,367	122,058
8	독일	115,960	9.2	1,606,965	747,139	20.3	8,905,424	-631,179
9	베트남	112,100	16.0	3,950,311	56,159	4.0	1,471,528	55,941
10	영국	103,703	5.7	1,620,661	54,802	21.5	311,375	48,901
11	대만	103,560	8.0	782,494	33,949	6.7	376,163	69,611
12	인도네시아	98,879	6.4	1,613,325	1,705	-2.3	68,816	97,174
13	태국	84,131	12.9	730,844	5,073	8.8	158,568	79,058
14	호주	76,645	5.4	1,030,664	5,199	11.1	25,228	71,446
15	아랍에미리트 연합	73,447	12.5	344,568	692	10.2	3,427	72,755
16	홍콩	69,485	13.2	357,954	2,931	6.2	35,096	66,554
17	튀르키예	51,460	6.9	244,730	6,363	5.1	344,003	45,097
18	싱가포르	49,387	7.9	201,718	12,225	12.5	71,337	37,162
19	말레이시아	46,043	14.6	686,879	45,699	6.3	436,596	344
20	이탈리아	45,968	7.0	299,480	125,948	9.2	1,000,050	-79,980

자료: 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2024. 2. 1 인출)

우리나라가 기저귀 등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호주였다. 호주는 99,165천 달러였다. 다음으로 미국 88,688천 달러, 중국 75,387천 달러, 베트남 21,159천 달러 순이었다. 기저귀 등도 전반적으로 평균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 생리대, 탐폰, 기저귀 등(HSK 961900) 주요 수출국 순위(2019년 1월 ~2023년 12월)

단위: Kg, %, 천 달러

순번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평균증감률	중량	수입액	평균증감률	중량	
	총계	372,930	-	64,969,131	1,034,484	-	256,101,470	-661,554
1	호주	99,165	11.3	23,897,574	234	4.5	8,232	98,931
2	미국	88,688	16.7	15,839,299	40,560	15.3	2,894,915	48,128
3	중국	75,387	14.7	5,792,370	570,591	15.7	169,918,441	-495,204
4	베트남	21,159	10.1	4,831,927	19,053	12.5	2,968,015	2,106
5	대만	20,374	4.9	3,321,893	10,294	13.2	4,129,106	10,080
6	일본	18,474	18.8	2,357,060	50,941	16.9	13,982,334	-32,467
7	몽골	17,857	7.8	3,837,732	4	1.8	314	17,853
8	홍콩	6,132	6.5	873,373	240	8.0	56,680	5,892
9	뉴질랜드	4,521	12.0	1,047,000	49	2.4	1,146	4,472
10	말레이시아	2,866	4.3	422,928	2,700	-11.0	947,312	166
11	이스라엘	2,236	-0.7	403,494	2,120	0.2	206,644	116
12	싱가포르	1,837	-0.1	206,533	10	0.6	890	1,827
13	캐나다	1,550	3.5	103,939	527	4.6	44,675	1,023
14	캄보디아	1,476	-	269,448	0	-	1	1,476
15	러시아	1,420	-3.0	152,170	0	-1.1	25	1,420
16	인도(인디아)	1,302	-	223,784	8	1.7	274	1,294
17	필리핀	1,218	6.2	189,564	182,460	7.2	33,681,258	-181,242
18	프랑스	862	-9.2	108,556	129	-1.8	7,443	733
19	사우디아라비아	704	8.4	146,602	0	-	0	704
20	태국	542	1.2	111,034	8,554	0.5	2,270,230	-8,012

다. 외식산업 수출 통계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외식산업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농림출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식기업은 124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외식브랜드는 141개소, 해외진출 외식 점포수는 3,833개소였다.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연도는 2017년도로 6,001개의 점포수가 있었으나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3,409개소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II-3-3] 외식기업 해외진출 점포 수 및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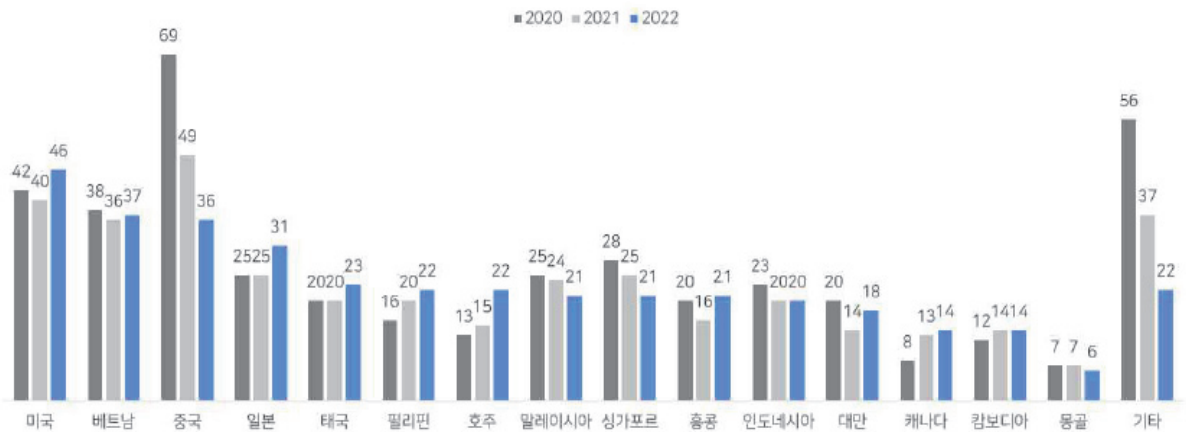
2022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현황

- 해외진출 외식기업 124개
-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 141개
- 해외진출 외식 점포수 3,833개
- 해외철수업체 16개(완전철수)
- 일부 브랜드 철수 2개

자료: 농림출산식품부·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p.17

해외진출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46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37개, 중국 36개, 일본 31개, 태국 23개, 필리핀 22개소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2020년 69개 외식기업 진출하였다가 코로나 봉쇄로 인해 2022년 36개소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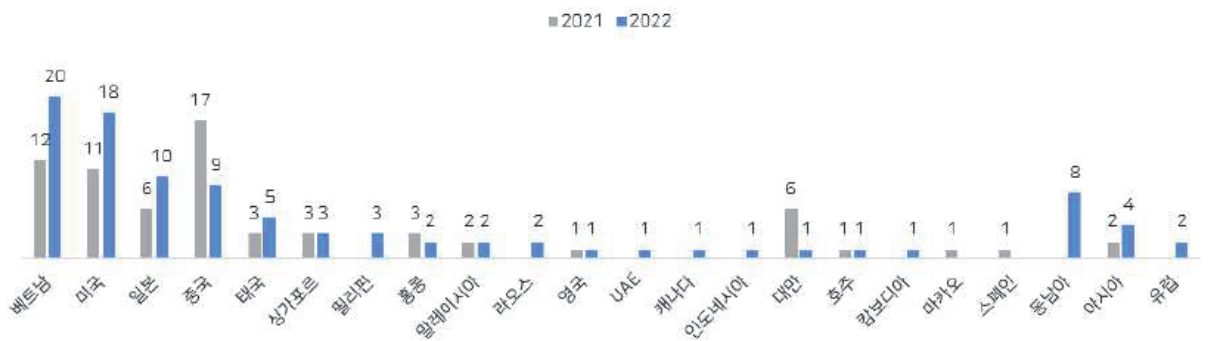
[그림 II-3-4] 외식기업 해외진출 국가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p.17

외식기업 해외진출 희망 국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라고 응답한 기업수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18개 업체, 일본 10개 업체 중국 9개 업체 순이었다.

[그림 II-3-5] 외식기업 해외진출 희망 국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p.25

라.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고충 사항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아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 비중이 70%이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국내 산후조리원은 체인점을 소유한 업체가 매우 극소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혜정·이혜연(2020)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으로는 해외 바이어/수요 발굴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특히 산후조리원과 관련 있는 의료/헬스케어의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수요 발굴 어려움이 28.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현지 정보부족 17.2%, 해외 진출 자금 조달 애로 15.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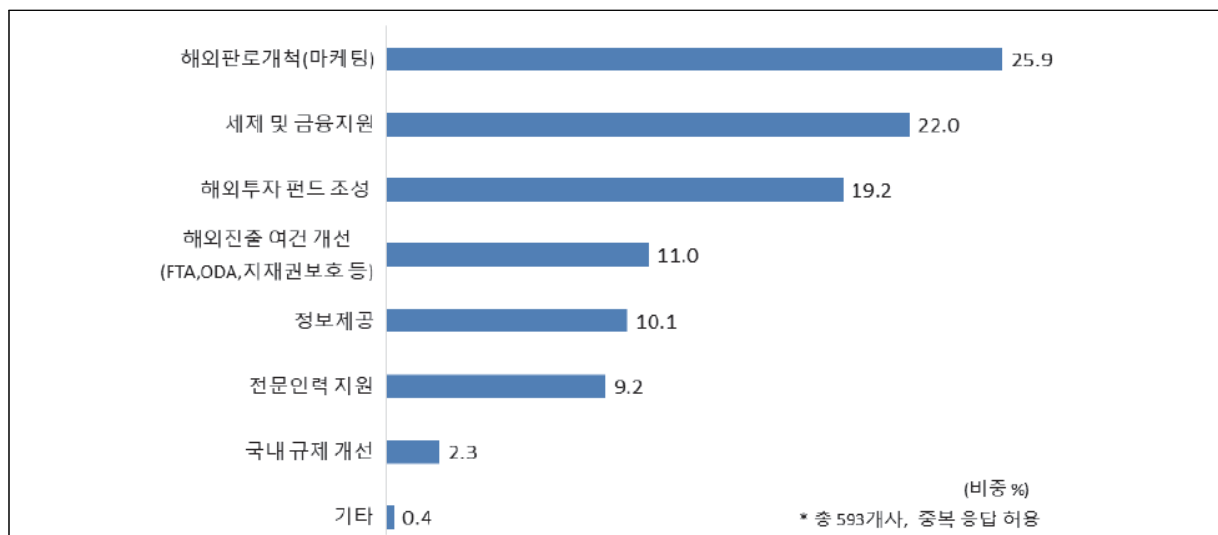
〈표 II-3-7〉 서비스 세부업종별 해외 진출 애로 요인

애로 요인	문화콘텐츠	컴퓨터/정보	제조관련	디자인	교육/에듀테크	의료/헬스케어
해외 바이어/수요 발굴 어려움	21.6	21.9	21.6	34.5	18.1	28.1
해외 진출 자금 조달 애로	19.5	21.6	18.2	17.9	15.3	15.6
코로나 19 사태	16.5	17.2	29.5	16.7	20.8	15.6
현지 정보 부족	14.9	16.9	12.5	11.9	13.9	17.2
현지 진입장벽	11.3	12.5	9.1	4.8	13.9	15.6
수출 전문인력 부족	9.8	7.8	8.0	13.1	12.5	6.3
자사 경쟁력 부족	5.8	2.2	1.1	1.2	5.6	1.6

자료: 심혜정·이혜연(2020).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IIT Trade focus, 29, p. 17.

서비스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필요한 정책지원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해외투자 펀드 조성,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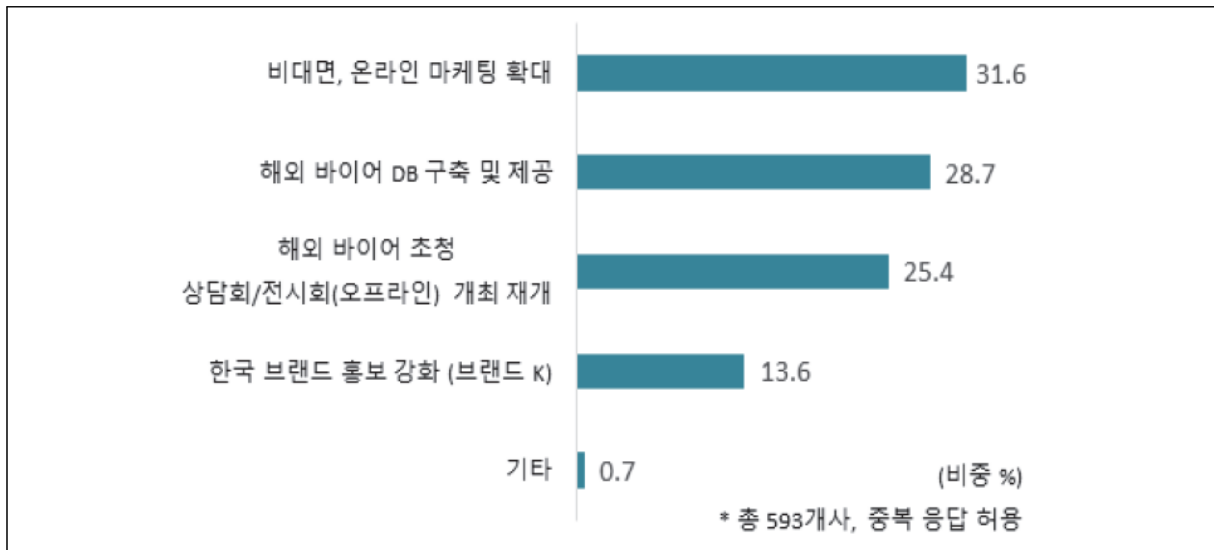
〔그림 II-3-6〕 서비스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필요한 정책지원



자료: 심혜정·이혜연(2020).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IIT Trade focus, 29, p. 18.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서는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DB 구축 및 제공, 오프라인 전시회/상담회 재개 28.7%,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전시회(오프라인) 개최 재개 25.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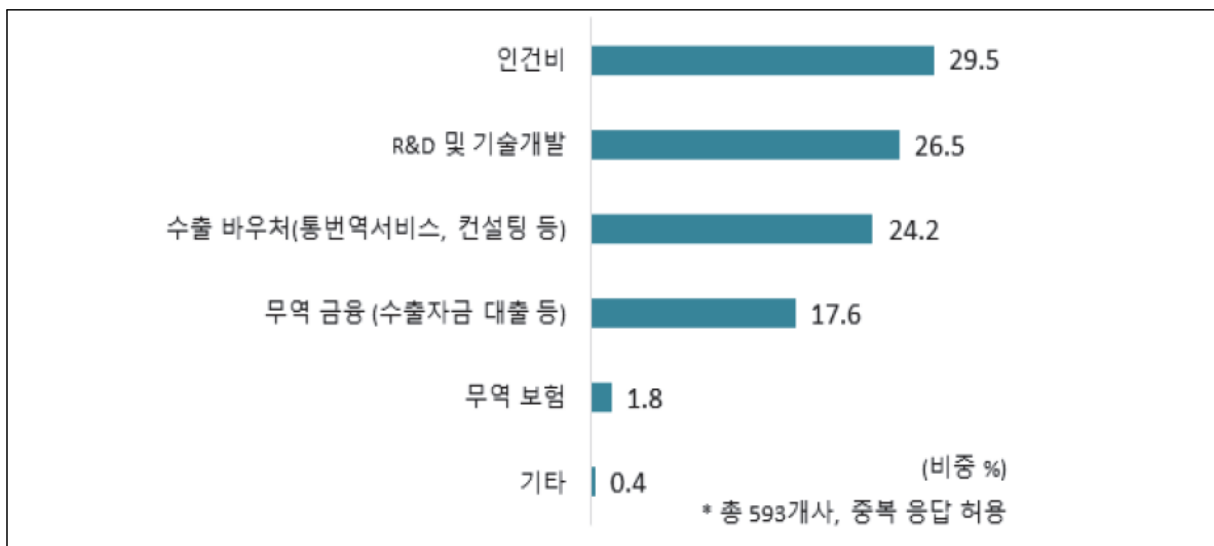
[그림 II-3-7] 해외 판로 개척



자료: 심해정·이혜연(2020).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IIT Trade focus, 29, p. 19.

세계·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인건비라고 응답한 기업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R&D 기술개발 26.5%, 수출 바우처 24.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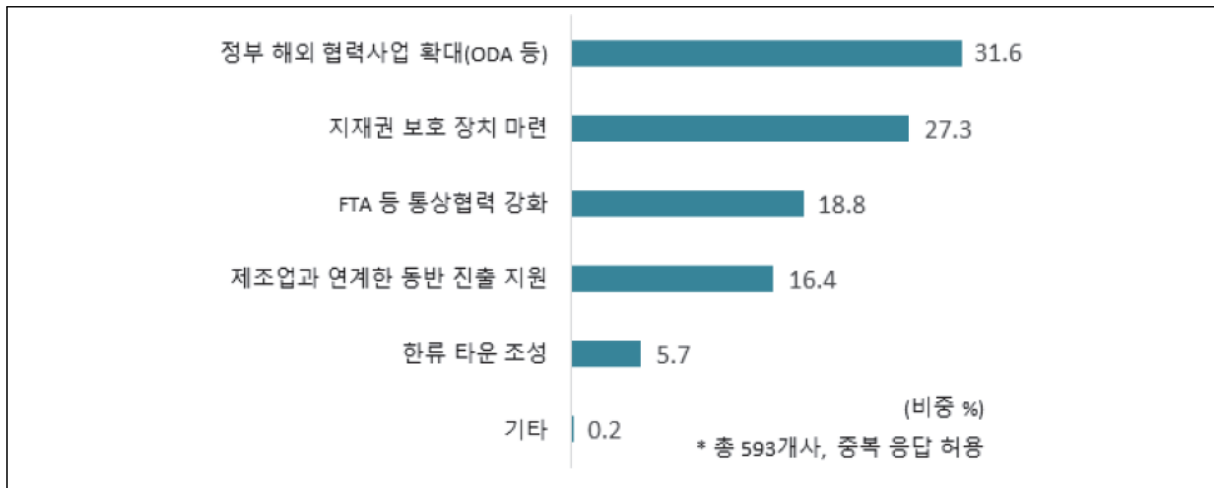
[그림 II-3-8]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분야



자료: 심해정·이혜연(2020).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IIT Trade focus, 29, p. 20.

해외진출 여건 지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해외 협력사업 확대(ODA 등)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적권 보호 장치 마련 27.3%, FTA 등 통상협력 강화 18.8%, 제조업과 연계한 동반 진출 지원 16.4% 순이었다.

[그림 II-3-9] 해외진출 여건



자료: 심혜정·이혜연(2020).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IIT Trade focus, 29, p. 21.

Ⅲ

서비스 수출 지원 제도 현황

- 0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 02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
- 03 기타 수출 지원 관련 정부 사업
- 04 의료기관 해외진출

Ⅲ. 서비스 수출 지원 제도 현황

이 장에서는 해외 서비스 수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산후조리원 해외 수출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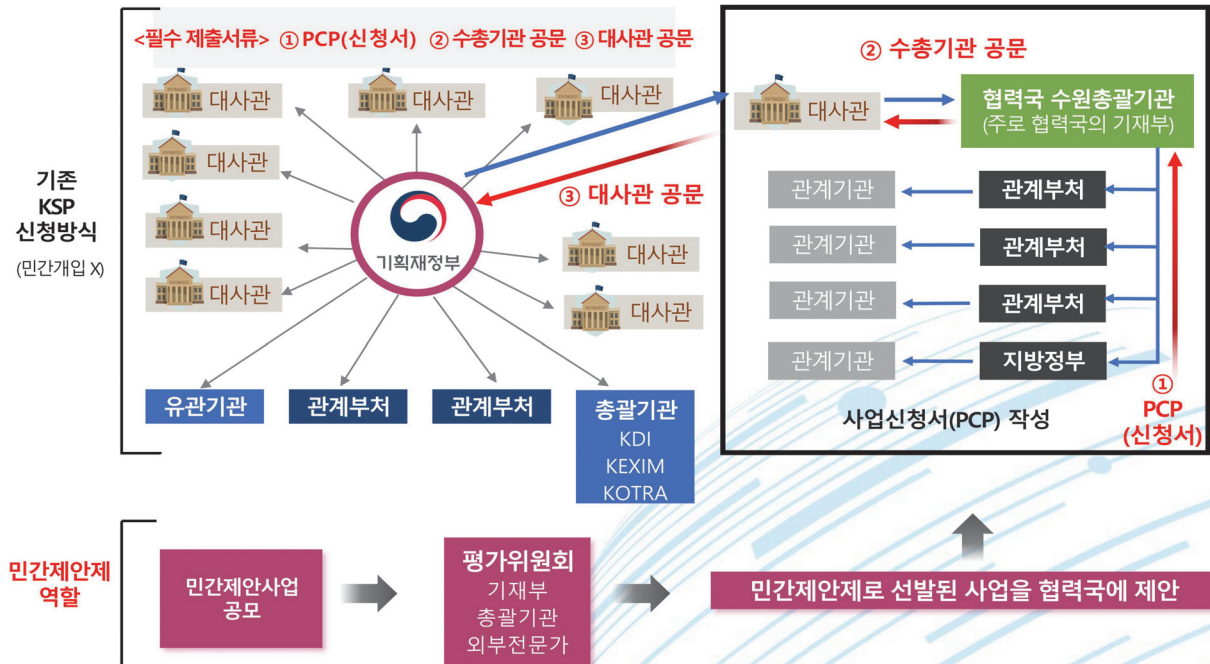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하여 협력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기반 개발협력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4년 출범한 이후 89개 국가와 협력하였다(<https://www.ksp.go.kr/pageView/ksp-intro>, 2024, 1. 18 인출). UN, OECD, 세계은행 등은 참여 주체의 다변화를 강조하는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민간기업,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지식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https://www.ksp.go.kr/pageView/ksp-intro>, 2024, 1. 18 인출).

이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처음 도입하여 사업 기획부터 KSP 정책자문, 후속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 6. 30). 이를 통해 기업참여를 제도화하고 ‘공급자 제안형 모델’을 도입하는 등 사업을 다변화 하고 더 다양한 기업의 수출수주 기회 확대와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KSP, 2022a).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협력국이 ODA사업을 신청하였던 발굴구조에서, 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협력국에 제안하는 형태로 개선하여, 공모된 민간 제안사업을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협력국 수원총괄기관(주로 협력국의 기재부)을 통해 대사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1-1]과 같다(KSP, 2022a).

[그림 III-1-1] 기존 KSP 신청경로와 민간 사업제안제 활용



자료: KSP(2022a). KSP 민간 제안사업 소개자료. p. 4.

나. 사업 개요

KSP사업 형태는 다음 <표 III-1-1>과 같이 발주 예정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 기술자문과 본 사업 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고, 해외 진출 활로를 모색할 경우 기타 협력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KSP, 2022b). 사업 주제는 <표 III-1-2>와 같이 18개 분야별로 다양하다.

<표 III-1-1> KSP 사업 형태

유형	세부 내용
정책기술 자문	분야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시스템제도 구축 방안 수립 등
사전 타당성 조사	본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前, 사전 타당성 조사(Pre Feasibility Study)
기타	양국이 합의 가능한 기타 협력 형태

자료: KSP(2022a). KSP 민간 제안사업 소개자료. p. 5.

<표 III-1-2> KSP 사업 주제

사업 주제					
1. 개발계획	2. 거시·금융	3. 재정	4. 산업	5. 무역	6. 기업정책
7. 과학기술(ICT, 통신)	8. 국토·교통	9. 에너지	10. 환경	11. 수자원	12. 농촌개발
13. 보건의료·위생	14. 사회복지	15. 교육	16. 공공행정·전자정부	17. 고용노동	18. 기타(문화관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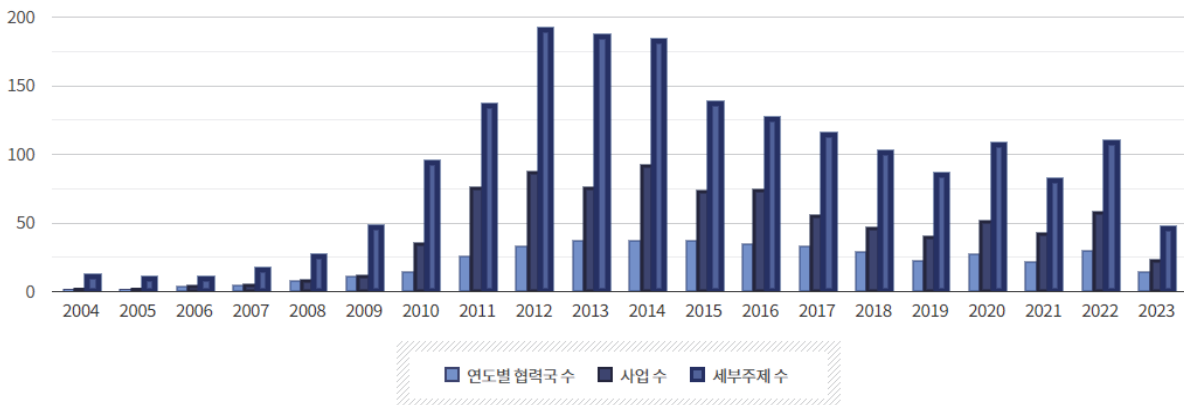
자료: KSP(2022a). KSP 민간 제안사업 소개자료. p. 6.

사업기간은 1년으로 사업당 2~4억원의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KSP, 2022a), 민간 사업 제안제를 통해 총 49개사가 제출한 56개의 사업 중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KSP, 2022b).

다. KSP 추진 실적

KSP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협력국 수와 사업 수, 주제 수 등이 점차 증가하며 2012~2015년 가장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점차 사업과 주제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0년, 2022년에 다시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2] KSP 연도별 사업현황



자료: [https://www.ksp.go.kr/pageView/ksp-statistics\(2024, 1. 22. 인출\).](https://www.ksp.go.kr/pageView/ksp-statistics(2024, 1. 22. 인출).)

[그림 III-1-3] KSP추진 결과 2021년, 2022년 분야별 사업 현황



자료: KSP(2022b). 2022 KNOWLEDGE SHARING PROGRAM 연차보고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Kotra. p. 12.

2023년, 2024년도 KSP 사업 현황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성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38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15,406백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KSP, 2023). 2021년, 2022년 KSP 사업 현황은 총 42개의 사업이 28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사업 현황은 다음 [그림 III-1-3]과 같다.

2.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2023년 2월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이 확정되어 총 18개 부처가 2023년 전체 수출목표로 잡은 6,8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 2. 23). 해당 전략에는 ①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②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③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④ 부처 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 졌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 2. 23).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20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新수출 유망산업으로 농수산물·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선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 2. 23).

나. 사업 개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주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표 VI-2-1>과 같이 수출 애로 접수상담,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인증 지원, 무역 및 기타 등 4개의 큰 항목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서 지원 중이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표 III-2-1> 주요 수출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수행기관	구분	프로그램명	수행기관
수출 애로 접수상담	수출·수주 애로 온라인 접수·해결 (export119.go.kr)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해외인증 지원	해외인증 통합플랫폼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TradePro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한국무역협회		해외규역인증획득 지원사업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FTA 종합 지원 플랫폼 (1380)	FTA 종합지원센터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금융 및 기타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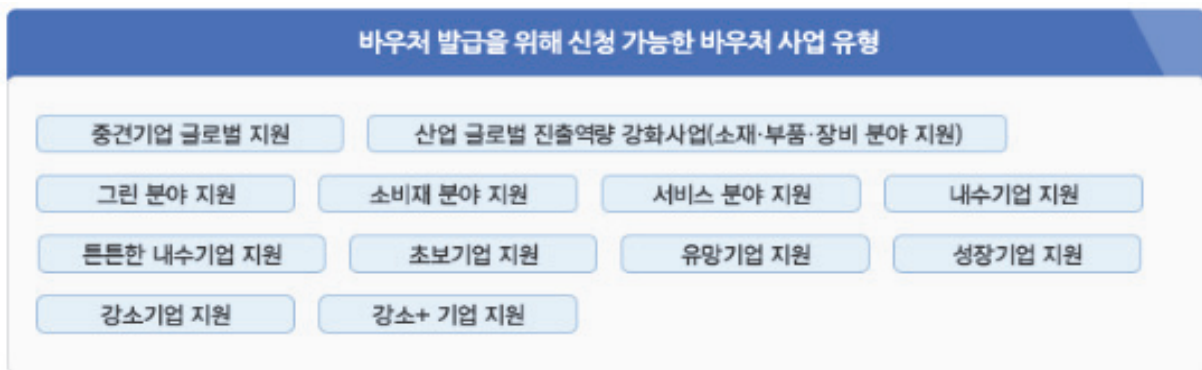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명	수행기관	구분	프로그램명	수행기관
	TriBIG (AI 빅데이터 서비스)	KOTRA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글로벌 전시 플랫폼 (GEP)	KOTRA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한국무역보험공사
	deXter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KOTRA		수출촉진자금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산업 수출마케팅 지원	KOTRA		수출성장자금	한국수출입은행
	B2B 온라인 수출플랫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이행자금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수입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용역/전자적무채물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한국무역협회

자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2023). 수출지원 프로그램 안내 책자. p. 2.

1)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수출바우처 사업은 KOTRA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수행하며, 수출 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정부보조금에 기업부담금을 더해 온라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수혜기업은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별도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 14개 약 8,30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신청 가능한 바우처 사업 유형은 [그림 III-2-1]과 같다.

[그림 III-2-1] 바우처 신청 가능 사업 유형



자료: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2024. 1. 22 인출).

〈표 III-2-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보조금

소관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보조율
산업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성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확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중 택 1 • [성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6,000만원 / ⑥ 7,000만원 중 택 1 • [확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6,000만원 / ⑥ 7,000만원 / ⑦ 8,000만원 / ⑧ 9,000만원 / ⑨ 1억원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70% •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그린 분야)	상동	상동	상동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비재 분야)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중 택 1 • [성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중 택 1 • [확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5,500만원 중 택 1 	상동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성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확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상동	상동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Jumping중견글로벌] 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WC300/WC Plus·중견기업 • [Post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중견] 최대 1억원 • [Jumping중견글로벌] 최대 1억 • [중견글로벌] (중소) 최대 1.3억 / (중견) 최대 2억 • [Post중견글로벌] 최대 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70% * 지원요건별 상이
중기부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백만원 (튼튼한 내수기업의 경우 45백만원)	50~70%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 불 미만'	30백만원	50~70%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불 미만'	45백만원	상동
	성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불 미만'	70백만원	상동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만 불 이상'	100백만원	상동

자료: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2024. 1. 2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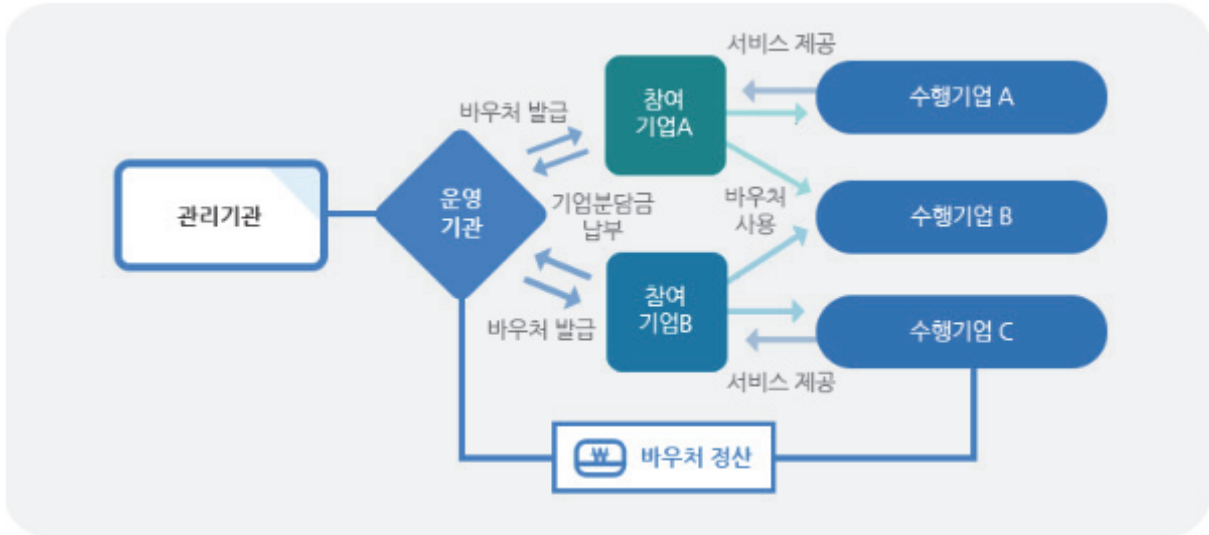
〈표 Ⅲ-2-3〉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및 내용 예시

대분류	정의	메뉴(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 등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컨설팅비: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이용 시 제한적으로 컨설팅비 처리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수출 관련 위험 대응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활동 지원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타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수출바우처로 지원 불가

주: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2023). 수출지원 프로그램 안내 책자. p. 8.



[그림 III-2-2] 수출바우처 사업 흐름도



자료: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2024. 1. 22 인출).

2) 서비스산업 수출마케팅 지원

서비스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 거점이 필요한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대행하여, 코트라 해외 무역관 28개소에서 1년간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서비스거점 무역관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1:1로 매칭하여 연간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대상기업은 국내 중소중견 서비스 분야이며, 제조 기업은 참여 불가하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콘텐츠, ICT서비스 등을 주로 하고 있다. 기업 참가비 250만원이 필요하며, 시장조사를 통해 타겟 지역 시장 동향 및 현지 뉴스를 제공하고, 바이어 및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상담을 제공하고 법인설립 지원, 현지 홍보 등을 주로 지원한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서비스거점의 현황은 <표 VI-2-4>와 같다.

<표 III-2-4> 2023년 서비스거점 현황

구분	핵심 서비스거점 무역관(11개소)	일반 서비스거점 무역관(17개소)
특징	전담직원 있음/ 거점당 7개사 이상 지원	전담직원 없음/ 거점당 1-3개사 지원
무역관	(북미) LA (일본) 도쿄, 오사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유럽) 런던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중동) 두바이	(북미) 실리콘밸리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 선양, 홍콩, 광저우, 타이베이, 항저우 (서남아) 뭄바이 (동남아) 싱가포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유럽) 프랑크푸르트, 파리 (중남미) 멕시코시티 (CIS) 모스크바, 알마티

자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2023). 수출지원 프로그램 안내 책자. p. 14.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내수·수출기업에 대해 중진공의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통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용자대상은 내수 또는 수출초보(수출실적 10만불 미만)기업과,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또는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이며,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용자한도는 수출초보 기업은 기업만 연간 5억원 이내이며,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은 기업만 연간 20억원 이내이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은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며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한다. 매출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Search.do>, 2024. 2. 27 인출).

해외규격인증 품목에서 유아 관련 용품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아용 빨대컵, 영유아용 완구, 유아용품, 유아용 침대 등을 규격인증 받은 사례가 있다.

〈표 III-2-5〉 해외규격인증 유아관련 품목

품목명	인증명	국가
유아용 빨대컵	EN 14350	유럽
JFSL-유아완구	JFSL	일본
영유아용 완구	JFSL	일본
유아용품	SG(Safe Goods)-Mark(소비자제품 안전인증)	국제
유아용 침대	PSC(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일본

자료: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Search.do> 중 '유아' 관련 품목 검색(2023. 2. 29 인출).



3. 기타 수출 지원 관련 정부 사업

가. KOTRA 주관 사업

1) 붐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

붐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는 국내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유통망 진입을 위해 글로벌 소비트렌드 세미나와 유통망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내 서비스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해외시장별 서비스 산업 수출전략, 서비스 산업 트렌드 등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복합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되었다(KOTRA, 2023). 2023년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전세계 129개 KOTRA무역관을 통해 총 62개국에서 700여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했고, 1:1 수출상담 주선 건이 8,000건을 넘었다(Kotra 보도자료, 2023. 10. 19). 2024년 상반기 붐업 코리아도 곧 개최될 예정이며, 신청을 3월까지 받고 있다.

[그림 III-3-1] 붐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 팸플릿

2024 BOOM-UP KOREA | 2024. 4. 15.(월)~16(화)
서울 코엑스 B홀

KITA x KOTRA MEGA Biz TRADE SHOW

모집기간 ~ 2024.3.13.(수)

행사규모 해외 바이어 500개사, 국내기업 3,000개사

프로그램 1:1 수출상담회, 부대행사(쇼케이스, 계약MoU 등)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KOTRA 무역투자24 ▶ 기업소속 일반회원 가입 ▶ 시업신청 ▶ "2024 상반기 붐업코리아" ▶ 신청하기 (bit.ly/4a0DFq)
- 상담주선시스템 가입 ▶ 참가업체 참가신청 (boomupkorea.com)
- 상담 가능 시간 설정 및 상담 희망 바이어에 상담신청(기한: 2.9~3.13)

※ 기업소속 일반회원 가입 필수 / ●, ● 모두 완료하여야 상담 가능

구분	세부영역
소부장	기계·중장비, 전기·전자·자동차, 조선·기타재, 항공·반도체 등
에너지·환경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 원전기·기타재, 환경기·기타재(수처리, 폐기물처리)
GPP(프로젝트)	환경, 수송인프라, 플랜트, 에너지, 원전 등
서비스	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스포츠테크
ICT	스마트 SOC(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빌 등), ICT융복합 전반
소비재	뷰티,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무역상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500개사)	기계, 뷰티, 화학, 식품 등 전문무역상사가 취급하는 종합품목

문의처 상담관련 문의는 해당 분야의 담당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표메일 | service_dx@kotra.or.kr | ICT융복합팀 | 02-3460-7477 / 7463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7639 / 7642 | 소비재팀 | 02-3460-7617 / 3343 / 3344
 인프라·에너지산업팀 | 02-3460-7498 | 바이오의료팀 | 02-3460-7622 / 7620
 서비스산업팀 | 02-3460-3318 / 7732 | 중소혁신기업팀(전문무역상사) | 02-3460-7544 / 753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KITA | kotra

자료: [https://boomup.kotra.biz/fairContents.do?FAIRMENU_IDX=14470&h=KOR\(2024. 2. 27 인출\)](https://boomup.kotra.biz/fairContents.do?FAIRMENU_IDX=14470&h=KOR(2024. 2. 27 인출)).

2)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KOTRA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와 개별로 나누어 지원기업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

〈표 Ⅲ-3-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명	핵심 서비스거점 무역관(11개소)	시행시기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KOTRA와 유관단체가 국제 유명 전시회 및 신흥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를 지원합니다.	연중상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용, 전시품 운송비용, 마케팅 서비스 비용 등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연중상시

자료: KOTRA(2023). 2023KOTRA 서비스 가이드북. p. 27.

3) 무역사절단

무역사절단은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 파트너 발굴,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면 산업군 전체가 가능하다. 무역사절단 평가국별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고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회를 개최하며, 지사화 등 KOTRA 사업 연계를 통해 사후 지원을 한다.

4) 내수초보 기업 육성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내수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파트너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4,500개사 내외로 선정하며,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3,000개사,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를 지원한다.

〈표 Ⅲ-3-2〉 내수초보 기업 육성(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요건 및 절차,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관세청 통관기준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또는 1~10만불 미만 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제외대상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 기업, 종교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지자체 등	
선정절차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48점 이상
	현장평가	신청서 기반 기업 현장 실태조사 실시
	최종선정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수출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의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역량 강화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B2B 플랫폼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유관기관 연계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의 전문 서비스 제공

자료: KOTRA(2023). 2023KOTRA 서비스 가이드북, pp. 31~32.

5)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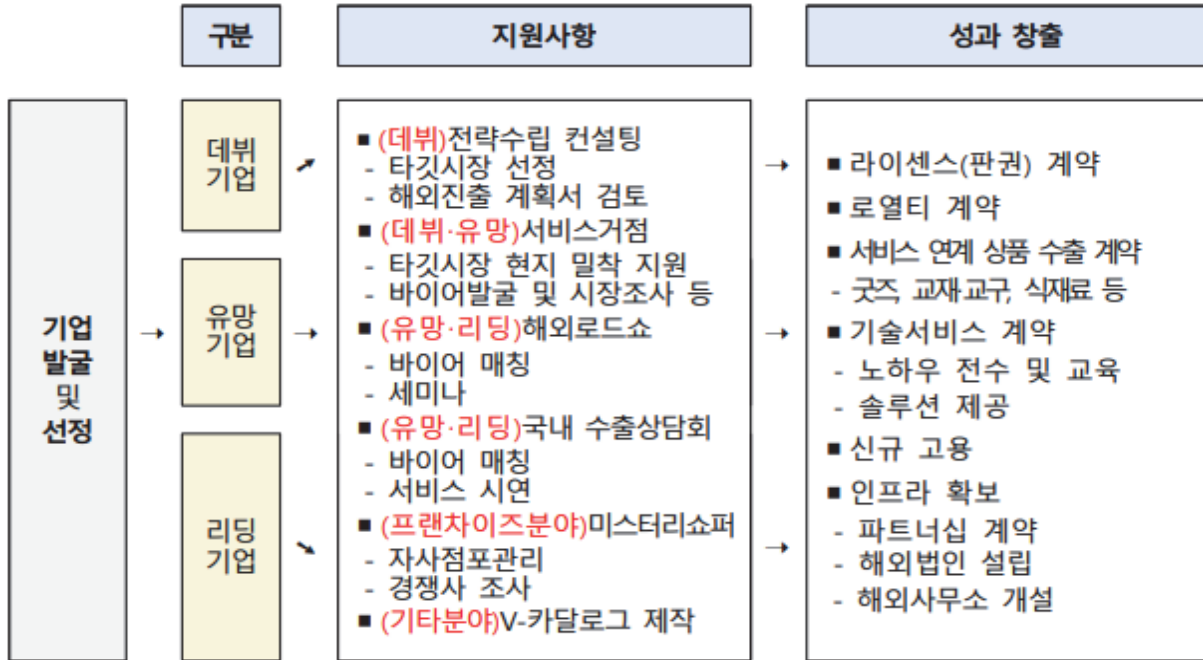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과 해외시장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KOTRA의 서비스 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내서비스 기업 해외진출의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과 해외 마케팅 사업경비를 지원한다. 2024년도에는 총 8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기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표 Ⅲ-3-3〉 서비스 BM 대상 업종

서비스 업종	인증명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솔루션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서비스
스포츠테크	영상·중계기술, 홀트레이닝 SW, 스포츠 데이터분석 솔루션,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 등
엔터서비스	K팝 IP(굿즈 등), 한류 영상 배급(아이돌 콘서트 등), 팬덤 플랫폼 등
기타서비스	라이선스기반 서비스 수출기업(콘텐츠, ICT 등)

서비스 BM사업은 기업 특성별로 지원 사항이 구분되어 있다. 수출 초창기 데뷔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수립 컨설팅 타겟시장 선정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하며 유망기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해외로드쇼, 바이어매칭 등에 지원을 한다. 리딩 기업은 해외로드쇼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상담회를 통해 바이어 매칭, 서비스 시연까지 추진한다.

[그림 Ⅲ-3-2] 서비스 BM 지원 내용



지원은 기업분담금과 매칭하여 지원된다. 데뷔기업은 기업분담금 포함하여 35백만원, 유망기업은 45백만원, 리딩기업도 45백만원을 지원한다. 데뷔, 유망, 리딩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수출성과 결과에 따라 15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표 Ⅲ-3-4〉 서비스 BM 지원금액

구분(기업수)	지원사업비(기업분담금 포함)	기업분담금
	기업별 지원금	기업별분담금
데뷔기업(20)	35백만원	10.5백만원
유망기업(40)	45백만원	13.5백만원
리딩기업(20)	45백만원	13.5백만원
우수기업	15백만원(추가지원)	

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

1)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 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개 기관의 유사사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사화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세계한인무역협회-글로벌 마케터)을 통합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

이다(<https://www.exportvoucher.com/osp/portal/busiGuide/ospBusiGuide>, 2024. 1. 22. 인출).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약 297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하는 서비스와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https://www.exportvoucher.com/osp/portal/busiGuide/ospBusiGuide>, 2024. 1. 22. 인출).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 <표 III-3-5>와 같으며, 진입단계의 서비스는 동일 지역 최대 4회를 제공하고 발전, 확장 단계 서비스는 동일 지역 및 단계 서비스 최대 7년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표 III-3-5>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내용

단계	주요 지원 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세계한인무역협회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1년	2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지원 서비스, 현지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주: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자료: <https://www.exportvoucher.com/osp/portal/busiGuide/ospBusiGuide>(2024. 1. 22. 인출).

다.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사업

1)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을 일원화 하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출 성장단계별로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 강소+기업 등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지원대상과 기업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3-6>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원대상

구분	내용	기업 수
유망기업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500개사 내외
성장기업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300개사 내외
강소기업	수출액 500만불 이상	200개사 내외
강소+기업 프로젝트	'11~'22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국내·외 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30개사 내외

자료: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exportcenter/business/global-sme-1000/guide.do>(2024. 2. 27 인출).

4. 의료기관 해외진출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22년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을 출범한 이후 첫 번째 회의로 2023년 6월 5일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 6. 5). 해당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연 2천억불 달성, 세계 10위의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통계 신설 등 수출 정책·지원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수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 6. 5).

나. 사업 개요

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토대로,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패키지(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 진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년도(2년) 트랙 지원 시, 최종평가에서 “우수(9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년을 지원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3-229호).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 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표 Ⅲ-4-1>과 같다.

<표 Ⅲ-4-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트랙별 및 지원규모

트랙구분	내용	최대 지원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
사업화	구체적 진출 사업모델 확정하여 진출 예정 단계	30백만원	1년	총 사업비의 35%
본격화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설립 및 최종개원 준비 단계	100백만원	1년 (최대 2년)	
안정화	의료기관 개원(초기) 후 정착 및 안정화 단계	150백만원	1년 (최대 2년)	
중대형 프로젝트	30병상 이상(현지 기준) 또는 국내·외 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500백만원	1년 (최대 2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제 2023-229호).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p. 1.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 ICT,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의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며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 기관으로서 지원은 불가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한국보건사업진흥원 공고 제 2023-229호). 지원 대상의 요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표 III-4-2>와 같다.

<표 III-4-2>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구분		참여여부	내용
의료 기관	국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 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국외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법인 대표)가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증빙자료 제출 필수)
연관 산업체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내 유관기관(금융, 건설, 의료기기, 의료IT, 병원컨설팅, 보건의료 관련 협회 등)

자료: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공고(제 2023-229호).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p. 3.

다. 관련 사례 및 개선방향

'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22년 12월 기준 총 28개국 162건(누적)의 해외진출 신고가 되어 '16년 10건 에서 '22년 37건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한 중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이 주요 진출 국가이며 아시아·중동·미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6. 5).

유형별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컨설팅 61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50건, 종사자 파견 24건, 수탁운영 12건, 의료지식 지원교육8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이전 7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일부 성공사례는 있지만 진출 유형에 맞는 수요 맞춤형 지원 부족으로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6. 5).

<표 III-4-3>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진출 현황('16~'22)

구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 컨설팅	종사자 파견	의료지식 지원교육	의료기술· 정보시스템 이전	계
신고 건수 (비율 %)	50 (30.9)	12 (7.4)	61 (37.7)	24 (14.8)	8 (4.9)	7 (4.3)	162 (100)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6. 5).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p. 4.,

[그림 Ⅲ-4-1]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대표사례

의료기관 개설·운영	
	
<p>〈비에프어린치과〉 베트남 호치민 한국형 치과병원(3개) 운영 ('21년~)</p>	<p>〈나누리병원〉 UAE Saudi German Hospital 內 척추관절병원운영('21년~)</p>
운영컨설팅, 의료지식 지원 교육 및 정보시스템 이전	수탁운영 및 종사자 파견
	
<p>〈(주)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국가 지정검사기관 선정 ('20.3월~)</p>	<p>〈서울대병원〉 UAE SK Speciality Hospital 수탁운영 ('14년~)</p>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6. 5).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p. 4.

〈표 Ⅲ-4-4〉 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 사례

VIP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환자 눈높이에 맞는 최고급 병실 및 맞춤형 식단, 1:1 전담 동시통역 24시간 제공, 보호자를 위한 특급호텔, 리무진 차량 등 숙박·교통·통신 예약 및 서비스, 맞춤형 프리미엄 관광코스 제공 등 • (사례) A 성형외과는 VIP를 위한 의전차량 리무진, 1:1 전담 동시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외국인환자 전용 호텔 운영 등 제공
장기체류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환자의 숙박, 차량, 통신 등 장기 사용을 고려한 패키지 특가 예약 서비스 제공, 중장기 여행코스 제공 등 • (사례) B 병원은 불임 치료 환자들 대상 주요 지역 호텔, 레지던스 등과 장기체류환자 유치 업무 제휴 협약을 맺어 특가로 예약 대행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6. 5).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p. 8.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모색 중이다. 첫째,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모델을 개발, 컨설팅, 홍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관광자원 발굴, 기반 구축 및 홍보 등 추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치료(성형, 피부 등) 이후 웰니스 관광(식단, 스파, 마사지 등)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관계부처합동, 2023. 6. 5). 둘째, 복지부에서는 고부가가치 환자를 타겟팅하여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하고자 하고 있다. 2019년 중등 환자 중 가장 고액의 진료비는 5억 6천만 원이었으며, 1억 원 이상 진료비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5% 수준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23. 6. 5). 또한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K-Culture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에서도 한국 의료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IV

해외국가 산후조리원 시장조사

- 01 중국
- 02 미국
- 03 일본
- 04 베트남
- 05 몽골
- 06 말레이시아
- 07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 08 인도네시아
- 09 유럽
- 10 기타 국가

IV. 해외국가 산후조리원 시장조사

1. 중국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중국의 정치제도는 사회주의에 기반하며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359.84 십억 달러(Billion US \$)에 달하며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3년 기준 39,218 (Yuan)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65.0%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5시간이다.

중국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의료인프라는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지불제 도를 기반으로 의료인프라는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잡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중국본토의 경우 1.164이나 홍콩 0.772, 마카오 1.088로 본토에 비해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5.05이며 임신에 따른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36.7%를 차지한다. 모유수유 비율은 출산 후 3개월 시점에 38.0%보인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Special Provisions on Labor Protection for Female Employees (State Council Decree No. 619)」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14주(98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분만휴가는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개월가량 주어지고 있다. 자녀 돌봄은 3세대 가족 구성의 특성이 강하며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돕기도 한다.

〈표 IV-1-1〉 중국(홍콩, 마카오)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중국	홍콩	마카오
체계	정치제도		사회주의	행정회	고도자치
경제적 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17.82 (Trillion US \$)	368.91 (Billion US \$)	30.97 (Billion US \$)
		2022년	17.96 (Trillion US \$)	359.84 (Billion US \$)	24.04 (B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12,720 (US \$)	48,983 (US \$)	31,618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39,218 (Yuan)	-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2년	121,700 (Yuan)/ 17,134.12 (US \$)	439,000 (HK \$)/ 55,928 (US \$)	91,320 (MOP)/ 11,356.97 (US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65.0%	100.0%	100.0%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대분류	중분류	구분	중국	홍콩	마카오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47.5	44(2021년)	-
		최저 시급	3.7(2023년) (US \$)	40(2023년) (HK \$)	-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사회보험제도 (포괄수가제)	민영의료 보험제도	-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	공공=민간	-
출산/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164	0.772	1.088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23	-	-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5.05	-	-
	피임방법		콘돔 > 체외사정 > 자연피임법 > 먹는 피임약 > 수술(지속형)	콘돔 (80%)	-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8.8/27.5, (2022년)	32.2/30.6, (2021년)	30.0/28.2, (2022년)
	출생아 성비	2022년	1.12	-	-
	기대여명	2021년	78.2	85.16	83.8
	예방접종률	BCG	99.0% (23년)	-	-
	B형간염	99.0%	-	-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99.0%	-	-	
	IPV (폴리오)	99.0%	-	-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병원	-	-
	분만 비율	제왕절개	36.7%	-	-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3개월 때 38.0%	생후 6개월 20.8%	-
		혼합수유	생후 1개월 96.5%, 생후 3개월 89.9%	-	-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Special Provisions on Labor Protection for Female Employees (State Council Decree No. 619)	-	-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98일(14주), 유급	-	-
	분만휴가 특성		유급	-	-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지역별 조례에 따름 7일~1개월	-	-	

대분류	중분류	구분	중국	홍콩	마카오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가족정책 주도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 형태	-	-
	현금성 지원		인구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선별적으로 출산수당 지원함.	-	-
	서비스 지원		2-3세 유치원 턱아반 시범 사업 규모 확대	-	-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3세대	핵가족	-
	세대 간 돌봄 특성		조부모의 육아	-	-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전기난방	-	-
식생활 특성	주식		henghua Soup, 치킨 스프	-	-

나. 소비 및 출산 관련 지표

1) 소비 및 지출

중국 경제 발달과 더불어 1인당 가처분소득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중국 농촌가구의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2만1,691위안으로 도시가구 소득의 약 40%를 차지했다. 지난 20년간 농촌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농촌과 도시가구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1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

단위: 위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시 가구	39,251	42,359	43,834	47,412	49,283	51,821
농촌 가구	14,617	16,021	17,131	18,931	20,133	21,691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22년 중국 도시의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중국의 중간 소득 가구에 서 2022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약 44,283위안에 달한다.

〈표 IV-1-3〉 2022년 도시 가구 소득 분위별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

단위: 위안

구분	1인당 가처분 소득
상위 소득 가구	10,7224.1
중상위 소득 가구	61,724.1
중위 소득 가구	44,282.9
중하위 소득 가구	31,179.6
하위소득 가구 households	16,970.7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22년 중국 도시가구의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상하이와 베이징 도시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84만 위안 이상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35만 위안 이상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2022년 도시 가구 지역별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

단위: 위안

구분	1인당 가처분 소득
Shanghai	84,034
Beijing	84,023.1
Zhejiang	71,267.9
Jiangsu	60,178.1
Guangdong	56,905.3
Fujian	53,817.1
Tianjin	53,003.2
전국 평균	49,282.9
Shandong	49,049.7
Tibet	48,752.9
Hunan	47,301.2
Inner Mongolia	46,295.4
Chongqing	45,508.9
Anhui	45,133.2
Liaoning	44,002.6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23년 중국 도시 가구의 연평균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약 33,000위안에 달했으며, 농촌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도시 가구의 절반 정도였다.

〈표 IV-1-5〉 1인당 연평균 소비 지출액

단위: 위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시 가구	26,112	28,063	27,007	30,307	30,391	32,994
농촌 가구	12,124	13,328	13,713	15,916	16,632	18,175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 결혼 및 출산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 혼인 건수는 683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으며,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4.8명이라는 역사적인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취업 통계연감 2023’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미혼율은 25~29세 51.3%, 30~34세 18.4%, 35~39세 8%로 나타났다.

〈표 IV-1-6〉 중국 혼인 건수 및 혼인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혼인 건수 (백만)	10.14	9.27	8.14	7.64	6.83
혼인율 (% , 천명당)	7.3	6.6	5.8	5.4	4.8

자료: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2020년 제7차 중국 인구센서스(*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 시행)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혼인 연령은 28.67세로 10년 전인 2010년(24.89세) 대비 약 4세 상승하였다. 중국의 평균 혼인 연령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0~24세 혼인 연령은 15.2%로, 2005년 47% 대비 약 68% 감소했으며, 특히 40세 이상 연령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IV-1-7〉 혼인 연령

구분	2005	2010	2020	2021	2022
20~24세	47%	37.6%	18.6%	16.5%	15.2%
25~29세	34.3%	31.9%	34.9%	35.3%	37.2%
30~34세	9.9%	11.3%	19.3%	20%	20.7%
35~39세	4.9%	6.6%	8.3%	8.7%	9.1%
40세 이상	3.9%	12.9%	18.9%	19.5%	17.7%

자료: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Website (news.stcn.com)

전국적으로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성인들은 일찍 결혼해야 한다는 오랜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성 역할의 변화, 여성에게 교육 및 직업 기회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범위 밖에서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와 같은 요인들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이유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은 혼인 연령 상승,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 가치관 변화 등을 혼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와 혼인율 저하가 인구감소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거의 반 정도가 결혼이 인생에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은 반면,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표 IV-1-8〉 혼인을 원하지 않는 이유

이유	남성	여성
결혼은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음	34.6%	49.8%
결혼 후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두려움	26.8%	37.5%
경제적 상황으로 결혼 의지가 없음	40.5%	30.3%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음	23.5%	25.1%
개인적 배경 사유로 결혼에 대한 불안감	23.5%	20.4%
간섭받지 않고 독립된 싱글 라이프를 선호	19.0%	18.6%
결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음	20.3%	15.8%
오랫동안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결혼할 생각을 접음	11.1%	7.7%

자료: Zhaopin.com; Website (mouse0232.cn)

결혼의 감소는 중국 출산율 하락을 동반하는 것으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출생건수는 902만 명으로,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국은 2022년 출생건수가 1949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감소세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첫해인 2016년에만 출생인구 반등을 실현하였고 그 후 해마다 최저기록 경신하고 있다. 2011년에는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였고 2016년도에는 모든 부부의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였다. 2021년도에는 모든 부부에게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 하였다.

〈표 IV-1-9〉 중국 출생 건수 및 출생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 건수 (백만)	14.65	12.00	10.62	9.56	9.02
출생률 (% , 천명당)	10.41	8.52	7.52	6.77	6.39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중국인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 일 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을 출산을 원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자원 불균형, 미래세대 삶의 질 저하 위험성 등을 꼽았다.

〈표 IV-1-10〉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

이유	남성	여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56%	62.2%
출산이 직업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13.9%	34.8%
직장 일이 많고 아이 돌봄 시간이 없음	24.1%	28.3%
교육자원 불균형과 아이들 발달 걱정	41.6%	27.4%
아이를 낳고 나서 삶의 질이 저하 될까봐 걱정됨	19.3%	27.1%
자유와 개인적인 공간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16.3%	23.6%
환경위기와 미래세대 삶의 질에 대한 두려움	30.1%	20.6%
아이를 좋아하지 않음	7.2%	16.8%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음	15.7%	15.6%

자료: Zhaopin.com; Website (mouse0232.cn)

나.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1) 출산관련 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모자보건 교육이나 국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출산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출산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출산 보험 기금에서 전년도

해당 취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비율로 출산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육아휴직대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비슷한 형태이다.

여성 근로자 노동보호의 특별규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쓸 수 있으며 이중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고, 난산의 경우에는 15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5일의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기본 출산휴가는 98일이지만 개별 지방정부마다 추가로 출산휴가를 ‘인구 및 계획생육정책’으로 지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표 IV-1-11〉 중국 지역별 출산휴가

지역	출산휴가
베이징시, 후베이성, 산시성, 상하이시, 후난성, 산둥성, 랴오닝성, 자양쑹성, 쓰촨성	158
푸젠성, 헤이룽장성, 간쑤성	180
광둥성, 충칭시	178
장시성	188
광시좡족자치구	148
저장성	첫째 158, 둘째 188
윈난성	150
시짱	365
하남성	190

2) 산후조리 문화

중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한국과 유사하게 친정이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는 아기 돌봄도 산모가 하지 않으며 출산 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산후조리 기간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산후조리 기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후조리 기간을 삼칠일(三七日)로 명명하여 3주간의 기간을 출산 후 조심해야 하는 기간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30일에서 길게는 45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 한 달 동안 집에 머무르며 몸을 쉬게 하는 전통이 있다. 쥐위예즈(坐月子)는 무려 2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여성들의 산후 회복을 위해 매우 전통적이고 필요한 방법이며, 중국인이 여성의 산후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통으로 매우 특별하고 따뜻한 문화이다. 옛날의 쥐위예즈는 현재와는 다른 의미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의례적인 제한 즉 이 기간에는 산모를 위한 격리 보호 조치로 30일 동안 면회와 외출을 금했다.

또한 과거부터 산모에게 운동, 목욕, 창문 열기 등을 금지하고 대소변은 침대에 누워서 해결하게 하는 등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산모는 좁쌀로 만들어진 죽을 한 달 동안 매일 먹어야만 했는데 이 죽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송나라 고서(宋朝古书)에 따르면 먹물은 산모의 산후 긴장을 해소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오줌은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1) 산후조리원 역사

중국 최초의 산후조리원은 신마마 산후조리원(北京新妈妈产后护理中心)으로 1999년에 베이징에 설립되었다. 초창기 산후조리원은 풍부한 의료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산모와 영아 돌봄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산후조리원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1선 도시 뿐만 아니라 2선 도시에도 산후조리원이 설립되었다. 2007년에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산후조리원 체인인 아이디궁(爱帝宫)이 선전에 설립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서비스 내용이 주로 산후조리에 집중되어 있고, 산후 재활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도 이후에 산후조리원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산후조리원 산업은 점차 직영과 가맹의 두 가지 발전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규모가 확장되고, 판매 경로가 점차 가라앉아, 삼사선 도시로 확장되어 체인 브랜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비스도 기존의 단일 모델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 산업 사슬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산후조리원의 명칭은 '위에즈센터(月子中心)'라고 한다. 중국의 산후조리 문화인 쥐위에즈(坐月子)와 연계될 수 있도록 명칭을 만들었다. 중국식 산후조리원으로 한국식 산후조리원과 유사하며 고급식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환경은 호텔과 유사하다. 별도의 개인실과 고급 출입문이 있어 산모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이곳의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는 산모의 산후 심리, 신체, 체형 변화 회복을 목적으로 일상 케어를 실시한다.

2)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유형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후관리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신생아 관리와 산모관리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신생아관리는 수유, 옷 입히기, 기저귀 갈기 등 생활관리, 유아 목욕, 마사지 등 전문 간호, 영아 성장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성장검사, 산모와 영아의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 조언을 제공하는 질병치료 서비스가 있다. 산모관리는 산모 개인위생관리, 식단관리, 산욕기 관찰, 유방건강관리, 산후 심리지도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표 IV-1-12〉 중국 산후조리원 서비스

신생아 관리	생활관리	수유, 옷 입히기, 기저귀 갈기, 물품 소득, 신생아 헤어관리, 아기 이름 작명
	전문 간호	유아 목욕, 마사지, 체온측정, 대소변 관찰, 구강 검사, 황달 관리, 땀줄관리, 엉덩이 관찰, 대소변 관찰
	성장검사	영아 성장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영양 상태 점검
	질병치료	산모와 영아의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 조언을 제공
산모 관리	생활관리	산모 개인위생관리, 상처 및 감염관리, 식단관리
	전문 간호	산욕기 관찰, 유방건강관리, 오로관찰, 산후 심리지도, 산모 및 산후 우울관리, 산후 운동지도, 산모 체형 회복지원, 미용 서비스 등

자료: <https://www.woshipm.com/evaluating/2901494.html>

중국의 산후조리원 유형을 크게 호텔 형식, 단독별장, 병원 부속식, 사회 가정식으로 구분된다. 호텔형식은 호텔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형식으로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에 1대 1로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단독 별장은 산후조리원 전체 건물이나 별장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일반 산후조리원과 유사한 형식이다. 병원 부속식은 병원 근처 또는 병원에 위치한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사회가정식으로 아파트를 일부 임대하거나 일부 원룸 같은 곳을 임대한 후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형식이다.

중국 프리미엄 산후 조리원은 주로 호텔 서비스식과 단독 별장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낮은 진입 장벽과 프리미엄에 힘입어 대량의 자본이 산후조리 업계에 유입되고 있다.

〈표 IV-1-13〉 중국 산후조리원 주요 모델 및 특징

분류	특징	장점	단점	점유율
호텔 서비스식	- 구매 혹은 임대를 통해 산후조리센터로 리모델링	- 낮은 초기 투자 자금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비 완비 - 시설 확장에 유리	- 높은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 타시설 대비 높은 이용료	40%
단독 별장식	- 별장을 산후조리원으로 개조하여 서비스 제공	- 가옥 시설이 양호하여 인원관리에 유리 - 사생활 보호와 함께 아늑한 환경 제공 - 브랜드 파워 형성에 용이	- 높은 초기 투자 자금 -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필요 - 타시설 대비 높은 이용료	35%
병원 부속식	- 병원에 부속된 시설로 외래 진료에 유리 - 출산 후 산모 이동이 용이	- 비상 시 산부인과로 이동 가능	- 신생아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이 많음 - 시설 인테리어 미흡	25%
사회 가정식	- 일반적으로 의료진과 가사도우미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산후 조리원에 해당	- 투자금이 적고 비용이 낮아 창업에 적합 - 타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	- 전문성 부족 - 시설별 가격 차이가 큼	-

자료: 조우티엔차이징

3) 산후조리원 시장

Frost&Sullivan조사에 따르면 2014~2019년 중국 산후조리원의 시장규모가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산후조리원의 시장규모가 2019년에 비해 30% 감소한 76억 위안(1조 4천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2021년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은 97억 위안(1조 8천억) 수준에 육박하였다.

〈표 IV-1-14〉 2014-2021년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규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 규모	79 (1조 4천억)	92 (1조 7천억)	108 (2,000억)	76 (1조 4천억)	97 (1조 8천억)

자료: Frost&Sullivan

치엔잔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2022년 1선 도시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18%~20%, 2선 도시는 10%, 기타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도시는 8%, 3선 도시는 3%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그 규모도 약 350억 위안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대만(63%) 수준과 비교해 시장규모나 성숙도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1-15〉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 추산 (2022년)

도시 유형	도시명	신생아 수(만 명)	이용률(%)	인당평균비용(만 위안)	시장잠재력(억 위안)
1선 도시	베이징	30.1	18	7	37.9 (7000억)
	상하이	28.4	20	7	39.8 (7천 300억)
	광저우	25.2	18	7	31.8 (5천 900억)
	선전	21.2	18	7	26.7 (4천 900억)
2선 도시(32개)	톈진, 충칭, 난징 등	330	10	4.5	148.5 (2조 7500억)
기타 도시(14개)	샤오싱, 둥관 등	105	8	4.5	37.8 (6900억)
3선 도시(100개)	주조우, 산터우 등	510	3	2	30.6 (5600억)
합 계					353.1 (6조 5천 300억)

자료: 치엔잔 산업연구원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323-246b33fe.html>

iimedia 자료에 따르면 중국 1선 도시에 84.8%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했으며, 2선 도시에서도 산후조리원 이용 의향이 있는 산모가 8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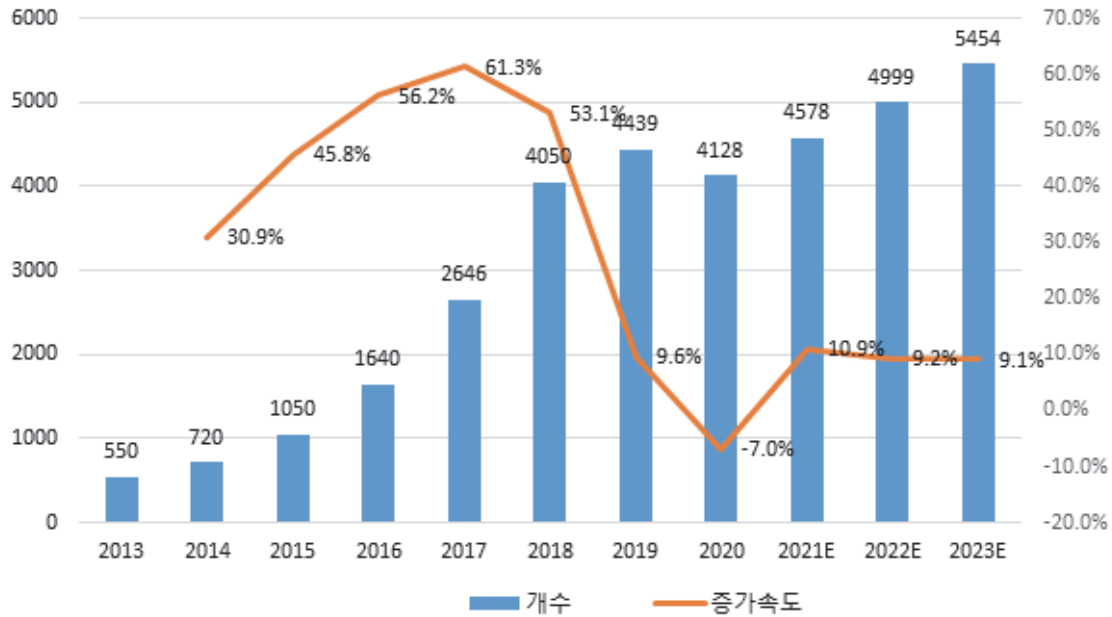
〈표 IV-1-16〉 2021년 중국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 의향 조사

도시 구분	매우 원함	원함	일반	싫음
일선	37.2%	47.6%	14.1%	1.0%
이선	40.9%	39.6%	15.3%	4.3%
삼선	26.9%	42.3%	26.0%	4.8%
기타	16.9%	49.4%	27.3%	6.5%

자료: iimedia, 철상증권연구소

chinabg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산후조리원은 2019년까지 매년 50% 정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저출산 지원 증가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산후조리 기간을 길게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약 2배가량 길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산후조리원 개소 수(예상)와 증가율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 실시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데본연구소에 의하면 향후 신생아수 10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산후조리원의 시장 규모가 2025년 455억 위안, 2030년 1038억 위안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1-17> 2025-2030년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 예상

연도 (년)	신생아 수 (만 명)	보급률 (%)	이용자 수 (만명)	평균 비용 (위안)	잠재 시장 규모 (억 위안)
2025	1,000	9.7	97	46,924	455.2 (8조 4천억원)
2026	1,000	10.7	107	48,801	522.2 (9조 7천억원)
2027	1,000	12.5	125	50,265	628.3 (11조 6천억원)
2028	1,000	15.0	150	51,773	776.6 (14조 4천억원)
2029	950	17.5	166	53,326	886.5 (16조 4천억원)
2030	950	21.0	189	54,926	1,038.1 (19조 2천억원)

자료: 데본연구소

2022년 기준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4주 기준 43800위안(약 810만원)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항저우도 원화 기준 약 1,800만원, 쑤저우도 1,27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IV-1-18〉 중국 도시별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

도시	인단 소비 금액 (위안)	원화 환산
상하이	125,063	2,310만원
베이징	112,458	2,080만원
선전	108,485	2,007만원
항저우	98,024	1,810만원
쑤저우	68,536	1,270만원
난징	64,747	1,198만원
청두	60,910	1,127만원
우한	56,580	1,047만원
충칭	45,371	840만원
광저우	33,808	626만원
시안	33,673	623만원



Frost & Sullivan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산후조리 업계의 상위 5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11.3%에 불과하였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디공(爱帝宫)의 시장점유율은 4.3%에 불과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웨이거(魏阁)와 바오성(宝生)의 점유율도 각각 3.8%와 1.6%로 매우 낮았다. - 이처럼 중국 산후조리 업계의 시장 경쟁구도가 분산되어 있고, 선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산후조리원 업계는 향후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며, 프랜차이즈화 추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19〉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 점유율

구분	비중
아이디공(爱帝宫)	4.3%
웨이거(魏阁)	3.6%
바오성(宝生)	1.6%
신위예후이(馨月汇)	0.9%
세인트벨라(圣贝拉)	0.6%
기타	89%

자료: Frost & Sullivan

〈표 IV-1-20〉 중국 산후조리원 매장 현황

브랜드	대표 매장 사진	매장 위치 도시	비즈니스 패턴	매장별 주요 정보		
				매장별 평균 방 개수	인당 평균 소비액(만 위안)	가격 구간 (만 위안)
아이디공(爱帝宫)		선전, 베이징, 칭다오	직영	84	9.19 (1,700만원)	6.38~36.88
신위예후이(馨月汇)		상하이, 베이징, 선전	직영+가맹	36	10.04 (1,900만원)	8.28~26.8

브랜드	대표 매장 사진	매장 위치 도시	비즈니스 패턴	매장별 주요 정보		
				매장별 평균 방 개수	인당 평균 소비액(만 위안)	가격 구간 (만 위안)
시주지아(喜之家)		수저우 항저우 난징, 양저우	가맹	14	5.86 (1,000만원)	3.38~10.8
요우이베이(优艾贝)		상하이	직영	75	7.74 (1,400만원)	5.98~15
웨이거(魏阁)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 난징, 수저우, 정저우, 창사 등 20여개 도시	가맹	19	19.67 (3,600만원)	15.98~82.07
바오생(宝生)		선전	직영	62	5.90 (1,000만원)	4.69~9.99
시위에타오(禧月荟)		선전, 베이징, 칭다오	직영	35	6.15 (1,100만)	5.38~12.98

자료: 기업 광고자료 취합, 화안증권

4)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

중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산후조리원 관리기준이 엄격한 편은 아니다. 숙박업 기준의 소방법을 준수하면 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력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모자보건협회에서 발표된 ‘산후 모자 재활기관 관리 및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는 한명의 간호사를 두어야 하고 신생아 대 건강관리 인력의 비율은 1:3을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²⁾

최근에는 2022년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서비스 업종 목록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육아서비스가 신규 추가되면서 투자 진출 관련 제한 및 규제가 없다. 따라서 투자 진출 형태와 회사 유형 등은 중국 현지 투자 진출 방식과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산후조리원 내 서비스 행위(의료 행위, 의료기기 사용, 음식 조리, 마사지 및 뷰티 서비스, 산후용품 및 유아용품 판매 등)에 따라 별도의 현지 허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리(식사)를 제공할 경우, 현지 관할지역의 위생허가 필요하다.

〈표 IV-1-21〉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2년 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8.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449) 국제경제, 과학기술, 친환경, 물류정보, 비즈니스, 회계, 세무 자문서비스
(450) 공정 자문서비스

2) https://mp.weixin.qq.com/s?__biz=MjM5MTY3NTc5NA==&mid=400473909&idx=3&sn=d8278bc220760e8c10df47d64823754e&scene=27

8.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451) 서비스외주 수입방식의 시스템 응용관리와 유지보호, 정보기술 지원관리, 은행 백그라운드서비스, 재무결산, 인적자원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역외 콜센터, 데이터처리 등 정보기술과 서비스 프로그램 외주서비스

(452) 현대 첨단설비의 유지보수, 디지털 생산라인 개조와 집성, 전문 수리 서비스와 공급체인서비스

(453) 회의, 전시 및 관련 서비스

(454) 창업투자기업

(455) 지적재산권서비스

(456) 홈서비스업

(457) 인력자원 서비스

(458)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육아서비스

(459) 관광컨벤션

(460) 언어서비스(통번역, 현지화 서비스, 언어기술개발응용, 언어지원서비스 등)

자료: KOTRA,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210/t20221028_1339662.html?code=&state=123

5) 산후조리 관련 이용 문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이티아오룽(一条龙)’ 산모·신생아 서비스로, 기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외에 아기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신세대 엄마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출산 휴가를 마친 여성은 업무에 복귀하기 전 신체와 체형 회복을 위해 탄살 관리, 얼굴관리,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미용과 요가 수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아 지도, 24시간 아기 돌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유방관리실,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산후조리 장소 선택 시 교육 수준, 나이, 라이프 스타일 및 가정 형편, 정보 수신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의욕은 낮지만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보다 비용이 높더라도 과학적인 산후조리 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입소문 외에도, 젊은 세대일수록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 및 비교하여 산후조리 장소를 선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준비 여성 중에 85년, 90년 및 95년생들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출산 주력 세대로, 이 세대 여성들은 자아 및 개성을 추구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교육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몸매관리에 주목하고 고품질의 산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아울러 40대는 2자녀, 3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비하여 출산 및 유아용품이나 임신부 산업에 무시할 수 없는 소비 세대이다.

〈표 IV-1-22〉 2021년 산모/유아용품 소비자 연령대

구분	비중
~84년	9.8%
85~89년	25.3%
90~94년	43.1%
95~99년	19.5%
00년	2.3%

자료: iimedia, 데본연구소

중국의 높아진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위에즈센터는 평균 약 5만 위안(한화 870만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인해 보편적이지 않아, 높은 금액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정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7000 위안(한화 120만 원)을 지불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위에사오(月嫂)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위에즈센터는 전문성과 체계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택하는 산모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에 있어 전통적인 관습과 현대적인 방식 사이에서 여러 세대 간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표 IV-1-23〉 소비자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구분	비중
반드시 필요하며 더 과학적일 필요가 있음	60%
반드시 필요하며 전통적인 방법을 따름	19%
필요하지 않음. 의사의 조언에 따라 회복 가능	6%
필요하지 않음. 자연스럽게 회복 가능	4%
상관 없음	11%

자료: 치엔잔 산업연구원

〈표 IV-1-24〉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의 주요 요소

구분	비중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	40%
합리적인 식단과 빠른 회복	35%
물리치료 설비 완비	17%
합리적인 가격	8%

자료: 치엔잔 산업연구원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산후조리 비용으로 37%의 응답자가 총 1만 위안(18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를 희망하였으며, 31%는 1~3만 위안(180만원~550만)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

다. 한편, 8%~19%는 산후조리 기간 중 각각 3~5만 위안(550만원~920만원)과 5~8만 위안(550만원~1,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산후조리 희망가격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표 IV-1-25〉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구분	비중
과학적인 영양 식단	59.7%
간호 및 의료	46.4%
산모 중심적인 환경	38.2%
신생아 케어	35.8%
심리 안정	25.6%
체형 회복	19.5%
기타	5.5%

자료: iimedia

중국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를 각종 채널을 통해 얻고 있으며, 주요 정보수집 경로는 친지 소개나 SNS에 게재된 타인의 체험 및 평가 후기이다. 특히 긍정적이고, 호감을 주는 입소문이 산후조리원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후조리 서비스기업은 이러한 입소문 효과를 통해 소비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회사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표 IV-1-26〉 중국 소비자의 산후조리 관련 정보 수집 경로

구분	비중
친지 소개	46%
SNS	41%
병원 혹은 육아 관련 기관 등	40%
인터넷 홈페이지 및 APP	33%
광고	19%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소개	6%
기타	3%

자료: 귀위엔증권

2021년 iimedia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들 중 97.5%는 앞으로 출산할 경우 다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초산엄마 중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비율은 1.6%에 불과하나 둘째를 출산한 엄마들은 5.4%로 초산 엄마보다 이용률이 3배 이상 높아졌음. 95년, 85년, 90년생 산모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 의식 수준이 높아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시장 주요 타겟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표 IV-1-27〉 95허우 엄마의 산후조리 방식

구분	초산 엄마	두 자녀 엄마
부모	46%	-
남편	41%	-
산후도우미	40%	-
산후조리 안함	33%	-
산후조리원	1.6%	5.4%

자료: Meet You, MobTech, 철상증권연구소

6)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최근 중국의 유명 산후조리원 체인인 세인트벨라 산후조리원은 텐센트, 차이나 생명, 한국의 미래에셋투자 등의 펀딩을 통해 약 1300억을 받아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및 유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³⁾. 산후조리원을 여성 건강관리 브랜드인 광화당, 기능성 속옷 브랜드를 인수하였으며, 홈케이 브랜드 런칭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 특히 2023년 10월에는 싱가포르에 호텔형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⁴⁾.

7) 산후조리원 관련 신직업

위에사오(月嫂)는 최근 2년간 새롭게 등장한 직업으로, 기존의 베이비시터와 달리 업무 범위가 좁고 기술력과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한 달 동안 산모와 함께 지내며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육아경험을 통한 산모 케어 및 수유, 평소 영양적인 식단 배합, 출산회복, 정서조절 등 돌봄과 휴식 도움을 제공한다.

위에사오로 일을 하려면 회사의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엄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 교육 시설에서 대략 15일간 100시간에 달하는 수업과 실습공부를 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위에사오는 초급, 중급, 고급, 금메달로 수준이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초급 위에사오로 시작한다. 회사는 고객의 리뷰와 평가를 참고하여 위에사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진급시킬 수 있다. 금메달 위에사오는 3년간 풍부한 경험과 업무 중 민원이 없어야 될 수 있다.

2. 미국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미국의 정치제도는 연방공화제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101.33 일조 달러에 달

3) <https://new.qq.com/rain/a/20230824A02AEA00>

4) https://www.sohu.com/a/729912877_121198369

하며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3년 기준 74,580\$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8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5 시간이다.

미국은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민간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⁵⁾. 의료인프라 또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664이다.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5.44로 OECD 국가 중에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임신에 따른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32.1%를 차지한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Family and Medical Leave Act」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12주의 무급휴가가 주어진다. 자녀 양육은 주로 부모가 도맡아서 하며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집중된 산후조리 필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출생아에 대해 부모에 의한 직접 돌봄이 일반적이라 분만휴가는 주로 신생아 돌봄에 활용되고 있다.

〈표 IV-2-1〉 미국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미국	
체계	정치제도		연방공화제	
경제적 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97.53 (Trillion US \$)	
		2022년	101.33 (Tr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76,399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18년	51,147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74,580 (US \$)	
		2022년	136,692 (US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82.9%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34.5	
최저 시급(2022년)		7.25 (US \$)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민간보험제도	
	의료인프라 특성		민간 중심	
	의료인력 특성		산부인과외과의 수가 동부 쪽에 집중되어 있음	
출산 및 사망	가구당 출생아 수	2021년	1.94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664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23.8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5.44	
	피임방법		먹는 피임약)콘돔)자궁 내 장치)월경주기법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022년)	30.5 / 28.6	
	출생아 성비	2022년	1.048	
	기대여명	2021년	76.4 (21년)	
	예방접종률	B형간염		93.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94.0%
		IPV (폴리오)		97.0%

5) 미국은 민간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나 공적영역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MEDIAID와 노년층을 위한 MEDICARE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대분류	중분류	구분	미국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대부분 의료 기관 이용. 일부 가정 분만 (Idaho, Hawaii, Wisconsin 3.6%)
	분만 비율	제왕절개 비율	32.1%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2주, 무급
	분만휴가 특성		무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2주, 무급 (캘리포니아는 6주까지 임금의 일부 지급)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가족정책 주도성		연방정부와 주정부 혼합 형태
	서비스 지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자격 기준 확대, 기저귀 배포 시범 사업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
	세대 간 돌봄 특성		주로 부모의 양육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중앙난방, 온풍난방
식생활 특성	주식		과일, 야채, 단백질
	부식		물 많이 마실 것을 권장

나.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미국 등 서구 국가에는 산후관리에 관한 논의만 존재할 뿐, 산후조리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98.4%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하며, 나머지 산모는 가정 또는 출산센터⁶⁾(birth center)에서 출산한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0). 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 분만 후 30분이 지나면 간호사가 샤워를 권유하고, 분만 과정에서 소실된 혈액과 체액 보충을 위해 주스를 제공한다. 회음절개부위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냉·온찜질을 해주고, 음식은 빵과 샐러드, 주스,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단 그대로 먹는다. 일주일 후에는 일상적인 일들을 재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모는 산후관리 기간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실천하거나 금기시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배경미, 조혜숙, 이인선, 2009). 산후조리에 관한 인식연구에서도 미국인 산모들은 산후조리 자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산후풍과 같은 증상과 한랭을 피하는 산후조리의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산후조리가 이후의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배경미· 이인선, 2010).

미국에서는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한 조기퇴원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보호법(The Federal Newborns' and Mothers' Health Protection Act)⁷⁾」을 제정하여 산후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줌으

6) 출산센터는 병원에 속하지 않은 자립형 건강 시설로 분만 과정에서 의료 개입을 줄이고 집과 같은 분위기와 개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조산사(midwives)에 의해 운영되며, 간호사나 돌라(doula), 조산 보조원에 의해 부가적인 관리 지원을 받는다.

로써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의 모든 의료보험은 반드시 자연분만 후 48시간 그리고 제왕절개 분만 후 96시간 병원 입원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1회 이상의 산후 병원 검진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에서 공적 의료 보조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간호 형식의 산후관리가 존재하고 있다(이소영·이상림·조성호·최인선, 2015). 주정부의 Medicaid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담당 조직(MCOs)을 중심으로 하여 산후관리를 위한 방문 간호를 대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시건(Michigan)주의 경우는 Medicaid 대상 산모에게 산후 방문 간호를 통해 산후 평가, 교육, 산후 우울증 검사(postpartum depression screen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체계적인 산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산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산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몸의 관절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찬 기운에 매우 민감해지는 등 산후풍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와 인종과 문화권이 다른 산모들에게도 산후조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SBS 스페셜 제작팀, 2010). 또한, Davis와 Pascali-Bonaro(2011)의 연구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에 회복 기간 짧게 갖고 일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과다 분비된 아드레날린이 옥시토신의 복원력을 상쇄시켜 신체적 회복이 더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짧은 산후조리 기간으로 인해 산모들의 생리적 욕구와 좌절되어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에서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산모들의 비율이 비서구권 국가들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2014년 모자보건계획(Maternal and Infant Health Initiative)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후속 임신을 위해 20개 이상 주의 Medicaid 산모의 산후 수진율을 3년간 1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1년에는 백악관에서 미국 산모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재생산과정(임신, 분만, 출산 후 과정)에서의 관리가 필요함을 발표하였다(The White House, 2021). 결론적으로 산후조리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도 산후관리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신체 증상의 발현이 있다는 것은 산후조리에 대한 보편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후조리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규정도 없다. 반면, 산후관리와 관련된 제도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Healthy People 2030⁷⁾ 사업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Guideline for Environmental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Facility」(2006)가 있다. Healthy People 2030 사업 중 모자보건 영역에서는 영아 사망률의 감소, 산모 사망률의 감소, 임신 합병증 감소 등과 함께 산후 관리에서는 산모의 산후 우울증 감소를 목표로

7) https://www.cms.gov/CCIIO/Programs-and-Initiatives/Other-Insurance-Protections/nmhp_factsheet

8) <https://health.gov/healthypeople>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태아-영아 사망 감시(FIMR)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산모 가정 방문 프로그램, 지역사회 산모교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제공하는 안내 수칙은 가정 내에서 가족이 신생아를 돌보게 되는 경우 신생아의 감염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호자 및 방문객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신생아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감염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관리가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안내수칙은 집단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에서의 산후조리 서비스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의 산후조리 서비스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해외체류자의 특성상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미국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은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산모도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아이도 돌봐야 하는 문제로 일이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후조리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정부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는 한인과 중국인이 주축이 된 아시아인에 한하여 이용되는 시설이다. 2015년을 전후로 한인 산모를 위한 가정집을 개조한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이전에 설립된 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과 비슷하게 숙박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마사지 케어, 신생아 케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부분은 패키지 금액 안에 분유와 아기 용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서비스에 공항 픽업 서비스, 출생증명서 발급 라이드 등을 제공하여 영어 사용이 어려운 산모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2). 최근에는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국 상위 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호텔과 협업한 산후조리원(Postnatal Retreat)이 설립되고 있다(표 IV-2-3). 대표적으로 Amha & Co Postnatal Retreat의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3박 기준 \$1,650(210만원) 이상, 5박 기준 \$1,575(200만원) 이상, 7박 기준 \$1,500(195만원) 이상, 10박 기준 \$1,450(190만원) 이상으로 산후 최대 6주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어 있다.

〈표 IV-2-2〉 미국 LA 제때 산후조리원(2018~2021) 이용항목

이용항목	세부항목	단위	요금
기본서비스	숙박비	산전 숙박일수 산후 21박 패키지	예약금 \$1,000 ⁹⁾ (130만원)
			2주 기준 약 500~540만원
			[동행가족 추가요금] ¹⁰⁾ • 어른: \$120(15만원)/day • 아동(7세 이하) : \$70(9만원)/day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이용항목	세부항목	단위	요금
	식사	1일 3식	금액 패키지에 포함 ¹¹⁾
	간식	1일 3회	
	산모케어 예) 모유수유 부족한 경우 영양제 제공, 유방마사지	[24시간] 전문조리사 2교대 근무	
	신생아케어 예) 목욕, 대소변 체크, 용품 지원(기저귀, 분유, 베넛저고리, 유축기)		
	청소	주 3회	
	세탁	매일	
	교육 예)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부가서비스	산모의 공항 Pick up & Drop off	라이드 및 서류대행 서비스	\$900 ¹²⁾ (120만원)
	산전-산후 산모 건강검진 : 산부인과 예약, 입원수속		
	신생아 건강검진 : 소아과 예약		
	쇼핑몰 - 주 1회		
	출생증명서 발급 라이드		
	여권 발급 라이드 : 위임 시 대리 수령 가능		
	전신 마사지	외부 출장 방문	
룸 서비스	규모 별 차이	\$350(45만원)~380(50만원)/day	

〈표 IV-2-3〉 미국 산후조리원 사례

상호명	지역	사이트
MK 산후조리원 (한국인)	Los Angeles, California	https://cafe.naver.com/mksanhu https://mk-zette2.business.site/#testimonials
제때 산후조리원* (한국인)	Los Angeles, California	https://cafe.naver.com/zetteusa
Boram Postnatal Retreat(a private and safe place) at the Langham Hotel (한국인)	New York	https://boramcare.com/
Ahma & Co Postnatal Retreat (2024년 3월 개원 예정)	Orange County, California	https://www.ahmaandco.com/
The Village Postnatal Retreat Center(2024년 6월 개원 예정)	San Francisco	https://villageretreatcenter.com/
Fourth Trimester Postnatal Retreat at the Watergate hotel (2024년 9월 개원 예정)	Washington, D.C.	https://fourthretreat.com/

* 제때 산후조리원에서는 한방병원 MYBODYSTORY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9) <https://youtu.be/rmrzk4g9RPQ>

10) <https://cafe.naver.com/zetteusa/2>

11) <https://www.youtube.com/watch?v=YOHccmERNoc>

12) https://www.youtube.com/watch?v=sf5IcO_8Pug

둘째, 한국인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를 알선하는 소수의 회사가 있다. 산후조리 형태는 보통 출퇴근형과 입주형으로 나뉘며 두 가지 유형 모두 산모의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산후 도우미가 산모의 집에서 숙박까지 하는지의 차이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직접적인 일을 중심으로 산모 식사, 신생아 케어, 마사지 및 좌욕, 모유수유 돕기, 간단한 집안일과 청소가 있다. 계약 시 산후 도우미와 일의 조건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계약 시 집 안 대청소, 묶은 빨래, 손님상 차리기 등 산후관리와 연관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협의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일정 기간 산모의 집에서 숙식하는 입주형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국인들은 주로 New York, Los Angeles, Chicago, Washington D.C.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알선업체(broker)도 동부는 New York, 서부는 California의 Los Angeles에 있다. 보통 고객인 산모가 도우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알선업체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추가 교통비를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산모 도우미의 경우,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평일 주 5일 근무하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6시까지이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입주형 방식을 이용하고, 몇 주 동안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마다 편차가 큰 편이다.

별도로 신생아 케어를 중점으로 하는 베이비시터(Babysitter) 서비스가 있다.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 시터가 꾸준히 해주기를 바라는 특징이 있고, 비용은 시터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베이비시터의 경우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세금 및 한국의 4대 보험처럼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고객인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인이 이용하는 베이비시터 서비스의 경우, 2024년 기준 시간당 \$16~26(2만원~3만원)이며 평균적으로 \$23~24 정도 지급하지만, 지역별, 개인별로 편차가 크다.

〈표 IV-2-4〉 미국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서부 지역(California, Washington 주) 거점 회사들 ¹³⁾		동부 지역(New York 주) 거점 회사 ¹⁴⁾	
	출퇴근형	입주형	출퇴근형	입주형
1주	\$900-\$1600 (120만원~210만원)	\$1400-\$1950 (180만원~260만원)	\$1350 (175만원)	\$1750 (230만원)
2주	\$2400-\$2750 (320만원~360만원)	\$2900-\$3350 (380만원~440만원)	\$2700 (350만원)	\$3500 (460만원)
3주	\$2700-\$3900 (350만원~510만원)	\$4200-\$4750 (550만원~620만원)	\$4050 (530만원)	\$5250 (690만원)
4주	\$3600-\$5050 (470만원~660만원)	\$5600-\$6150 (740만원~810만원)	\$5400 (710만원)	\$7000 (920만원)

13) Mommy & Baby DBA SanhooUSA(Los Angeles, California 주) <http://sanhoousa.com>
 에스터 맘스케어(Los Angeles, California 주) <http://www.esthermomscare.com>
 친정맘 산후 조리 파견 서비스(Washington 주) <http://www.mom1004usa.com>

14) Mom's Homecare(New York, New Jersey 주) <http://www.comcshomecareusa.com>

3. 일본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일본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에 기반하며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4.23 일조 달러(Trillion US \$)에 달하며 연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기준 28,872\$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91.9%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일본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사회보험이 주축을 이루며 의료인프라는 공공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3이다.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736이며 임신에 따른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20.0%를 차지한다. 모유수유 비율은 출산 후 3개월 시점에 30.0%보인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Japanese Labor Standards Act」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1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분만휴가가 유급으로 28일 지급된다. 자녀 돌봄은 핵가족 구성과 3세대 가족 구성의 복합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돕기도 한다.

〈표 IV-3-1〉 일본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일본
체계	정치제도		의원내각제
경제적 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5.01 (Trillion US \$)
		2022년	4.23 (Tr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33,815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17년	28,872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6,170,000 (JPY) 또는 45,453 US \$, 도시에 한정된 결과는 아님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91.9%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최저 시급(2022년)			961 (JPY)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사회보험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민간)
	의료인력 규모	특성	조산사의 역할이 강조됨
출산 및 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3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4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일본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1.736	
	피임방법		콘돔>먹는 피임약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021년)	31.0/29.5	
	출생아 성비	2022년	1.05	
	기대여명	2021년	84.5	
	예방접종률	BCG (2023년)		98.00%
		B형간염 (2023년)		96.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2023년)		99.0%
IPV (폴리오), (2023년)			97.0%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병원	
	분만 특성		자연분만 강조	
	분만 비율	제왕절개 비율	약 20.0%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3개월 때 30.0%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4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분만휴가 특성		유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28일, 유급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가족정책 주도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 형태	
	현금성 지원		육아수당, 남성 육아휴직, 아동 의료비 무상화, 중학교 무상 급식, 공공시설 입장료 무상	
	서비스 지원		기저귀 정기 배달	
	인프라 등 지원 (주택지원 등)		공공주택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 혹은 3세대	
	세대 간 돌봄 특성		조부모의 육아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온풍기	
식생활 특성	주식		두부, 현미, 생선	

나.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¹⁵⁾

1) 임신 시

일본에서는 임신부가 관공서에 임신신고를 마치면 모자건강수첩을 배부한다(후생노동성, 2018:2). 모자건강수첩 수령 시에 임신부는 보건사와 출산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과 몸 상태 등에 대한 것을 상담하고 ‘임부 건강검진 보조금’을 받게 된다(후생노동성, 2018:2).

임부건강검진 보조권(자기부담금 있음)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총 14번의 건강진단을 권장한다(후생노동성, 2018:4). 일본에서 출산하기 위해서는 40만~60만엔(약 390만원~580만원)의 정도의 비용을 필요하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면 ‘출산일시금’으로 42만엔(410만원)이 지급된다(후생노동성, 2018:4).

일본 지자체나 의료기관에서는 예비부모 학급을 운영한다(후생노동성, 2018:4).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임부와 예비 아버지는 아기목욕법,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필요한 영양, 구강케어 등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수차례 받는다. 이러한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후생노동성, 2018:4).

임부 방문도 무료로 실시한다(후생노동성, 2018:4). 임신 중에 컨디션이나 신체 변화, 영양 섭취 방법이나 출산을 위한 준비, 육아에 관한 것 등 병원에서 상담할 수 없는 부분도 지자체의 보건사 또는 조산사가 방문을 통해 지원한다(후생노동성, 2018:4).

2) 자녀 출산 후 1세까지

출산 이후 일본에서는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후생노동성, 2018:5). 일본에서는 ‘소아 의료비 조성 제도’가 있는데 자녀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조성하는 제도이다(후생노동성, 2018:4). 지자체에 따라 대상연령은 다르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등 자녀의 의료비 대부분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후생노동성, 2018:4). 추가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호자에게 지급된다(소득제한 등의 조건이 있음)(후생노동성, 2018:4).

일본의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후생노동성, 2018:4).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산후 케어사업/산전 및 산후지원사업, 신생아방문/유아 가정 전 세대 방문,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이유식 교실이 있다(후생노동성, 2018:4~5).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한다(후생노동성, 2018:5). 인플루엔자 B형, 폐렴구균, B형간염, BCG 등이 무료이다(후생노동성, 2018:8). 구체적인 일본 예방접종 스케줄은 다음 <그림 IV-3-1>과 같다.

15) 본 절은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73~76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 가져왔음

[그림 IV-3-1] 일본 영유아 예방접종 스케줄

종류 種別	접종 ワクチン	영아기 乳児期									유아기 幼児期								학동기 学童期				
		2개월 2か月	3개월 3か月	4개월 4か月	5개월 5か月	6개월 6か月	7개월 7か月	8개월 8か月	9개월 9か月	12개월 12か月	15개월 15か月	18개월 18か月	2세 2歳	3세 3歳	4세 4歳	5세 5歳	6세 6歳	7세 7歳	8세 8歳	9세 9歳	10세 10歳		
정기접종 定期接種	인플루엔자균 b형(Hib) インフルエンザ菌b型(Hib)	①	②	③						④													
	소아용 폐렴구균 小児用肺炎球菌	①	②	③						④													
	B형 간염(HBV) B型肝炎	①	②				③																
	4종 혼합(DTP-IPV)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 四種混合(DTP-IPV)		①	②	③						④												
	BCG					①																	
	홍역, 풍진(MR) 麻疹・風疹(MR)									①					②								
	수두(수포창) 水痘(水ぼうそう)									①	②									9~12세(27) 9~12歳(2期)			
	일본뇌염 日本脳炎												① ②	③						④			
	2종 혼합(DT) (디프테리아·파상풍) 二種混合(DT)																			11~12세(27) 11~12歳(2期)	①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ヒトヒトモウイルス(HPV)																			13~14세 13~14歳	① ② ③		
임의접종 任意接種	로타바이러스 ロタウイルス	1가 1価	①	②																			
	로타바이러스 ロタウイルス	5가 5価	①	②	③																		
	유행성 이하선염 おたふくかぜ									①				(2)						13세부터 13歳より			
	인플루엔자 インフルエンザ																			매년 ①, ②(10월, 11월 등) 毎年①, ②(10月, 11月など)	①		

(*) 임의접종 일정의 예는 일본소아과학회가 권장하는 것
 (*) 任意接種のスケジュール例については、日本小児科学会が推奨するもの
 (*)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경구용 약독생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1가) 5가 경구용 약독생 로타바이러스 백신(5가) 중 하나를 접종
 (*) 로타ウイルスについては、経口弱毒生ヒトロタウイルスワクチン(1価)・5価経口弱毒生ロタウイルスワクチン(5価)のいずれかを接種

(*) 일본소아과학회가 권장하는 예방접종 일정
 (http://www.jpeds.or.jp/modules/general/index.php?content_id=9)
 ※日本小児科学会が推奨する予防接種スケジュール
 (http://www.jpeds.or.jp/modules/general/index.php?content_id=9)
 *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쪽으로 → 국립감염증연구소 → 예방접종 페이지 (http://www.niid.go.jp/niid/ja/schedule.html)
 ※予防接種について詳しい情報はこちら
 国立感染症研究所感染症疫学センター (http://www.nih.go.jp/niid/ja/schedule.html)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 일본에서 임신에서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수속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한국어판). p.8

우선 산후케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출산 후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가족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산모의 경우 보건사와 상담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후생노동성, 2018:5). 병원이나 조산소, 전용 시설 등에서 공적인 비용을 보조를 통해 조산사 등의 케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후생노동성, 2018:5). 숙박형과 당일형, 방문형 사업 등이 있다(후생노동성, 2018:5).

산전 및 산후 지원사업은 무료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임신 중이나 육아기에 연수



경험이 있는 모자보건추진원 및 아이이쿠한(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복지 활동 조직) 소속회원, 노령 세대 및 육아 경험자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비슷한 월령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들의 모임을 기획한다(후생노동성, 2018:5). 신생아 방문 출산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아기의 신체를 측정하고 발육을 확인한다(후생노동성, 2018:5). 또한 수유 및 목욕, 육아에 관해 조언해주거나 고민 사항 등을 상담하게 해준다(후생노동성, 2018:5). 영아 가정 전세대 방문은 생후 0~4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을 보건사 및 추진원 등이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힘든 점은 없는지 산모와 상담한다(후생노동성, 2018:5).

영유아 건강진단 중 출생 후 1개월 건강진단은 출산한 병원에서 진단한다(후생노동성, 2018:6). 3~5개월 건강진단 및 영아 후기 건강진단은 지자체의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녀의 발육과 발달 확인을 위한 진찰, 보건지도 및 영양지도 등이 이뤄지고 비용 또한 무료이다(후생노동성, 2018:6).

영아 5~6개월 시기부터 출산 가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유식 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후생노동성, 2018:6). 이유식 교실에서 아기의 신체와 구강발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유식 내용물 등을 출산 가구가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후생노동성, 2018:6).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2019년에 일본의 '모자 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후 1년 이내의 모자(산모, 유아)'에 대한 산후케어 산업이 법제화 되었으나, 산후케어 시설에 대한 이용률과 인지도에 있어서는 아직 낮은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산후케어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산후케어는 원래 가족과 친지들의 지원 하에 집에서 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평균 연령이 한국(33.5세)보다 빠른 편 (30.7세)이라는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임신 출산 평균 연령은 직전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향되었으며, 이는 일본 내 만혼이 예전에 비해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일본 내의 산후케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래의 방식대로 가족 (주로 친정)에 기대는 방식이며, 케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유치원처럼 낮 시간에만 시설에 가 있다가 저녁때 귀가하는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산후 조리원처럼 숙박을 하는 시설도 있고,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는 아웃 리치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대상 시간 (대부분 6시간)이 애매하고 지출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 폭 넓게 보급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후케어 도우미의 경우에는 시급이 3~4,000엔(2만 6천원~3만 5천원) 사이가 일반적이라 6시간 기준으로 하루만 부탁을 해도 20,000엔(18만원) 이상 (알선료 등 포함)이 들며, 숙박형은 시설

의 종류나 지자체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호텔형 시설의 경우에는 1박에 수만엔을 호가하는 터라 저임금 노동이 많은 일본 젊은 층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산후케어 사업 법제화 이후, 생각처럼 정착이 되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에서도 산후케어 보급을 위해 2021년 4월에 산후케어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바꾸기도 (모자 보건법 제 17조 2 1항) 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책정하는 등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의 조사에서는 임신을 경험한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산후케어에 대한 인지도가 70% 이상까지 높아지는 등 비약적으로 인지도를 늘렸으며,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70%가까이가 될 정도로 좋은 이미지가 정착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30%전후로 낮는데,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든 것이 ‘가족들의 서포트만으로도 충분하다(52.4%)’, ‘어떤 케어를 해 주는지 몰라서 불안하다(39.7%)’, ‘비용이 비싸서 부담된다(26.2%)’ 등이었다.

물론 이 30%가량의 이용률도 3년 전 (2020년)의 조사에서 파악된 3%에 비하면 대폭 증가된 결과이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언론의 조명, 그리고 일본 2030 여성들에게 한국 관련 콘텐츠가 유행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 핀란드, 독일 등을 산후 케어제도 선진국으로 표현을 하거나, 한국 드라마 ‘산후조리원’이 일본에서 방영되거나, 한국 연예인들의 출산 이야기가 다루어지거나 하며 산후케어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본 내에서의 산후케어 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의 만혼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에 (201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남성 초혼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은 후 2021년 조사에서도 상승)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 출산의 경우 전문적인 서포트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대로 일본 내에서 산후케어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친지 (주로 친정)의 서포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가족과 친지의 서포트가 불가능한 경우나 질병이나 생활고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산후케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자비로 부담을 한다면 다양한 산후케어를 받을 수 있다.

가족과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 할 경우, 산업화 된 일본의 산후케어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 구분이 가능하며, 숙박형 시설, 데이케어, 아웃 리치가 그 세 가지 분류이다.

분류별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데이케어는 가족 (주로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낮 시간동안 시설에 가서 지내는 방식으로 비슷한 처우의 산모들끼리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산후 우울증 예방, 육아 지식 공유 등이 가능하며, 시설의 직원들로부터 육아 방법을 배우거나 심리 상담, 운동 등을 병행하기도 하여 산모의 고립 예방과 건강케어, 육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한 시설이다. 시설 체재 시간이 조금 애매한 6시간가량이고, 시설 출입을 하기에 전염병 등의 확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산후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장 많은 시설 수를 자랑하기에 일본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산후케어 시설이라 할 수 있다(2020년 자료 기준 연간 출생 대비 데이 서비스 이용 산모의 수는 전체의 약 1.58%에 해당하는 14,645명).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 (전체의 1.07%)에 해당하는 9,810명)한 아웃리치는 전문 시설에 산후케어 도우미를 알선 받아, 낮 시간동안 산모의 집에 방문하여 케어를 해 주는 방식으로 ‘친정 어머니를 대신하여 케어 해 주는’ 방식이다. 전문적인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육아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1대 1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산모들끼리의 커뮤니티 (일명 ‘마마토모’) 형성에서 제외된다는 단점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상기 참조) 때문에 크게 보급되지는 못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후조리원과 가장 비슷한 방식이 ‘숙박형 시설’이다. 2020년의 조사에서는 데이케어, 아웃리치 보다 적은 8,107명 (전체의 0.88%)만이 숙박형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높은 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산부인과 등의 시설에서 입원형 (숙박형의 장점을 지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운영 보조를 받는 등 서비스의 다각화를 꾀함에 따라 최근에는 고급라인 (호텔형)과 합리적인 라인 (입원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추세이다.

후쿠오카시의 경우, 2026년 기준 시내 6곳의 산부인과 병원과 제휴하여 입원형 플랜을 실시중이며, 일보 정부의 보조금 사업 (2023년 후생노동성 지침. ‘지원이 필요한 자 (육아에 불안을 가진 자, 심신에 이상이 있는 자 등)’에 대해 1박당 5,000엔(5만원) 한도로 지원. 국가 지원 비율 50%, 지자체 지원 비율 50%인 사업)과는 별도로 3,000엔(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3-2〉 산후케어 서비스 비교

구분	데이케어	호텔형	입원형
비용	1만 5000엔(15만원) ~ 2만엔(20만원) 지자체 지원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음(후쿠오카 2000엔(2만원))	스탠다드 플랜 47,300엔(47만 7천원) 수퍼리어플랜 53,900엔(53만 9천원) 스위트 플랜 77,000엔(77만원)	지자체 지원 有 3,000엔(3만원) 지자체지원無 6,000엔(6만원)
식사	점심	5식	5식
신생아 케어	발육 및 발달 체크, 체중 및 배변 체크 등	케어 전반 목욕, 신체측정, 황달측정, 영양체크, 기저귀교체, 분유수유, 모유포유, 젖병 소독 등	건강 상태 체크, 신체 측정, 영양상태 체크, 목욕 등
산모케어	마사지, 육아상담, 건강 체크	수유지원, 피부케어, 온열찜질, 마사지, 건강 체크, 착유기 대여, 수유/목욕방법 전수, 심리상담, 족욕, 그룹 활동, 골반교정, 허브테트요법 등	건강 체크, 수유/목욕방법 전수, 심리상담

구분	데이케어	호텔형	입원형
어메니티 (생활편의)	-	베넷 옷, 기저귀, 물티슈, 거즈 손수건, 콧물 흡입기, 젓병, 분유, 포대기, 산모용 룸웨어(2벌), 모유패드, 오로(산후 질 분비물)패드, 수유용 쿠션, 슬리퍼, 수건, 드라이어, 컬 드라이어, 세면도구 등 구비	베넷옷, 기저귀, 분유, 일용 어메니티, 수건, 드라이어 등
비고	-	배우자, 가족 등 숙박 시 9,900엔 추가 선호하는 분유 반입 가능, 쓰고 싶은 물품 반입 가능	마사지는 별도요금 거즈 손수건, 패드류, 룸웨어 등은 본인 지참

주. 호텔형은 도쿄 도내 시설, 입원형은 후쿠오카시 기준

4. 베트남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베트남의 정치제도는 사회주의에 기반하며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408.8 억 달러(Billion US \$)에 달하며 도시근로자에 한해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3년 호치민 기준 317.084.735 (Vietnam dong)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37.3%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이다.

베트남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건강보험제도이며 의료인프라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944이며,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6.43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임신에 따른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37.0%를 차지한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Article 34 of the Law on Social Insurance 2014」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6개월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배우자 분만휴가는 5일이 주어지고 있다. 자녀 돌봄은 2~4세대 가족 구성의 특성이 강하며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돕기도 한다.

〈표 IV-4-1〉 베트남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베트남
체계	정치제도		사회주의
경제적 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366.14 (Billion US \$)
		2022년	408.8 (B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4,164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호치민 기준)	317.084.735 (Vietnam dong)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37.3%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39(2021년)
		최저 시급(22년)	0.67~0.97 (US \$)

대분류	중분류	구분	베트남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건강보험제도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 민간혼합	
출산/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944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124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16.431	
	피임방법		기혼여성의 경우 자궁내 피임장치(IUD)를 주로 선택함.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022년)	28.4/24.1	
	출생아 성비	2022년	1.11	
	기대여명	2021년	75.67	
	예방접종률 (2023년)	BCG		88.00%
		B형간염		91.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91.0%
IPV (폴리오)			89.0%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병원	
	분만 비율	제왕절개	37.0%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Article 34 of the Law on Social Insurance 2014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6달, 유급 (출산 전 최대 2개월 사용가능, 기본급의 30% 지급)	
	분만휴가 특성		유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5일 (재왕절개 시 7일, 쌍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 기준 차등 있음)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2~4세대	
	세대 간 돌봄 특성		조부모의 육아	
식생활 특성	주식		밥, 치킨 스프, 따뜻한 음식	

나.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1) 산후조리 문화

베트남의 산모들은 대부분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출산을 선호한다. 2022년 현재 출산 방법의 경우, 자연분만이 63%, 제왕절개가 37%이다. 99%의 산모가 의료기관에 출산하며 출산 후 81.7%의 여성이 3일 이상 의료기관에 머무른다. 그리고 88.5%의 산모들은 검진을 받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제왕절개 수준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일부 전문 시설에서는 제왕절개 비율이 50%에 달하는 곳도 있다.

베트남 산모들은 주로 본인의 집이나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14주(3개월 10일)이다.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후조리를 소홀히 할 경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산후에는 특별한 조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일부 산모들은 산후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로는 높은 비용 부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유아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 및 직업적인 이유로 출산 후 빠른 직장 복귀를 고려하는 경우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여성들은 출산 후에 피로한 과정을 겪게 되며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산모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출산 후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신체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강 회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임산부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함으로써 관절 통증, 청력 저하, 퇴행, 디스크 헤르니아와 같은 산후 합병증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산후 합병증 예방'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산후조리를 받는 여성은 건강에 상당한 향상을 이루기 때문에 아이도 모유를 통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여 신체와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 보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 전통에서 산모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절차로 여겨지며 전승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트남 문화 전통에서는 산후조리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시기로 여겨지며, 이는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통적인 실천사항으로 깊게 뿌리내려 있다. 이러한 전통은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있으며, 산후조리가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출산 이후에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것은 대체로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의 일가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이후 붓기 제거를 위한 산전·산후 마사지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출산 이후 몸의 붓기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산모를 위해 별도의 반이 구성되거나 특화된 서비스는 없으며 일반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은 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정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산후조리 제도

베트남에서는 비용 지원, 정신건강 및 상담, 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출산 후 모자보건 지원 제도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출산 후 지원비' 정책은 6개월 전 평균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산모들에게 임신 퇴사¹⁶⁾를 보장한다. 이는 출산 전에 1년 동안 최소 6개월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지원비' 정책은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출산 전후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 정책은 출산 전에 1년 동안 최소 6개월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빈곤층 여성의 경우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 휴양 제도'는 출근 첫 30일 동안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5~10일 동안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출산 전에 1년 동안 최소 6개월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 및 안내'는 산모들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이요법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임신부는 자세한 개인 건강 기록을 유지한다.

'산후조리 건강 및 재활 상담'은 산후 절개 관리 방법, 건강 회복법, 산후 일반적인 건강 문제 등을 다루는 상담을 지원한다. '건강 상태 관찰'은 산모의 건강 상태와 영아의 발육을 평가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산후조리 시설' 제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여덟 번째, '유아 상담 및 지도'는 전문가들이 아기 돌보는 방법을 안내한다. '심리 및 정신 지원' 제도는 산후 여성들에게 출산 후의 변화와 건강 상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적응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출근 시 혜택' 제도는 야간 근무 거부, 이직 혹은 근무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산모들이 출근에 대한 유연성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표 IV-4-2〉 베트남 산후관리 지원 제도

NO	제도명	지원내용	지원 대상	구분	비고
1	출산 후 지원비	임시 퇴사 6개월 전 평균 임금의 100% * 개월 수 (보통 6개월)	공식적인 직업을 갖고 출산 전에 출산 전 1년 동안 최소 6개월의 사회보험료 납부	비용 지원	출산수당의 경우, 권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	의료지원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출산 전후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지원 정책	공식적인 직업을 갖고 출산 전에 출산 전 1년 동안 최소 6개월의 사회보험료 납부	비용 지원	근친상간 또는 빈곤층 여성의 경우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건강 휴양 제도	출근 첫 30일 동안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5-10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	출산 전에 출산 전 1년 동안 최소 6개월의 사회보험료 납부	비용 지원	여성 근로자는 매일 산후조리원 급여의 30%를 기본급으로 받는다.
4	상담 및 안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이요법, 생활 습관 안내	모든 산모	정신건강 및 상담	임신부는 모든 검사, 의사의 조언을 포함한 상세한 개인 건강 기록을 유지해야 함.
5	산후조리 건강 및 재활 상담	산후 절개 관리 방법(있으면), 건강 회복 법, 산후 흔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법에 대한 상담	모든 산모	예방적 건강관리	

16) 임시 퇴사 : 출산 후 다시 회사 복귀를 보장한 퇴사

NO	제도명	지원내용	지원 대상	구분	비고
6	건강상태 관찰	영아기의 발육을 관찰하고 산모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며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	모든 산모	예방적 건강관리	
7	산후조리 시설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객실은 깨끗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보장	서비스 이용한 모든 산모	산후 서비스	
8	유아 상담 및 지도	전문가들은 아기에게 모유 수유, 배꼽 관리 및 건강 개발을 포함하여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안내	서비스 이용한 모든 산모	산후 서비스	
9	심리 및 정신 지원	산후 여성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출산 후 삶의 변화와 건강 상태에 직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모든 산모	기타	
10	출근 시 혜택	- 야간 근무 거부 - 이직 or 근무시간 단축 - 하루 60분씩 충분한 임금을 받고 휴식	모든 산모	기타	

베트남에서는 출산 휴가가 총 6개월로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산 전에 최대 2개월까지 미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출산 후 휴가 의무 기간은 최소 4개월이다. 이 출산 휴가는 모든 산모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의 최신 트렌드는 기술 및 앱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모니터링, 의사와의 약속 스케줄링,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기술 및 모바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정서적 건강 증진이 중요해 지고 있다. 명상, 요가 또는 심리 상담과 같은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베트남은 한국과는 다르게 산후조리원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SPA 등 단기간 동안의 산후조리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언급하는 산후조리원은 1~2주 동안 생활하며 산후 조리하는 장소가 아닌 2~3일 동안의 단기간 산후 조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Vinmec으로 베트남의 다분야 민간 경제 그룹인 Vingroup이 운영하는 학술 의료 시스템이다. 현재 7개의 병원과 4개의 국제 표준 종합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시설, 전문가 및 수년간 경험을 쌓은 의사들, 세계 최신 치료법과 완벽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왔다. 산모가 임신 12주부터 또는 임신 27, 36주마다 일반 분만과 1, 2, 3차 분만으로 일괄 분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후 4일 이내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산후조리원 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한 사례는 없다.

[그림 IV-4-1] Vinmec 시설 및 서비스



이러한 시설의 관련 규정도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는 직업 자격증과 전문 경력이 필요하며, 다른 직원들도 충분한 숙련도와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임신부실 시설의 기준은 프라이버시와 청결을 강조하며, 객실은 병상, 쉼터, 건강 감시 장치 등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실 시설의 기준은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시설과 무균, 온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넷째, 급식시설의 기준은 산모의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시설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산후조리원의 평가 및 관리에서는 안전, 소방 및 환경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 번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기술하는 특정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출산 후 2~3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객실이 제공된다. 이러한 객실에는 특실, 일반실, VIP 객실, 다목적 객실이 포함되어 있다. 특실은 하루 평균 비용이 2,000,000~3,500,000VND(11만원 ~ 19만원)로 책상, 옷장, 개별 욕실, TV, 와이파이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넓은 공간과 고급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반실은 하루 평균 비용이 1,000,000~2,000,000 VND(5만원 ~ 11만원)로 싱글 침대, 책상, 옷장, 개별 욕실, TV, 와이파이 등을 제공한다. VIP 객실은 하루 평균 비용이 3,500,000~5,000,000 VND(19만원 ~ 27만원) 넓은 객실, 고급 손님용 공간, 개인 스파, 고급 개별 욕실,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다목적 객실은 하루 평균 비용이 1,000,000~2,000,000 VND(5만원 ~ 11만원)로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객실로, 운동, 영유아 돌봄 수업, 영양 상담 등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베트남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SPA 업체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MISS

CARE', 'HOME CARE', 'Eva Care' 등이 있다. 'MISS CARE'는 기본 산후조리 패키지뿐만 아니라 산후 뷰티 서비스(출산 후 건강과 피부 회복 서비스), 몸매 관리 서비스(허리 라인 조절 및 슬림한 체형 유지, 출산 후 복부의 주름 및 탄력 감소 관리 등), 그리고 자체 설계된 산후케어 패키지(스파 휴식, 통증 완화, 출산 후 건강 회복 등을 여성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 가능)를 제공한다. 회당 평균 비용은 400,000~1,000,000 VND(2만원~5만원)이다.

[그림 IV-4-2] MISS CARE 제공 서비스(자료 : MISS CARE)



'HOME CARE'는 물리 치료(통증과 피로 완화), 마사지(근육통, 허리통증 완화 및 숙면 등), 그리고 피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당 평균 비용은 350,000~700,000 VND(2만원 ~ 4만원)이다. 이외에도 베이비시터 등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이용금액은 60,000~70,000VND(3,000원~4,000원)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가격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V-4-3〉 산후조리 관련 업체 및 서비스 (ex. 마사지, 요가 등)

NO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용VND(한화)
1	산후관리실	편안한 침대, 개인 욕실 및 TV, Wi-Fi	1,000,000~3,000,000/일 (5만원~16만원)
2	출산 후 몸의 마사지 및 회복	마사지 치료, 온열 오일 마사지, 복부,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300,000~700,000/회 (1만원 5천원~3만 8천원)
3	출산 후 상처 관리 (제왕절개 시)	상처 교체, 상처 청소 및 상처 치료 크림을 사용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치유를 촉진하는 등 제왕절개 수술 후 치료를 포함	500,000~1,500,000/회 (3만원~8만원)
4	영양 상담 및 식단 계획	출산 후 여성의 영양 요구에 맞는 식단 계획 수립 및 특히 수유 중인 여성을 위한 영양 정보 제공을 포함	300,000~700,000/회 (1만원 5천원~3만 8천원)
5	정신 건강 지원 및 정신 건강 상담	정신 건강 상담, 출산 후 정신적 도전과 정신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원	400,000~800,000/회 (2만원~ 4만원)
6	건강 회복을 위한 경미한 운동	근육을 강화하고 힘을 회복하기 위한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 안내	200,000~500,000/회 (1만원~3만원)
7	피부 관리 및 산후 미용	피부 치료, 얼굴 마사지 및 산후 스파를 통해 피부 상태를 개선 서비스 포함	300,000~800,000/회 (1만원 5천원~4만원)
8	체중 감량 지원 및 몸매 회복	다이어트 및 운동 계획을 통한 체중 감량 및 몸매 회복을 위한 조언을 제공	500,000~1,000,000 (3만원~6만원)
9	종합 건강 검진 및 건강 모니터링	일반적인 건강 검진 및 기본 건강 지표 모니터링을 포함	300,000~700,000 (1만원 5천원~3만 8천원)
10	신생아 돌봄 서비스	아기 목욕, 기저귀 교체 및 수면 지원과 같은 신생아 돌봄을 포함	100,000~300,000/시간 (5,000원~1만 5천원)

5. 몽골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몽골의 정치제도는 이원집정부제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17.15 십억 달러(Billion US \$)에 달하며 도시근로자에 한해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2년 기준 1,916.752 (US \$)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68.9%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이다.

몽골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건강보험제도이며 의료인프라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2.837이며,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2.68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Labour Law §104(1)-(3)」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1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자녀 돌봄은 핵가족 구성의 특성이 있으나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돕기도 한다.

〈표 IV-5-1〉 몽골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몽골	
세계	정치제도		이원집정부제 민주주의	
경제적 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15.29 (Billion US \$)	
		2022년	17.15 (B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4,947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2년	1,916.752 (US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2022년)	68.9%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2019년)		51
최저 시급(2023년)			3,273.80 (MNT)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건강보험제도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 민간혼합	
출산/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2.837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39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12.681	
	피임방법		콘돔)자궁내 피임장치)먹는 피임약)임플란트)주사용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019년)	29/26	
	출생아 성비	2022년	1.05	
	기대여명	2021년	70.33	
	예방접종률 (2023년)	BCG		99.00%
		B형간염		95.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 (폴리오)		95.0% 94.0%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병원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2020년)	생후 6개월 58.0%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Labour Law §104(1)-(3)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20일, 유급	
	분만휴가 특성		유급 (12개월 평균임금 상응 소득, 4개월간 100% 지급)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현금성 지원		1) 모성지원: 출생~3세까지 매월 지급(한화 2만원) 2) 쌍둥이지원: 출생아수에따른차등지급(한화 80만원~360만원) 3) 아동지원: 출생~18세아동(한화4만원지급)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	
	세대 간 돌봄 특성		조부모의 육아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지역난방	

몽골의 인구 증가율은 20세기 초반에는 1% 정도로 매우 낮았으나 20세기 후반 1956~1989년 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3%에 달했다. 20세기 초에 몽골의 인구 증가율은 우리나라의 저개발, 높은



전염병 유행률, 낮은 건강 상태, 사회 각계의 탄압과 할хин 전쟁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56~1989년 사이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건강관리를 포함한 사회 보호, 보건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주요 조치와 함께 전국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및 개발이 사망률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자녀가 많은 어머니에 대한 급여, 지원 등으로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단계적 도입은 인구 증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몽골의 인구 증가는 정점에 도달하여 향후 관성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몽골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몽골 인구는 3,409,939명으로 작년에 비하면 52.3천 명이 증가했다(1.56%). 다만 순 증가율(실질적으로 순전히 증가함)은 작년에 비하면 0.1% 줄었다. 전체 인구의 69.4%가 도시에, 나머지 30.6%가 지방에 거주하며 평균연령은 2017년에 69.89세이었다가 2021년에 71.01세로 증가했다. 성별 분포는 49%가 남성이고 51%가 여성이며 전체 여성의 50%가 가임기 여성(19~49세)이다. 이는 젊은 연령집단이 해외로 유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연령구조의 중간 부분이 증가하였거나 인구 대다수가 중년층이다.

전체 인구에서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생활 방식의 변화 및 여성의 교육 수준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197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은 22세, 남성은 20세였으나 2010년 인구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5년 늦춰졌다. 또한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인구조사에서 4.2명에서 22.7명으로 증가했다. 몽골의 가임기 여성 1인당 자녀 수(총출산율)는 1975년 7명에서 1995년까지 5년마다 1명 정도씩 감소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 수치는 약 2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2015년 까지는 3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7년까지 이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나. 몽골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몽골은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18세 미만 산모가 많은 편이다. 특히 연령이 낮은 임산부들은 계획임신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몽골사람들은 특히 지침 문화를 좋아하지 않고 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젊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임신했으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0%가 이혼을 하고 있어 임신과 결혼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몽골은 임신시점에 출산을 위해 별도의 목돈을 모아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다만 분만예정일 1~2개월 전에 출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며 이것은 미리 준비하면 아기가 잘 못 될 수 있다는 문화적 인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은 산후조리원 예약에 있어서도 분만예정일을 기점으로

2주~4주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예약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몽골에서는 모유수유를 초등학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3~4살까지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오래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몽골에서도 주로 산부인과와 종합병원에서 분만한다. 자연분만이 약 70%, 제왕절개가 약 30%이다. 몽골에서 산후조리기간을 12주로 잡고 있다. 산후조리는 주로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의 도움을 통해 이뤄진다.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서 1~3 달 동안 산후조리를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다. 주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 돌봐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표 IV-5-2〉 몽골 출산지원 정책

NO	제도명	지원내용	지원 대상
1	임신 수단	월 4만MNT (1만 5천원)	임신 5개월부터
2	급여 있는 엄마	월 5만MNT (2만원)	0~3세 아동 있는 가정
3	자녀 수단	월 10만MNT (4만원)	0~18 세 아동
4	임신 및 출산 지원	4대 보험 (4 달 동안 지원 하되 최근 12개월 보험료 평균 100%)	직장인 및 개인 보험 있는 자

몽골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출산 자녀수에 따라 6자녀 이상 출산한 엄마의 경우 '유명 어머니 I' 메달과 4~5자녀 엄마의 경우 '유명 어머니 II' 메달을 주는 제도가 있다. 메달을 받은 산모 수는 2010년 71,600명이었는데 2017년 214,700명으로 71% 증가했다. 2011년부터 아이가 많은 엄마에 대한 장려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1급을, 4명을 낳은 엄마에게 2급을 부여한다.

출산휴가도 있으면 임신 중 60일, 출산 후 60일이다. 그리고 모유 수유 휴가 지원 제도도 있다. 기본적으로 산후조리는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친정, 시댁, 집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임신을 확인하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행태와는 다르게 몽골은 보편적으로 분만예정일 1~2개월 전에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출산에 대해 미리 준비하면 아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임신·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다.

몽골은 오랫동안 유목생활을 해 왔던 민족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후조리는 대략 45일 정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몽골은 날씨가 추워 산후조리 기간에 산후풍이 발생할 수 있어 차가운 바람을 쐬지 않아야 하며 외출을 삼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가정에서 산후조리 시에 준비하는 음식은 양고기로 만든 국물 종류로 이러한 음식 섭취를 통해 출산 이후 산모는 기력을 회복한다. 또한 출산 이후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국물음식은 모유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며 특히 모유수유는 오래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보통은 3~4

살까지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 중 의료이용은 일반산모의 경우 지역마다 가정의학과¹⁷⁾가 있어 이곳을 방문하여 기본검진을 받는다. 가정의학과는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간단한 치료와 예방접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들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가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규모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만의 경우 몽골은 개인병원과 국립병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의료서비스가 너무 열악하여 실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낮아 개인병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개인병원에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의료진이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 욕구가 높은 경우 또는 고위험 산모의 경우는 개인병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신에 따른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나 체계로 만들어진 것은 없으며 산후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집에서 모유수유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신생아가 사망하는 등 신생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비용은 국립병원은 무료이며, 개인병원의 경우 한화 기준 200~4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대부분은 국립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으며 이런 병원은 울란바토르 내에 3~4군데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며 모유수유하며 자연분만의 경우 2~3일 이후 퇴원하여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된다. 출산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나, 병원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동 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사건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 분만관련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몽골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으며, 5년 전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 비용은 한화기준으로 2주 평균 300~500만원에 달하며 소득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시간은 1~2주 정도로 알려져 있다. 몽골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출산 가정의 약 1~2%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에 대한 과시적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몽골의 산후조리원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등 제공되는 서비스는 한국과 유사하며 모자동실이 일반적인 형태로 산모의 의사에 따라 밤중수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산후조리원 인력은 의사는 1~2명이 있으며 대부분 간호사와 일반인에 해당한다. 간호사들은 자녀 출산·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며 일반인도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경우 산후조리원 인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몽골은 산후조리원은 산후 요양원으로 불리며 2019년에 요양원의 구조 및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관련 내용은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요양원의 표준의 규범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조직, 모니터링, 인가 및 돌봄 및 서비스 인증에 적용해야 한다'란 내용이다.

17) 가정의학과는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유사한 형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출산은 큰 병원에서 이루어짐.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 업종과 관련된 규정이 2023년 12월 15일부터 만들어질 예정이다. 노동사회복지부 규정에 ‘산후조리 시설 설립 예산 확보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몽골의 산후조리원은 총 8개소가 있다. 특실과 일반실로 구분되며 특실은 하루 비용이 12만원에서 24만원, 일반실은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다. 2022년 사이에 총 3,600명의 산모와 영유아가 서비스를 받았으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총 1,500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총 28,464명의 산모가 출산했으며 이 중 5.2%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표 IV-5-3〉 몽골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1일)

NO	구분	평균 비용
1	특실	300.000~560.000MNT(12만원 ~ 24만원)
2	일반실	155.000~260.000MNT(6만~10만원)

[그림 IV-5-1] 몽골 산후조리원



2023년 몽골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 대비 약 20% 성장했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은 2023년 1인당 GDP 4,000달러(530만원)를 돌파하며 중소득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있다. 몽골의 출산율은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출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전문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몽골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산후조리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 보조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지원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산후조리원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 주요 경쟁업체는 몽골투모르, 엔젤베이비, 엠앤케이, 울란바토르 산후조리원 한국의 마더스베이비, 중국의 베이징화양, 베이징애아이 등이 있다. 몽골투모르는 몽골 최초의 산후조리원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엔젤베이비, 엠앤케이 등 국내 기업들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마더스베이비(임산부 용품 업체) 등 해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하고 있다.

〈표 IV-5-4〉 몽골 주요 산후조리원

화폐 단위 : 몽골 MNT

NO	업체명	위치	서비스	비용
1	SORKHUN	ULAANBAATAR (시내)	대한민국의 산후조리 전문 프로그램을 몽골의 전통 산후조리 관습과 조합을 시켜서 운영함. 산부인과에서 바로 올 수 있고 신생아가 28일 지나면 받을 수 없음.	10-21일 이용 1일 비용 300,000~350,000 (11만원~14만원) (산모와 신생아)
2	ENKH-AMARJIN	ULAANBAATAR (시내)	대한민국 투자 자금으로 운영함. 신생아 전문 케어 장비를 갖춘 신생아 치료실과 소아과 의사의 정기 검진. 산모를 위한 미용, 요가, 육아 관리 지식	1일 비용-550,000(21만원) (의사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비용 별도)
3	KHUSKHAN	ULAANBAATAR 인근에 있음	신생아 돌봄, 케어 산모를 위한 안마, 사우나, 마사지	산모 : 268,000(10만원)/ 248,000(9만 5천원) 아이(나이별) : 48,000(2만원)/ 78,000(3만원)/158,000(6만원) (신생아뿐 아니라 영유아 케어 가능)
4	IVEELEN	ULAANBAATAR 인근에 있음 (24Km)	신생아 돌봄, 케어 산모를 위한 목, 머리 안마, 부황, 물리치료	세트 비용 1일 200,000~250,000(8만원~10만) 아이 38,000~68,000 (1만 5천원~2만 5천원)
5	Baby sky	ULAANBAATAR 인근에 있음 (52Km)	신생아 돌봄 및 케어, 산모를 위한 미용, 요가, 육아 관리 지식	(성인 2명, 자녀 2명) 가족 방 1일 비용 430,000(16만원) (성인 2명, 자녀 1명) 388,000(15만원)/50,000(2만원)부터

NO	업체명	위치	서비스	비용
6	MANDAKH	ULAANBAATAR 인근에 있음	미숙아도 케어 가능. 전문 의사의 진료, 진단 및 신생아 X RAY 산모를 위한 안마 및 마사지, 부항, 전문 상담. 산모가 치료받는 동안 신생아 돌봄 서비스	1일 비용 15,0000(6만원) 아빠 침대 별도 50,000(2만원)
7	Baby	ULAANBAATAR 인근에 있음 (23km)	산모를 위한 안마 및 마사지, 부항, 전문 상담. 산모가 치료받는 동안 신생아 돌봄 서비스	1실 170,000~200,000 (6만 5천원~8만원) 서비스 비용이 추가됨
8	KHUURKHUN BUMBUG	ULAANBAATAR 인근에 있음 (18km)	산모를 위한 안마 및 마사지, 귀를 통한 청소 및 힐링 요법	성인 155,000 영유아 45,000~75,000

산후조리 서비스 외에도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등)를 고용하기도 한다. 베이비시터 평균 비용은 한 달에 1,500,000~3,000,000MNT(60만원 ~ 120만원) 수준이다.

6. 말레이시아

가. 시장 개요

1) 경제 및 소비 지표

가) 시장 규모

말레이시아는 2022년 기준 GDP 4070.3억 USD를 기록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을 때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이다. 말레이시아 인구 중 말레이계가 69.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계(22.8%), 인도계(6.6%).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63.5%, 불교가 18.7%, 기독교가 9.1%, 힌두교가 6.1%로 인구 중 무슬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구의 50.9%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가로, 그 중에서도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슬림 친화적인 관광 정책을 실시하며 이들을 유인하고자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자 노력 중임.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슬림 관광지로 꼽힘. 코로나로 인해 국제적으로 관광업계가 침체되었으나 엔데믹 이후 활발히 재개 중(OECD, 2023)이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비 무슬림 인구의 약 2배를 차지함.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무슬림 혼인 건수는 176,000건, 비 무슬림 혼인 건수는 38,940건을 기록하였다. 즉 단순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무슬림의 혼인율이 비무슬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6-1〉 말레이시아 혼인 건수

(단위: 1,000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무슬림	147.28	150.2	147.85	145.2	176
비무슬림	56.46	56.25	55.81	39.39	38.94

자료: Statista

한편 현지의 결혼 풍습은 주로 중국과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이다. 따라서 결혼 절차가 단일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각자의 배경에 따라 상이한 편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예비 신랑 가족의 연장자가 예비 신부의 집에 방문하여 알아본 후 약혼을 진행하며, 6개월에서 3년 정도 약혼 기간을 둔 후 결혼식을 올린다.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헤나(식물성 염료를 이용해 손 등에 추상적 그림을 그리는 것)를 진행하고 전통 장신구를 착용한다. 특정 색을 길하거나 불길하다고 여기는 인식은 드물어 복장 색상의 제한은 없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신부의 집이나 종교적 장소(모스크 등)에서 이루어진다. 손님들은 신혼부부에게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꽃잎과 노란 쌀알을 뿌림. 경우에 따라 밥 위에 삶은 계란을 얹은 전통 음식이 제공되기도 하며, 대규모의 피로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IV-6-2〉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말레이시아	
체계	정치제도		입헌군주정	
경제적 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2년	434.1 (Billion USD)	
	1인당 GDP	2022년	33,112.7 (USD)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2년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78.21% (2022)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최저 시급	- -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	-	
	의료인프라 특성	-	-	
출산/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8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68.2*	
		2022년	26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6.5	
	피임방법	-	-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	
	출생아 성비	2021년	1.07	
	기대수명	2021년	74.88	
	예방접종률	BCG		-
		B형간염		-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IPV (폴리오)			-	

대분류	중분류	구분	말레이시아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	-
	분만 비율	제왕절개	-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혼합수유	- -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Employment Act 1955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98일
	분만휴가 특성		유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없음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가족정책 주도성		중앙정부 주도
	현금성 지원		-
	서비스 지원		-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
	세대 간 돌봄 특성		-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난방 보다 우기와 더위에 대비한 방수 및 냉방 시설에 집중
식생활 특성	주식		쌀/국수/빵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식을 곁들임

주: 2021년 말레이시아 모성사망비는 전년도 대비 3배 가량 상승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임산부들의 병원 기
피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

자료: Statista, WorldBank

나.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28일, 말레이인들은 최대 44일의 산후조리기간을 보낸다. 현재 말레이 산후조리원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두 인구의 22.6%(Statista, 2023)을 차지하는 중국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계 기업들 역시 말레이식 식사, 전통 마사지 등 말레이시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넓은 소비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단,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집에서 가풍에 따른 산후조리 방법을 선호해 산후조리원 방문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파 또는 조산사로 불리는 출산 도우미를 가정에 방문 또는 상주케 하여 특수 식단과 허브를 이용하고 산모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들은 신생아 육아도 동시에 수행하여 목욕, 수유, 마사지 및 야간 간호 등을 실시한다.

2018년 실시된 온라인 조사에서는 산후조리원 입소보다 출산 도우미 고용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 인구밀도가 높은 셀랑고르, 페낭, 조호르, 쿠알라룸푸르 등지에 설립되며 산후조리 관련 트렌드에 변동이 발생 중이다. 아직까지 산후조리원의 주 이용층은 중국계 말레이인이 중심으로, 본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숙박시설, 산후 마사지, 신생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옵션 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 내용에 따라 가격은 상이함.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용 세면도구, 기저귀, 아기 옷, 포대기 등의 물품 역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는 부재하여 산후조리원은 법적으로 호텔이나 온천과 같은 사업체로 인식된다. 민간의료시설 및 서비스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보건 당국의 삼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셀랑고르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모든 150여개 산후조리원을 의료센터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말레이시아 고용법 Part IX Pregnancy and Maternity에서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는 최대 98일 간의 유급 모성보호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출산 전 9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90일 이상 고용되어 있었거나, 4개월 이내에 고용된 적이 있어야한다. 고용주는 출산예정일 14일 전부터 모성보호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자격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출산수당을 지불받는다. 단,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출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위법이나 근로계약의 고의적 위반, 사업장 폐쇄가 아닌 이유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노동자는 출산 예정일 기준 최대 60일 전에 출산휴가 시작 희망일을 통지해야하며, 미 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중 노동자 사망 시 법정 대리인에게 사망 직전일 분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가족건강증진과에서 실무 상황 시 가이드 제공을 위해 작성 및 배포한 매뉴얼(Perinatal Care Manual 4th Edition (May 2023, Ministry of Health Malaysia))은 2002년 초판 간행 이후 4번째 개정판으로, 산전/산중/산후 관리는 물론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다. 산후조리원 및 유사 서비스 현황

말레이시아 내 산후조리원 시장의 규모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의 주요 업체들의 개업 및 신규 지점 개설 등의 추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근 10년 이내 급속히 성장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도시 중심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중국계 말레이인 커뮤니티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주요 산후조리원과 이용자들은 모두 중국계의 영향이 지대하나 최근 들어 인종과 관련 없이 다양한 집단으로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산후조리원은 중국계와 대만계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서 진출한 사례는 없다. 주요 업체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체

가) LYC Healthcare

상장 기업이 관리하는 최초의 산후조리원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전역에 4개 센터가 위치해 있다.

Taman Tun Dr Ismail 지점에서 33개 침실, Pucong Utama 지점에서 29개 침실, Aura Place, Bukit Jalil 지점에서 60개 침실, Johor Bahru에서 71개 침실을 운영 중이다. 모든 지점에는 Wi-fi와 스마트 TV는 물론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객실에는 모두 개별 욕실이 마련된다. 객실 등급은 Delux, Premier, VIP 순으로 높아지며 등급에 따라 객실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IV-6-3〉 LYC Healthcare 제공서비스

- (i) 신생아 돌봄 서비스: 24시간 1:1 원격모니터링, 목욕/식사/배설/바이탈 모니터링
- (ii) 매주 상주 의사 방문: 24시간 산모 간호 전담팀 및 호출 벨
- (iii) 가슴 뭉침 방지: 말레이 전통 마사지, 고주파 치료, 진주 파우더 제공, 수유 전문가 지원
- (iv) 전문 수유 상담: 수유 개선 방안 안내 및 관련 수업 등 진행
- (v) 영양사 상주 및 식사 제공: 산모식, 대추야자차, 한방탕, 저염/저당/저지방 및 고섬유질, 고단백질
- (vi) 산후 관리 프로그램: 마사지, 스파, 요가, 지압, 사우드배스, 탄산 제거, 매니큐어, 페디큐어
- (vii) 보안: 24시간 보안 관제, 입구 통제
- (viii) 하우스 키핑: 매일 하우스 키핑, 매주 침구 교체, 자체 세탁 서비스, 자외선 살균

나) Esther Postpartum Care

대만계 기업으로 홈페이지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지원한다. Hartamas, Damansara, Cheras 에 지점을 두고 운영 중이며, 객실 등급은 Premium, Delux, Superior Delux, Luxury, Grand Luxury 순으로 높아진다. 등급에 따라 객실 크기와 시설 등에 차이가 있지만 지점 별로 운영되고 있는 객실 종류와 사양은 상이하다.

〈표 IV-6-4〉 Esther Postpartum Care 제공서비스

- (i) 신생아 돌봄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목욕 및 마사지, 필요 시 치료 및 스킨케어, 수면 패턴/두뇌발달/체중/바이탈/황달 모니터링, 땀줄 관리 및 격리실 운영, 구토 방지를 위한 유모차
- (ii) 산모 돌봄 서비스: 건강검진, 유방 관리 및 마사지, 모유 수유 지도, 자연분만 시 회음부 관리, 제왕 절개 시 상처 치료 및 회복, 심리평가 및 산후 우울증 관리
- (iii) 의료 서비스: 소아과 의사, 한의사, 간호 전문가
- (iv) 산모 파티, 티타임, 출산 선물 만들기

다) Little Precious Postnatal Care

중국계 기업으로 홈페이지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지원한다. 쿠알라룸푸르 근방의 KL ECO CITY에 위치하며 영국식 설계를 표방하고 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순으로 객실 등급을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크기와 시설,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한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수유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산모 서비스를 담당한다.

〈표 IV-6-5〉 Little Precious Postnatal Care 제공서비스

(i) 산후조리: 회음부 회복, 제왕절개 상처 치료, 산후우울증 상담, 수유 상담, 건강검진, 객실 내 상담 (ii) 물리치료: 내장기관 회복, 재활, 골반 관리, 가슴 마사지, 허리 관리, 전신 지압 (iii) 수업과 활동: 육아 교실, 신생아-산모 상호작용, 산후 운동, 모유 비누 만들기 등 (iv) 한의학 요법: 중국 전통 의학에 따라 조제된 한약 제공 (v) 간호사 동행: 병원/진료소 방문 시 간호사 동행 (vi) 1:2 간호 서비스: 24시간 신생아 돌봄, 성장/체중/체온/배변/황달 모니터링, 생활용품 소독, 땀줄 관리 등

라) Mama Care (Family Wellbeing Sdn Bhd 제공)

LPPKN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Family Wellbeing Sdn Bhd(이하 FWSB)는 전국의 숙련된 산후조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산후조리 패키지를 제공하는 MamaCar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혼모와 노인 여성,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게 말레이시아 사회연구에서 공인한 산후조리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해 고객에게 서비스하게 한다. 모든 MamaCare 종사자들은 국가직업기술 표준(NOSS, National Occupational Skills Standard) 교육 모듈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 기술 자격증 4급을 획득하게 된다. 산후조리 전문가들은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산모식과 이유식, 전통 마사지, 온찜질, 신생아 관리, 바디스크럽 및 마사지, 유산 경험자를 위한 특별 마사지 등을 서비스한다.

2) 산후조리원 설립 및 수출 관련 규제

현재 말레이시아 법률은 산후조리원을 의료시설이 아닌 호텔, 온천과 같은 ‘사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개원을 위해서는 ‘회사’로서 말레이시아 회사위원회(SSM)에 등록 후 지방 당국으로부터 운영 허가증을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민간 의료시설 및 서비스법(1998 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률적 지침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셀랑고르 주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의료시설로 분류한다.

2022년 셀랑고르 주 정부는 산후조리원을 의료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허가 및 규제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규정은 소음, 대기,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고위험 지역에서의 산후조리원 운영을 제한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사후 관리가 안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7.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UAE의 정치제도는 다른 보편적인 민주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비록 대통

령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각 토후국들은 왕국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합 전제군주제에 조금 더 가깝다.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415.18 십억 달러(Billion US \$)에 달하며 도시근로자에 한해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2년 기준 51,457(US \$)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86.0%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이다.

UAE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혼재되어 있으며 의료인프라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으나 공공의 영역이 더 넓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5이며,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5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Labour Law (Federal Law No. 28 of 2006)」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6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친족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돕고 있다.

〈표 IV-7-1〉 UAE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UAE	
체계	정치제도		전제군주제 연방국가	
경제적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415.18 (Billion US \$)	
		2022년	507.06 (B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53,708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7,350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2년	51,457 (US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86.0%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48
최저 시급			기준 없음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공적보험, 민간보험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민간	
출산/사망	합계출산률 (Fertility rate)	2021년	1.5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9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5	
	피임방법		체외사정(24%)>콘돔=자궁내장치(20%)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8.9세/25.7세	
	출생아 성비	2021년	1	
	기대여명	2021년	79	
	예방접종률		BCG	96.0%
			B형간염	95.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96.0%
IPV (폴리오)			95.0%	



대분류	중분류	구분	UAE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병원
	분만 비율	제왕절개	23.9%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24.4%
		혼합수유	24.0%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Labour Law (Federal Law No. 28 of 2006)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60일, 유급
	분만휴가 특성		60일(45일 full paid, 15일 half-paid) 및 90일까지 연장가능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5일, 유급 (출산 후 6개월까지)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가족정책 주도성		
	현금성 지원		땅 지급, 60 (thousand US \$)
	서비스 지원		-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친족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27년 가구별 평균 구성원의 수 4.5명
	세대 간 돌봄 특성		조부모의 육아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석유, 신재생에너지, 바닥 난방 존재함
식생활 특성	주식		육류, 생선류, 밥

나.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1) 산후조리 문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아랍에미리트는 산전과 출산, 산후를 포함한 재생산과정이 샤리아(Sharia: 이슬람 법)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특히 산후 기간은 종교적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Behrens-Abousief, 1999, 김종도·안정국, 2012 재인용). 우리나라의 삼칠일과 비슷하게 일정 기간 산모가 휴식을 갖는 것과 비슷하게 전통적으로 무슬림 산모들도 약 40일 동안 산후조리 기간을 가졌다(Hundt & Beckerleg, 2000). ‘40’이라는 숫자는 종교적으로 완성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 후에 출혈과 같은 불순한 상태(Nifaas)에서 완전하게 청결해지는 기간이라고 보았다¹⁸⁾. 이 기간에는 산모와 아기가 함께 지내면서 아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도하는 종교의식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 약 40일이 지나고 아기가 생존하게 되면 이슬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산모는 다시 기도와 금식과 같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Hundt & Beckerleg, 2000).

산후조리 기간에 특별하게 섭취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문화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해준다고 믿는 “축복받은 씨앗”인 블랙 커먼 씨드(Nigella sativa)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아연,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당도의 대추야자 열매(Date)를 섭취하여 지친 산모들

18) <https://islamqa.info/en/answers/50308/40-day-rule-after-birth-in-islam-when-can-women-pray-and-fast>

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Yashmin, 2015). 한편,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를 지원하는 Doula와 같은 조산사는 없었으나, 최근에 산후 기간에 도움을 요구하는 산모들이 늘었다. 산모들은 신생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교육과 산모들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모유수유 지원 등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Sevugwaawo, 2023).

산모는 찬 음식이나 찬 음료를 일절 섭취하지 않게 하며, 친지나 지인들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보내는 관습이 있다. 특히 ‘하리르와’ 또는 ‘사쿠나’라 불리는 음식을 먹는데 우유와 팥을 넣고 끓인 수프로 우리나라 팥죽과 비슷하며, 약간의 향신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으깬 아랍식 빵(인도식 빵 ‘난’과 비슷함)을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기버터(Ghee), 뜨거운 우유와 곁들여 먹거나 기버터, 설탕, 당밀 또는 꿀을 바른 아랍식 빵을 먹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모는 매운 음식, 탄산음료, 조미료, 소스, 가공육, 화학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차가운 음식, 덜 익힌 음식, 차가운 우유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따뜻한 우유는 산성도를 유발한다고 하여 섭취를 피한다. 반면, 단백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과 통곡물 식품, 야채를 권장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에 따라 신생아의 오른쪽 귀에 기도하라는 신호를 선포하고 왼쪽 귀에 기도를 하며, 알라께서 그에게 축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누에고치처럼 보이도록 큰 천으로 감싸고, 같은 천으로 만든 밧줄로 작은 몸을 조여주는데, 이는 아이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이 곧게 펴진다는 아랍인들의 믿음에 따른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만즈’라고 불리는 종려나무 잎과 막대기로 만든 흔들 침대에 눕혀 엄마가 서지 않고도 아이를 안고 쉽게 눕힐 수 있도록 바닥과 가까운 낮은 높이로 만들어 아기가 울 때마다 흔들 수 있도록 한다.

‘아끼까’는 이슬람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의 하나로써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양을 잡아 출생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면서 신생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이름을 지어주는 의식이다. 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예전에는 주로 코란에서 이름을 골랐다. 또한 머리카락 양만큼의 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선을 베푼다.

갓 출산한 여자는 산후조리 기간 동안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갓 결혼한 여자를 만나는 일, 장례식에 가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장례식을 다녀온 여자나 결혼 예복을 입은 여자도 각각 상복이나 장신구를 세탁하고 벗기 전에 산모가 있는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전통적으로 아랍인들은 이를 어기게 되면 출산 후 고열이 발생하여 산모가 불임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또한 아랍 여성들은 출산 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외하고 아기의 성별을 숨기거나, 아끼까가 끝난 후에도 몇 달 동안 아기의 머리카락을 계속 깎아준다.

UAE에서는 병원에서 출산 후 퇴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이에 따라

조산사 및 가정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출산 후 6주 이내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와 간호사의 가정 방문을 통하여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다. 출산한지 6주 이후는 UAE에서 아이가 있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고용하고 있는 보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보살핀다.

2) 산후조리 제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산모를 위한 심리 상담과 건강 관련 검사로 구성된 서비스 패키지와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출산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서비스 패키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산후 관리와 신생아 교육,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모유 수유 및 그룹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2019년 연방법 제7조 Concerning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¹⁹⁾을 근거로 한다. 이 패키지는 UAE 국적을 갖고 있거나 거주하는 산모에게만 제공되며, 출산 후 6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30~60분 동안 진행되고,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패키지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출산에 대한 비용은 의사와 병원에 따라 AED 7,000~20,000(한화 약 255만~727만원, 제왕절개는 AED 16,000~35,000(581만~1272만원), 산전·산후 관리 비용은 각각 AED 2,500~5,000(한화 약 91만~182만원)이 든다²⁰⁾.

출산휴가 제도는 Federal Decree Law No. 49 of 2022 on Human Resources law in the Federal Government²¹⁾의 Article 19와 Article 20을 근거로 한다. 법령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으로 인한 부재에도 기존 직책이 유지되며 3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3개월 후에 업무를 재개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 시간 전이나 후에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출산일부터 6개월 동안에 총 5일 동안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 아부다비 정부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2016년 인적자원에 관한 법령 제6호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3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모유 수유 직원은 출산일로부터 1년간 근무시간 시작 또는 마감 시간에 맞추어 하루 2시간을 수유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3일 유급으로 부여된다.

19) https://mohap.gov.ae/app_content/legislations/pup-law-en-96/files/basic-html/page1.html

20) <https://www.linkedin.com/pulse/pregnancy-childbirth-dubai-laws-rights-healthcare-relocate-mena>

21)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jobs/working-in-uae-government-sector/maternity-and-paternity-leave#:~:text=Female%20employees%20are%20entitled%20to%20three%20months%20of%20fully%2Dpaid,to%20three%20days%20paternity%20leave>

나) 두바이 정부의 출산 휴가

2017년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관한 법령 제14호는 두바이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3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전부터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120일간 출산 휴가 및 정기 휴가, 무급 휴가를 병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년간 모유 수유를 위해 유급으로 하루 2시간 근무 중 외출이 가능하며, 단, 라마단 달 기간은 모유 수유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만 모유 수유 외출 시간을 허용한다. 2018년 두바이 정부 인적자원에 관한 법령 제8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을 한 직원에게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근무일 기준 3일 동안 유급 출산 휴가가 부여된다.

임신 24주 이전에 태아를 유산한 근로자, 사산아를 출산하거나 임신 24주차 이후 태아를 유산한 경우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관할 당국이 승인한 의료 진단서에 따라 결정된다.

다) 샤르자 정부의 출산 휴가

연합 최고위원회 위원이자 샤르자의 통치자인 셰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Sheikh Dr. Sultan bin Muhammad Al Qasimi) 박사는 출산 휴가를 3개월 동안 연장하는 지방 법령을 승인했다. 3개월간 유급 출산 휴가가 부여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하루 2시간 모유 수유를 위한 근무 중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두어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양육지원 및 보육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라스 알 카이마 정부의 출산 휴가

2016년 11월 라스 알 카이마 정부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3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2015년부터 출산한 여성의 모유 수유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마) 산후조리 교육

산후조리 교육은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의 출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만 단계, 출산 과정, 대처 및 통증 관리 전략, 그리고 분만 중에 파트너가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후 관리, 아기 안전 유지, 심폐소생술 실시, 모유 수유 및 지원 그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별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경험이 풍부한 조산사와 보건 관련 교육자가 수업을 진행하며, 가장 인기 있는 코스로는 Babies and Beyond, Healthbay Polyclinic 등이 있다. 수강료는 커플당 1,800AED(65만원)부터 시작되며, 수업은 아랍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3) 출산

UAE 여성들은 보통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며, 현대에서 가정에서의 출산은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로 분만하며, 수중 분만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 있지만 극히 드물다.

특히,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있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산부인과 전문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 첨단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간호사와 조산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24시간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바이의 경우 다문화 도시(토후국)로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은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랍어, 영어 및 기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국어 통번역 직원도 배치하고 있다. 임산부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출산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수중 분만과 같은 자연 분만 옵션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병원에서는 경막외 마취 및 제왕절개와 같은 보다 전통적인 출산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 비용은 제공되는 병원과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산전 관리, 출산, 산후조리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한다. 현지인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회사를 통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UAE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이 의무적이므로 결혼 후 임신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결혼 후에는 임신 및 출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산전 및 산후 관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약 20,000AED(730만원)에서 30,000AED(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의 출산 비용은 자연분만의 경우 대략 5,500~15,000AED(200만원~550만원), 제왕절개의 경우 8,000~16,000AED(290만원~580만원) 정도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계 병원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4일 정도 입원한 경우 28,000AED(1,000만원) 선이다. 다만, 출산 패키지의 범위에 따라 가격은 매우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보통 자연분만의 경우 2일, 제왕절개의 경우 4일 입원한다.

UAE의 산부인과 출산 비용은 산모들의 출산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병원의 출산 비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7-1] UAE 산부인과



자료: Medcare Hospitals

<표 IV-7-2> UAE 병원별 출산 비용

병원명	출산 평균 비용 AED(한화)	소재지
Emirates Specialty Hospital	자연분만 : 15,000(55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23,000(830만원)	
Al Zahra Hospital Dubai	자연분만 : 8,900(32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17,999(650만원)	
Mediclinic Hospital	자연분만 : 13,840(503만원)	두바이/아부다비,알아인
	제왕절개 : 27,135(990만원)	
Danat Al Emarat Hospital for Women & Children	자연분만 : 25,000(900만원)	아부다비
	제왕절개 : 35,000(1300만원)	
Medcare Hospitals	자연분만 : 6,999(250만원)	두바이, 샤르자
	제왕절개 : 14,500(530만원)	
NMC Specialty Hospital	자연분만 : 7,000(260만원)	아부다비/ 두바이
	제왕절개 : 11,500(420만원)	
Iranian Hospital	자연분만 : 6,000(22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10,000(360만원)	
Latifa Women and Children Hospital	산모가 선택한 출산 패키지에 따라 비용 및 서비스 차이	두바이
Saudi German Hospital	자연분만 : 7,000(25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14,000(500만원)	
Saudi German Hospital	자연분만 : 5,250(190만원)	아즈만
	제왕절개 : 8,000(290만원)	

병원명	출산 평균 비용 AED(한화)	소재지
Canadian Specialist Hospital	자연분만 : 8,500(31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18,000(650만원)	
American Hospital	자연분만 : 15,000(55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28,000(1000만원)	
Burjeel Specialty Hospital	자연분만 : 5,500(200만원)	샤르자
	제왕절개 : 10,000(360만원)	
Amina Hospital	자연분만 : 5,500(200만원)	아즈만
	제왕절개 : 7,999(290만원)	
Zulekha Hospital	자연분만 : 7,000(25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11,000(400만원)	
Sheikh Khalifa Hospital - Women and Children	자연분만 : 8,000(290만원)	아즈만
	제왕절개 : 16,000(580만원)	
International Modern Hospital	자연분만 : 5,500(200만원)	두바이
	제왕절개 : 10,000(360만원)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UAE에서는 산후조리 서비스 수준이 서구의 평균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최근 산부인과 병원이 아기와 산모를 위한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소속의 조산사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산모가 별도로 가정에서 근무하는 산후 조산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Emirates Health Service에서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출산 후 6주 동안 건강관리와 산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절차는 디지털 서비스에 등록 후 사전 예약을 통해 1차 진료센터를 방문하고 의사에게 검진을 받은 후 관련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 및 처방을 받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후국의 시민이거나 UAE 거주자여야 하며, 출산 후 6주 이내의 여성에게만 제공된다. 서비스 요금은 승인된 가격 패키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패키지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는 발행된 규정과 시행된 절차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킹스 칼리지 병원(King's College Hospital London, 두바이 소재)은 산모가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숙련된 조산사가 주도하는 가정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후 및 신생아 검진 또한 집에서 편안하게 진행된다. 출산 후 홈 케어 패키지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조산사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1회 60분가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 케어 패키지는 3, 5, 10일 패키지(배치 후 14일 이내에 완료 예정)가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에는 감염의 징후 및 증상(있는 경우), 산모의 산후 검진, 신생아 검진,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관리, 안전한 수면관리, 상처 관리(있는 경우), 회음부 관리(있는 경우), 골반저 운동, 영양

에 관한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한다. 세 번째 날에는 출산 후 최종 산모 검진, 최종 신생아 검사, 체중 및 영양 평가, 피임, 제왕절개 후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Emirates Home Nursing은 임산부와 산모를 위해 임신 전, 임신 후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에는 임신 중 지침 제공, 출산 전후 산모 지원 계획 개발, 미숙아 및 유아 돌보기, 모유 수유 및 유아 마사지에 대한 조언 제공, 유아와 함께 민감한 첫 몇 주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강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산후조리원과 유사하게 호텔과 결합한 Postnatal retreat가 2023년 11월에 처음 개원하였다. Blissful Beginnings²²⁾ 산후조리원에서는 정서적 지원, 건강 지원, 신생아 영양 상담과 모유 수유 지원, 신생아 육아 지원 등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과 다르게 호텔 객실 중에 산후조리를 위한 전용 객실이 마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 1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

〈표 IV-7-3〉 UAE Blissful Beginnings Postnatal Retreat 산후 0~6개월 이용항목

이용항목	세부항목	단위	요금
Premium Pac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아기를 위한 프라이빗 케어 • 부모 상담 • 어머니를 위한 건강 지원 • 신생아 육아 지원 • 수유 방법 지원 • 체험형 육아 방법 교육 • 가정으로 복귀 시 필요한 팁 제공 • 30분 무료 사진 촬영 	최소 3박 이상	VIP Retreat (Luxury Mandarin Oriental Jumeira, Dubai) 1박 AED 5,500 이상 (한화 약 200만원) Deluxe Retreat (Park Hyatt, Deira) 1박 AED 3,500 이상 (한화 약 127만원)
Deluxe Pac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아기를 위한 프라이빗 케어 • 부모 상담 • 어머니를 위한 운동과 휴식 제공* • 어머니를 위한 건강 지원 • 신생아 육아 지원 • 수유 방법 지원 • 체험형 육아 방법 교육 • 가정으로 복귀 시 필요한 팁 제공 • 30분 무료 사진 촬영 		
Exclusive pac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아기를 위한 프라이빗 케어 • 부모 상담 • 어머니를 위한 운동과 휴식 제공* • 어머니를 위한 건강 지원 • 어머니를 위한 영양 상담* • 신생아 육아 지원 • 수유 방법 지원 • 체험형 육아 방법 교육 • 가정으로 복귀 시 필요한 팁 제공 • 30분 무료 사진 촬영 		

22) <https://blissfulbeginnings.ae/>

UAE 통계청에 따르면, UAE 인구는 2024년 현재 959만 1,853명이며, 총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은 11.5% 수준이다. UAE 국민은 대부분 공공 분야에 근무하며, 민간 분야 종사자는 2만 명 미만이다.

고소득자들이 모인 UAE의 경우 약 200여개 국적의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대부분 내니를 고용하거나 일부는 육아시설에 아이를 맡긴다. 그러나 UAE에서 내니를 고용하는 평균 비용은 지난해 연 1만7500달러(약 2330만원)에 달했고 경력 유무, 언어 구사 능력, 국적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UAE에서 실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UAE 어린이의 95%가 내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모의 경력에 따른 평균 급여는 다음과 같다.

〈표 IV-7-4〉 UAE 보모 이용 금액

경력 기간	평균 급여AED(한화)
경력이 없거나 2명의 내니를 고용한 경우	4,000(150만원)
2~5년	6,000(220만원)
5~10년	8,000(290만원)
15년	9,000(330만원)
15~20년	10,000(360만원)
20년 이상	11,000(400만원)

8. 인도네시아

가.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지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로 선출한 의회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입헌 공화국이다.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1.32 조 달러(Trillion US \$)에 달하며 도시근로자에 한해 연 평균 가구소득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평균 51,000 (US \$), 엔지니어 종사자 23,000 (US \$), 판매종사자 20,000 (US \$) 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57.9%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인도네시아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혼재되어 있으며 의료인프라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으나 공공의 영역이 더 넓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2.2이며,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7.1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Labour law (law no. 13 of 2003 concerning manpower)」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3개월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가족 구성은 핵가족 형태이나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표 IV-8-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인도네시아	
체계	정치제도		입헌 공화국	
경제적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1.19 (Trillion US \$)	
		2022년	1.32 (Tr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4,788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0.95 (Trillion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	tech 종사자 임금 \$51,000 엔지니어종사자임금\$23,000 sales종사자임금\$20,000	
	도시화 노동환경	도시거주 인구비율 주당 근무시간 (시간) 최저 시급	57.9% 40 IDR 29,000/ \$1.86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공적보험, 민간보험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민간	
출산/사망	합계출산률 (Fertility rate)	2021년	2.2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173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17.12	
	피임방법		경구피임약)자궁내장치	
	결혼 연령 (평균)	남성/여성	27.1/22.4	
	출생아 성비	2022년	1	
	기대여명	2019년	71.3	
	예방접종률	BCG		93.0%
		B형간염		86.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85.0%
	IPV (폴리오)		86.0%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제왕절개	12.3%	
	분만 비율	제왕절개(2007-2012년)	18.5%	
		제왕절개(2017년)	18.5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51.0%	
		혼합수유	48.6%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Labour law (law no. 13 of 2003 concerning manpower)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3개월	
분만휴가 특성		유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2일 유급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가족정책 주도성			
	현금성 지원		-	
	서비스 지원		자녀 건강 서비스 (정기건강검진 등), 개입이 필요한 임신부 혹은 영양실조 영양을 위한 보조식품 지원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	
	세대 간 돌봄 특성		조부모 육아가 흔함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국가독점시스템	
식생활 특성	주식		쌀	

나. 인도네시아 산후조리 문화 및 제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산후조리와 마찬가지로 친정이나 시부모님, 혹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편이다. 출산 후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40일 동안 외출할 수 없다. 산후조리 기간에는 야채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 받도록 안내 받는다. 산모의 복부를 조일 수 있도록 코르셋을 입는다.

인도네시아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의료기관 이외의 별도 시설이 있기보다는 소규모 의료기관(Clinic)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공 또는 민간 시설 모두 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후조리 기간에는 위생,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 산모 음식 관리, 신체활동 등을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지며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산모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 산후조리 기간에 특별히 섭취하는 음식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임신기간 중에 쌀, 바나나, 두리안, 설탕 등의 음식이 금기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일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산모의 수유교육을 돕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한 직장 여성의 경우 3개월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히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없고 산후조리원 신생아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가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병원에서 일부 산후관리 기관이 있는데 숙박하는 형태는 아니고 정신과 의사 상담이나 피부 관리를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뷰티클리닉과 비슷한 형태이고 한국과 같은 산후조리원은 아니다. 병원과 협력하는 시설은 아니고 산부인과와 협력사례는 없지만 인도네시아 법규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드라마로 인해 한국인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 선호도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지 조사원의 의견을 종합보면 서비스 가격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산층에 산후조리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타겟층은 고소득 계층으로 잡아야하며 충분히 인도네시아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Köhler, R., Sae-tan, S., Lambert, C., & Biesalski, H. K. (2018). Plant-based food taboos in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period in Southeast Asia—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Nutrition & Food Science*, 48(6), 949-961.

9. 유럽

가. 주요 국가 모자 보건 및 산후조리 관련 제도

1) 독일²⁴⁾

독일의 정치제도는 연방제와 의원내각제에 기반하며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4.08 일조 달러 (Trillion US \$)에 달하며 연평균 가구소득은 2019년 기준 38,971 (US \$)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77.6%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7시간이다.

독일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인프라는 민간보다는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58이다.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3.031이며 임신에 따른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30.9%를 차지한다. 모유수유 비율은 출산 후 3개월 시점에 45.3%, 6개월 시점에 25.4%를 보인다.

분만이나 산후 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The Maternity Protection Act (Mutterschutzgesetz-MuSchG)」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1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분만휴가가 유급으로 10일 지급된다.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가족 구성의 특성 상 자녀 양육은 주로 부모가 도맡아서 한다.

〈표 IV-9-1〉 독일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독일
세계	정치제도		연방제, 의원내각제
경제적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4.28 (Trillion US \$)
		2022년	4.08 (Tr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48,432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19년	38,971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40,729~56,315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77.6%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시간)	34.7
	최저 시급(2022년)	12 (€)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공적보험, 민간보험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민간
	의료인력 규모	2021년	산부인과 의사수 21,688명

24) 본 절은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77~78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 가져왔음

대분류	중분류	구분	독일
출산 및 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58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4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3.031
	피임방법		먹는 피임약>월경주기법>콘돔>호르몬 방출 자궁내피임장치
	결혼 연령 (평균) (2022년)	남성/ 여성, (2022년)	35.1/ 32.6
	출생아 성비	2022년	1.05
	기대여명	2021년	80.7%
	예방접종률	B형간염	87.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 (폴리오)	91.0% 98.0%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출산병원 따로 존재
	분만 비율	제왕절개 비율	30.9%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혼합수유	3개월 지속 45.3%, 6개월 지속 25.4% 6개월 때 58.2%, 12개월 때 37.6%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The Maternity Protection Act [Mutterschutzgesetz - MuSchG]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4주, 유급
	분만휴가 특성		유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0일, 유급
출산지원정책 (가족정책 포함)	현금성 지원		양육비 지급 지원 환급 금액 증가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교사 전문 인력 강화, 체육활동 참여 격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법안 초안 발의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
	세대 간 돌봄 특성		주로 부모의 양육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하이쥔(Heizung)
식생활 특성	주식		스튜, 스프, 죽

독일의 20세 이상 여성은 매년 부인과 의사를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면 공공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제도가 검진에 대해서 지원한다. 독일은 산과와 부인과가 분리되어 있다. 산전 검진은 주로 부인과 의사가 실시한다. 독일에서 임신기간 동안 모성건강과 출산준비를 위해 연락하는 곳은 조산사와 지역보건의(GP), 산과 의사이다. 주로 임부는 주로 조산사를 통해 검진과 출산과 관련된 예약을 할 수 있고, 출산 예약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보건전문가는 아기의 건강상태, 검진기록, 진료 예약들이 기록되어 있는 임부의 진찰기록증명서(Mutterpass, 산모수첩과 유사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출산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임산부는 4주마다 부인과 의사와 만나 검진 받으며, 독일의 표준

건강보험은 세 번의 초음파 검사까지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임산부가 병원 또는 조산소, 집에서 등에서 출산하며 건강보험은 어디에서 출산하든 보장받을 수 있다. 조산소나 집에서 출산할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

독일에서 임산부는 둘라(Doulas, 출산도우미)를 통해 임신 중과 출산 이후에 출산 후 관리와 회복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 둘라는 간호사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임신과 관련된 정서적 지원에 중점을 둔 전문가이다. GfG(Gesellschaft für Geburtsvorbereitung: 출산준비위원회) Doula라는 기관에서 200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 임산부는 25주까지 출산 준비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출산에 필요한 호흡법 등을 병원이나 적십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조산사가 출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조산사가 출산 후 10일까지 매일 방문하며 산후 8주째가 끝날 때 까지 2~3일에 한번 씩 방문한다. 조산사는 모유수유, 목욕, 기저귀, 산후회복과 같은 전반적인 산모 상태를 점검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육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독일에서는 법에 8주간 산모가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기간을 독일에서는 Wochenbett (산욕기)라고 부른다.

조산사는 정기적으로 신생아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땀줄과 배꼽관리, 기저귀 관리, 병원 검진 권고 등을 관리한다. 또한 산후우울증도 관리한다. 이러한 조산사 서비스가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건강보험 재원 문제로 인해 조산사의 처우가 좋지 못해 조산사 인력의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⁵⁾.

2) 네덜란드²⁶⁾

네덜란드의 정치제도는 입헌군주제에 기반하며 2022년 기준 GDP 수준은 1.01 일조 달러 (Trillion US \$)에 달하며 연평균 가구소득은 2019년 기준 34,984 (US \$)에 이른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92.9%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4시간이다.

네덜란드의 의료이용에 따른 지불제도는 사회민간보험이 주축을 이루며 의료인프라는 민간보다는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55이다.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3.504이며 임신에 따른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16.2%를 차지한다. 모유수유 비율은 출산 후 4개월 시점에 33.0%보인다.

분만이나 산후휴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benefit (WAZO, Work and Care Act)」가 있으며 분만에 따른 16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25) The Guardian. Why are Germany's midwives feeling squeezed out?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womens-blog/2017/nov/23/why-are-germanys-midwives-feeling-squeezed-out> (2022.9.20. 인출)

26) 본 절은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80~81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 가져왔음

이와 더불어 배우자분만휴가가 유급으로 7일 지급된다. 자녀 돌봄은 핵가족 구성의 특성 상 자녀 양육은 주로 부모가 도맡아서 한다.

〈표 IV-9-2〉 네덜란드의 정치·경제 및 임신·출산 관련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네덜란드	
체계	정치제도		입헌군주제	
경제적수준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1년	1.03 (Trillion US \$)	
		2022년	1.01 (Trillion US \$)	
	1인당 GDP	2022년	55,985 (US \$)	
	연평균 가구소득	2019년	34,984 (US \$)	
	도시근로자 연평균 가구소득	2023년	39,000~52,000 (€)	
	도시화	도시거주 인구비율	92.9%	
	노동환경	주당 근무시간 최저 시급(2022년)	32.4 (시간) 11.51~12.79 (€)	
의료 및 보건환경	의료이용 지불제도		사회민간보험	
	의료인프라 특성		공공)민간	
	의료인력 규모	2019년	산부인과 의사수 4,010명	
출산 및 사망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	2021년	1.55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2021년	4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2021년	3.504	
	피임방법		지속형 가역적 피임법)먹는 피임약	
	결혼 연령 (평균)	남성/ 여성, (2022년)	39.1/ 36.4	
	출생아 성비	2022년	1.05	
	기대여명	2021년	81.7	
	예방접종률		B형간염	88.0%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93.0%
		IPV (폴리오)	97.0%	
분만 및 산후조리 특성	분만장소 관련 특성		집 또는 병원	
	분만 비율	제왕절개	16.2%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33.0% (4개월 때)	
	분만휴가, 산후휴가	근거 법령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benefit (WAZO, Work and Care Act)	
	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16주	
	분만휴가 특성		유급	
	배우자분만휴가 여부 및 기간		7일(추가 5주 가능), 유급	
가족문화 및 지역사회 특성	가족구성 특성		핵가족	
	세대 간 돌봄 특성		주로 부모의 양육	
주택 특성	전기 및 난방 시스템 특성		보일러 난방시스템	

네덜란드의 독특한 특징은 가정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8명 중에 1명은 가정에서 출산하고 선진국 중에 가장 가정 출산율이 높은 국가이다. 네덜란드인들은 출산을 의학적 상태가 아닌 자연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임신부는 조산사와 주로 상호작용을 하며, 특정한 한명의 전문 조산사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임신 기간 동안 매번 다른 조산사를 만나 상담할 수 있다. 예비부모는 최대 10일까지 모성 간호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주로 간호사는 임신 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언과 지원, 일상적인 집안일을 돕는다.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임신 확인 후 지역보건(GP)나 부인과 의사를 통해 검진 받는다. 임신부는 조산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왕립 조산사 기구(KNOV - Koninklijke Nederlandse Organisatie van Verloskundigen)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조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네덜란드 공공의료보험은 낙태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한다. 추가로 혜택을 받길 원하거나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통 임신 3개월 후 조산사를 만나 상담한다. 가정 출산을 진행할지 병원에서 출산할지에 대해서 상담한다. 가정출산을 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조산사는 식단관리, 산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에 4주 간격으로 검진하다가 출산일이 임박하면 2주 간격으로 임신부를 검진한다. 추가로 임신부가 36세 이상이거나 이전에 선천적 결함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가족 중에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출산에 대한 산전관리를 위한 강의를 수강하기도 많고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곳이 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출산 후 병원에 오래 있지 않고 퇴원 시기가 빠르다. 4시간 안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출산 후 산모에게 출산 아동에 대한 성장수첩(Het Groeiboek)을 제공하여 아동의 예방접종 및 기타 중요한 의료정보를 산모가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출산 후 산후관리 전문 간호사(Kraamzorg)가 매일 집에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한다. 비용은 모두 공공의료보험에서 지원한다. 산후관리 전문 간호사는 출산 후 집안일부터 식료품 구입, 산후조리에 대한 정보제공까지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간호사를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후관리전문간호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신 12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장과 건강정보가 기록된 책을 수령하고 기록된 내용에 맞춰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받는다.

3) 영국

영국의 총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67백만명으로 2012년에 약 63백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1백만 명이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율은 2012년에 0.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는 점차 증가

율이 줄어들어 2023년에는 0.34%이다.

〈표 IV-9-3〉 2012~2017년 영국의 총 인구와 연간 인구 증가율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인구	63,808,727	64,302,297	64,773,504	65,224,364	65,655,203	66,064,804
인구 증가율	0.83	0.77	0.73	0.7	0.66	0.62

자료: Worldmeter

〈표 IV-9-4〉 2018~2023년 영국의 인구 수와 연간 인구 증가율

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인구	66,432,993	66,778,659	67,059,474	67,281,039	67,508,936	67,736,802
인구 증가율	0.56	0.52	0.42	0.33	0.34	0.34

자료: Worldmeter

영국의 총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영국에서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인구에 비해 이민자가 유입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가 약 34만 5천명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보다 15만 3천명이 더 많았다. 다른 해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보다 이민자 수가 더 많다.

한편, 영국 인구의 자연적인 변화 수와 합계출산율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인구의 자연적인 변화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연령별 인구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9-5〉 2012~2016년 이민자 수와 자연적인 인구변화 수, 합계출산율

단위: 천만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이민자 수	165.5	188.5	264.9	341.4	345.2
자연적인 변화*	254.4	212.1	226.2	171.8	192.8
합계 출산율	1.92	1.83	1.81	1.80	1.79

* 자연적인 변화는 출생아 수 - 사망자 수를 의미함.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UK), Statista 2024

〈표 IV-9-6〉 2017~2020년 이민자 수와 자연적인 인구변화 수, 합계출산율

단위: 천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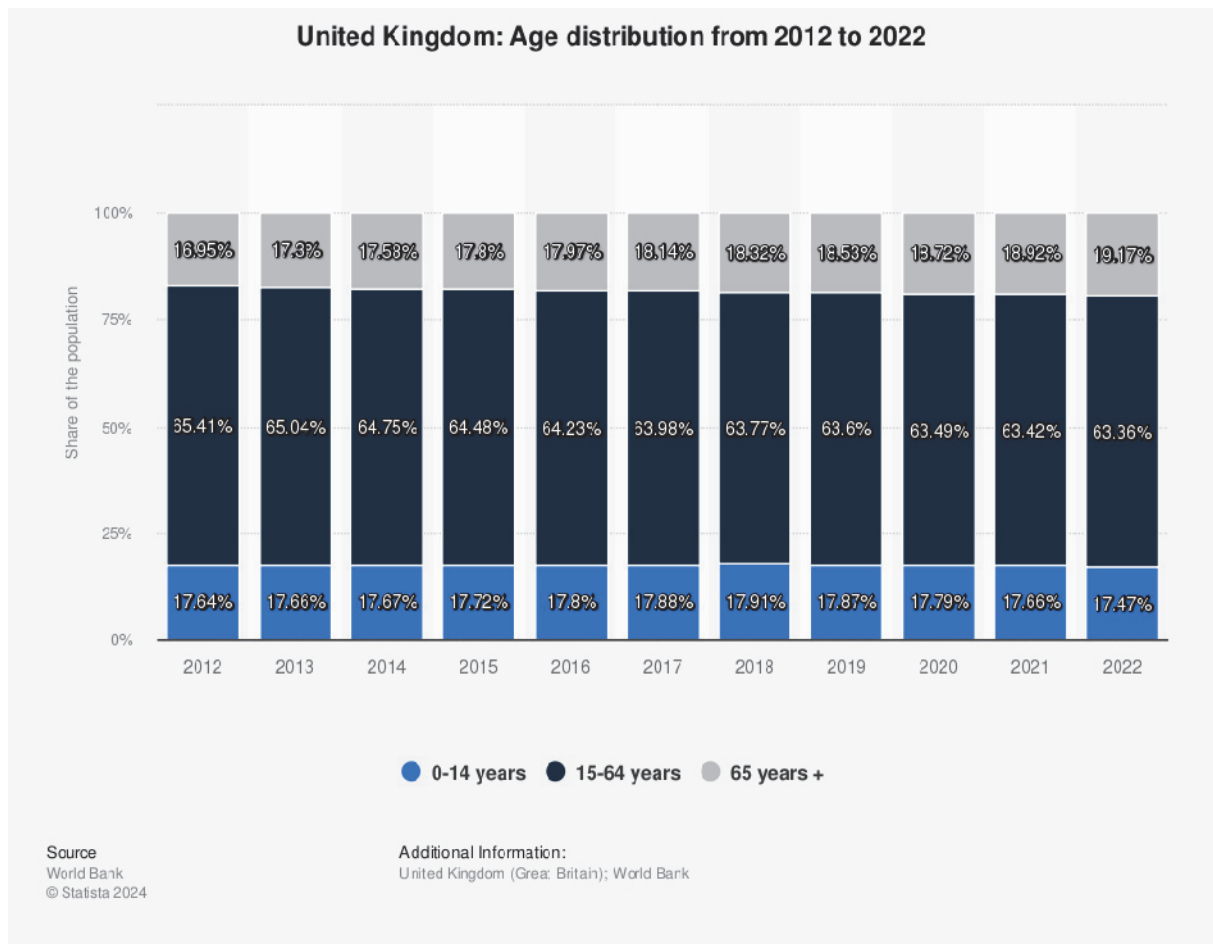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이민자 수	232.4	274.3	233.0	252.9
자연적인 변화*	159.8	121.0	128.3	31.4
합계 출산율	1.74	1.68	1.63	1.56

주: *자연적인 변화는 출생아 수 - 사망자 수를 의미함.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UK), Statista 2024

연령별 인구수를 살펴보았을 때, 2022년 0~1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6%로 2012년에 비해 0.17%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 중 19.17%를 차지하며 출생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부터 0~14세 인구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5년에는 0.08%가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1.7%로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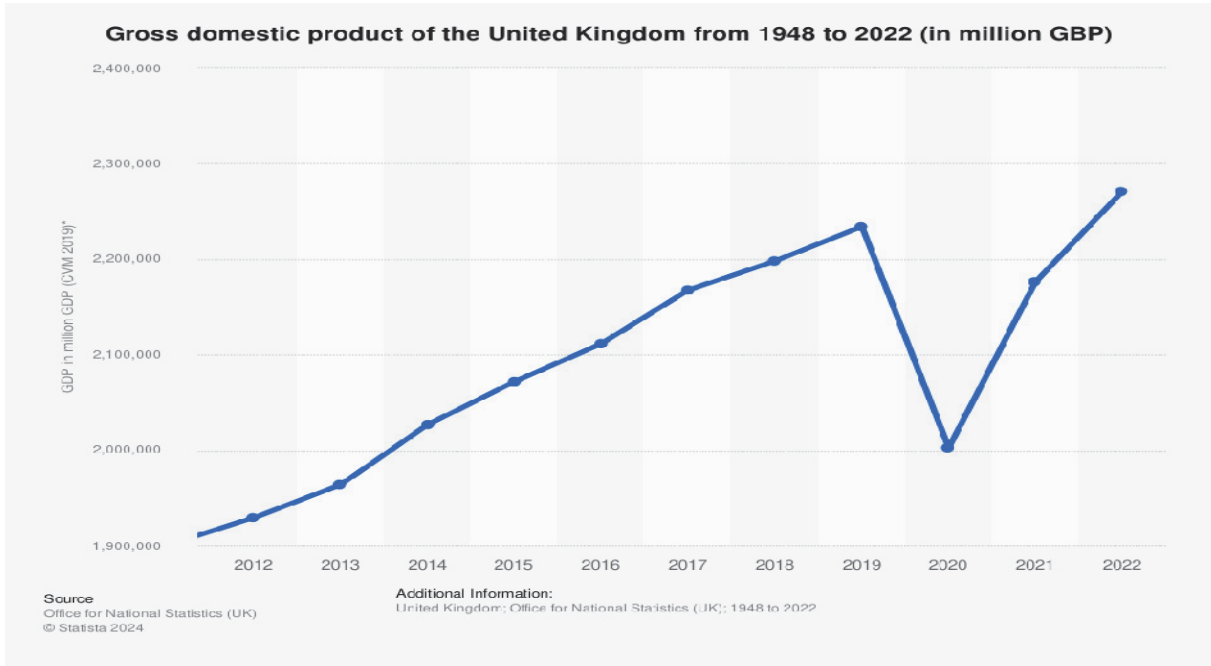
[그림 IV-9-1] 2012~2022년 영국의 연령별 인구율



자료: Statista 2024.

합계출산률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국 GDP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9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상에 의한 감소를 보인다. 그리고 다시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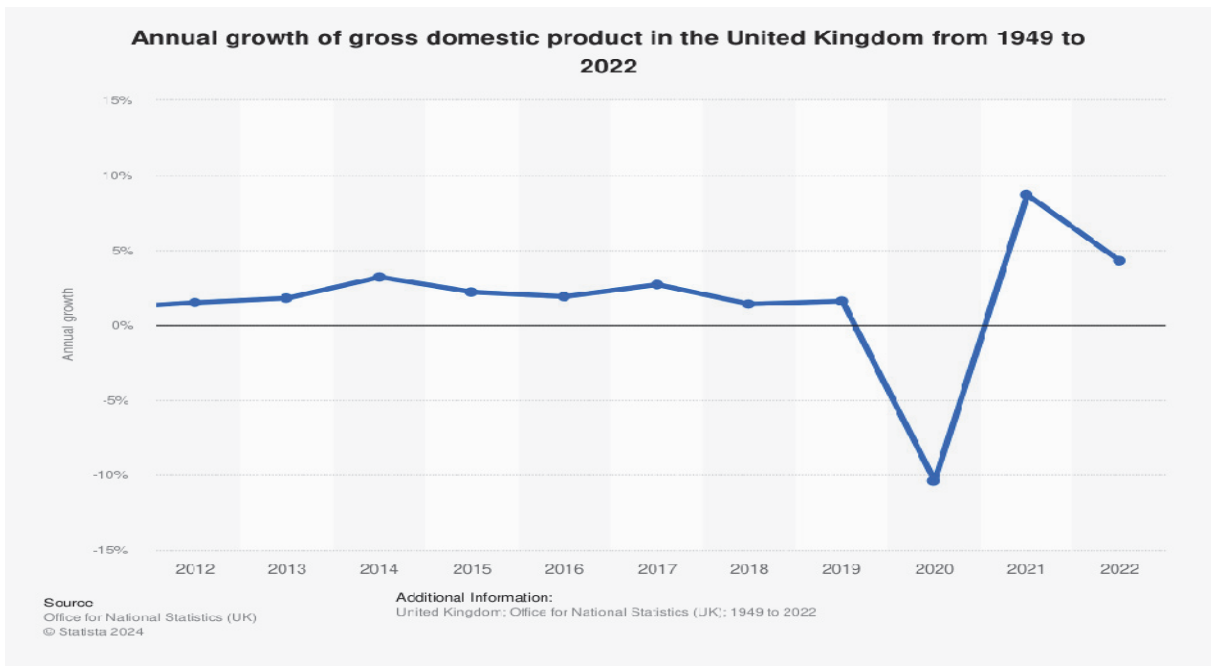
[그림 IV-9-2] 2012~2022년 영국의 국내 총생산



자료: Statista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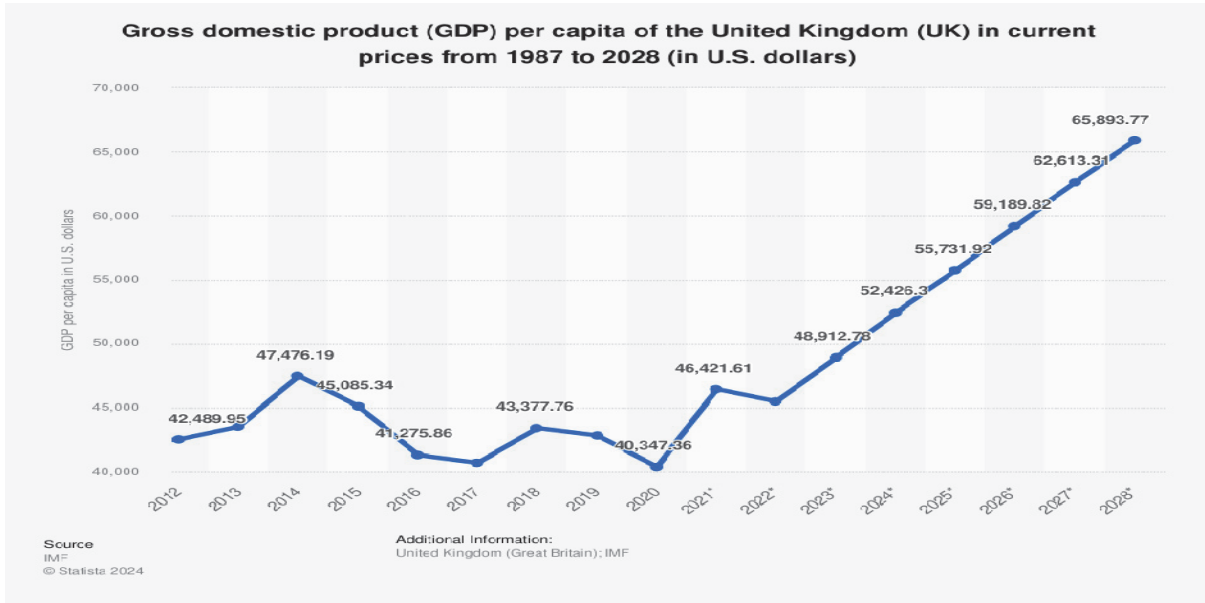
영국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1~3% 정도 성장을 이어오다 2019년~2020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다, 2022년 4%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IV-9-3] 2012~2022년 영국의 연간 GDP 성장률



자료: Statista 2024.

[그림 IV-9-4] 2012~2022년 영국의 1인당 GDP



자료: Statista 2024.

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 현황

1) 영국·프랑스 산후조리를 위한 휴양 시설

영국에는 산모와 18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한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 시설이 있다. 영국의 산후조리 유사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모들이 겪는 신체적 불편함과 처음 아이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어머니로서의 감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며 설립되었다. 따라서 의료적인 서비스 보다는 출산 후 산모의 심신 안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산후 관리의 서비스가 추가된 휴양 시설로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의 특징은 영국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프랑스 전원에 있는 저택에서 숙식하고,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본 서비스에는 신생아 케어, 식사, 마사지 등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추가로 산모의 심신 안정을 위한 개인 pt 수업이 제공된다.

[그림 IV-9-5] 영국 산후조리원 유사 서비스 사례(& Breath Prenatal care service)



자료: Andbreathwellbeing Homepage(<https://andbreathwellbeing.com/>).

〈표 IV-9-7〉 영국 & Breath Prenatal Postnatal Retreat 이용항목

이용항목	세부항목	단위	요금
가족과 함께하는 산후관리 서비스	어머니 1일 2회 pt 수업	6박 7일 기준	성인 1인당 £1250 (3인 가족 기준) (한화 약 210만원)
	아버지 케어(daily fit care)		
	아버지 육아 교육(어머니 휴식)		
	성인 1:1 pt 상담		
	성인 1회 마사지		
	주간 4시간과 1일 저녁 보모 케어(추가 이용 가능)		성인 1인당 £1475 (4인 가족 기준) (한화 약 250만원)
	어린이 케어 서비스		
	식사(간식과 와인 포함)		
	매점 이용 가능		
	숙박 시설 및 사유지 이용		
	청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pt 계획 상담		
	교육(육아 관련 팁과 노하우 제공)		
다른 서비스 할인	*어린이 무료		

2) 네덜란드 kraamhotel

네덜란드의 kraamhotel은 조산원과 호텔서비스를 결합한 시설이다. 병원 분만실뿐만 아니라 집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kraamhotel을 선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산원과 동일하지만,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raamhotel에서는 출산 후 최대 8일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24시간 동안 간병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방문과 모유 수유지원도 실시한다. kraamhotel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어 이후 사후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림 IV-9-6] kraamhotel 시설



출처: <https://www.ed.nl/eindhoven/is-het-kraamhotel-een-blijvertje-wat-zijn-jouw-ervaringen~a0a5fab2/?referrer=https%3A%2F%2F>

10. 기타 국가

가. 대만

대만은 산후조리원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국가이다. 대만 위생복지부(2022)에서 발표한 Annual Report of Medical Care Institution & Hospital Utilization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270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다²⁷⁾.

대만의 산후조리 비용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다. 북부지역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28일 기준 720만원 이상이며 다음으로 중부지역 660만원 이상, 남부지역 480만원 이상, 동부지역 360만원 이상이다.

〈표 IV-10-1〉 대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역	구분	1일 기준 가격	14일 기준 가격	21일 기준 가격	28일 기준 가격
북부 지역	대만 달러	6,000~14,000	84,000~	126,000~	168,000~
	원화	26만원 ~ 60만원	360만원	540만원	720만원
중부 지역	대만 달러	5,500~9,500	77,000~	115,500~	154,000~
	원화	23만원~40만원	330만원	490만원	660만원
남부 지역	대만 달러	4,000~8,000	56,000~	84,000~	112,000~
	원화	17만원~34만원	240만원	360만원	480만원
동부 지역	대만 달러	3,000~5,500	42,000~	63,000~	8,4000~
	원화	13만원~24만원	180만원	270만원	360만원

자료: <https://blog.tianyiai.tw/sitting-the-month/how-to-choose-confinement-center/>(2023년 1월 30일 인출)

2022년 대만 신생아 출산 수는 138,986명이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58,993명으로 약 4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대만 위생복지부, 2022). 이는 2013년 33.1%에서 약 10% 정도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약 22.6일로 우리나라 보다 약 10일 정도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만 위생복지부, 2022).

나. 싱가포르²⁸⁾

산후 도우미 방문 서비스는 싱가포르의 주요 산후조리 모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인구의 70% 이상이 화교이며 '산후조리' 습관도 매우 보편적이다. 싱가포르 국민은 노인들이 젊은 세대를 도와 아이를 돌보는 전통이 없다. 이민자의 부모와 가족은 자녀를 따라 이민할 수 없어, 시간이 많이

27) <https://dep.mohw.gov.tw/DOS/lp-5099-113.html>

28) <https://baijiahao.baidu.com/s?id=1713120981846006574&wfr=spider&for=pc>(2024년 1월 15일 인출)의 내용을 일부 번역한 내용임

결리고 신청이 까다로운 장기 체류 허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해 제3의 기관을 찾는 부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산후조리는 한국이나 대만과 달리 일반적으로 산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해 산후 음식, 심리상담, 모유 수유 지도, 아아 돌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산후 도우미의 자격 심사는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되며,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이 있다. 산모들은 보통 출산 3~6개월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예약하며, 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예약한다. 첫 번째 방법은 주로 친구나 친척의 추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산후 도우미를 선택한다. 두 번째는 산후 도우미 중개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에는 면허를 취득하고 산후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많다. 이러한 기관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산후 도우미는 현지인 또는 말레이시아인만 가능하며, 싱가포르인 산후 도우미의 수가 적고 가격이 높다. 말레이시아인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싱가포르 인력부(MOM)를 통해 작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와 산후 도우미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산후 도우미들이 산모와 영아를 둔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산후 도우미 교육 센터가 많이 있다.

〈표 IV-10-2〉 싱가포르 산후도우미 취직 자격증 신청 요건 및 비용

고용주 요건	① 만 21세 이상 ② 취직 자격증 신청 ③ 세금 납부 ④ 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음 ⑤		
산후 도우미 요건	① 말레이시아인 ② 23세~60세 ③ 근무지: 고용주의 집		
신청관련 비용		싱가포르 국민	외국인
	하루 임금	60달러(8만원)	300달러(40만원)
	신청비용	35달러(4만 5천원)	
	건강검진(선택가능)	200달러(26만원)	
기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는 최대 16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13120981846006574&wfr=spider&for=pc>(2024년 1월 15일 인출)

싱가포르의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기관 간 차별화가 적다. 싱가포르 산모의 산후조리 시간은 보통 4주이며, 가격에서 입소문을 통해 찾은 산후 도우미의 가격은 비교적 비싸며 주로 산후 도우미의 평판에 달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3,300~4,000달러(430만원~53만원)이다. 동시에 이러한 유형의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200~300달러의 보증금(26만원~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후 도우미 중개 기관의 서비스는 대략 2,300~3,900달러(300만원~510만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산모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산후 도우미의 가격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영아 수, 집 층수, 휴일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조정된다. 예를 들어, 구정 기간이나 쌍둥이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2023년 10월의 경우에는 중국의 유명 산후조리원 체인점인 세인트벨라가 산후조리원을 싱가포르에 개설하였다²⁹⁾. 이를 신호로 하여 향후에 싱가포르에도 산후조리원 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 미얀마

미얀마는 산후조리라는 문화가 없는 국가이다. 병원이나, 산부인과에 아기를 출산하고 4,5일 정도에 퇴원하고 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다. 산모와 아기는 5일~7일 정도 산후조리와 비슷한 기간을 보내고 한 달 정도는 산모와 아이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먹지 않도록 안내 받는다. 주로 산모들이 모유나 수유에 도움이 되는 미얀마 전통 음식(응아찌)라고 하는 생선튀김과 민과악이라고 하는 참나무와 비슷한 나뭇잎으로 만든 따뜻한 국을 먹는다. 기본적으로 아기 돌봄 방법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미얀마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전혀 없다. 미얀마 대부분의 국민은 별도의 산후조리 시설이 없이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보내며 고소득층은 미얀마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여성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여 병원에서 더 머무르는 방식을 선호한다.

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출산 후 산모가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출산 후 아기를 보기 위해 손님이 자주 방문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 동안 어떻게 휴식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화와 전통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산후조리를 잘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전기와 수도, 난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안에서 여유 있게 쉼과 회복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출산 축하 지원금과 자녀 양육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지원해 주지만 한국 돈으로는 5만원 정도이고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에게 대부분 지급해 준다. 한국처럼 출산 수당, 기저귀 지원, 분유 지원, 산후조리 교육 등등은 지원하지 못한다.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기관이 없고, 가정(특히 시어머니)에 산후조리 시간을 갖긴 하지만 아기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마주 몰려와서 쉴 수가 없는 문화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형 산후조리원이 진출한다면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산 후 손님이 자주 방문하는 문화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지 문화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음식 등은 돼지고기 등 이슬람 문화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식재료 등을 제외하여 배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29) https://www.sohu.com/a/729912877_121198369(2024년 1월 15일 인출)

V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 0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사례
- 02 국제개발협력(ODA) 사례

V.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사례

가. G산후조리원

G산후조리원은 2005년 서울시 강남구에 개설한 산후조리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산후조리원 브랜드로 국내에 총 8개의 산후조리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G산후조리원은 중국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G산후조리원이 중국에 최초로 진출한 시기는 2015년도이고 KOTRA에서 개최하는 헬스케어 박람회를 통해 진출하게 되었다. 최초의 산후조리원 진출 방식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었다. 컨설팅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자문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산모·신생아 입소와 퇴소에 및 스케줄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었다. 산모의 분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입소율 관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G산후조리원의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상황으로 한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G산후조리원의 경우 중국의 우시에 운영하고 있다. 우시는 장쑤성에 있는 지역으로 상하이에서 1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600만명이 넘는 지역이다. 현재 1호점의 경우에는 합자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면적은 7,500제곱미터(2,0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50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6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4주 기준)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2호점도 동일하게 우시에서 개설 준비 중에 있다. 대만의 섬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일부 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객실은 15개 정도 규모(8층-9층)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만실이 될 경우 다른 층에도 산후조리원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산후조리원 해외진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마련이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도입된 지는 중국보다 오래되었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를 위한 대출 등을 알아보았지만 산후조리원이 제조업체처럼 많은 매출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업체로 등록되어 수출을 위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대출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지원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법률 지원이다. 합자회사 설립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때문에 법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G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중국하고 계약하는데 약 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외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숙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없지만 소방 등 시설과 관련된 내용과 감염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이외에 싱가포르에도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여 계약 문턱까지 갔었지만 코로나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직 관련하여 파트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산후조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무역부 장관과도 접촉이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출생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향후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출이 유망한 국가로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을 생각하고 있다.

본원인 한국 산후조리원에 꾸준히 외국인 산모가 입소하고는 있다. 상대적으로 G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어느 정도 높은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로 미국, 중국 산모 등이 입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 산모가 찾아온 적이 많았지만 최근 일본에도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기관이 생겨나고 있어 과거보다는 입소가 줄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에 호의적이었다. 외국인 산모의 경우는 최소 출산 이전 2~3개월 전에 한국에 입국해야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거의 반년 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산모를 유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V-1-1] 우시 'G' 산후조리원



자료: 텅션신문, 궁 홈페이지

나. D산후조리원

한국의 연예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D산후조리원은 제약회사인 H그룹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브랜드를 개설하여 해외에 진출하였다. 해외에 런칭한 산후조리원은 C산후조리원은 H그룹에게 100억원의 투자를 받아 설립하였다. 한국의 D산후조리원을 그대로 중국에 재현한 C산후조리원은 각종용품에서부터 시설 및 서비스까지 엄격하게 표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중 영유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은 다년간의 풍부한 신생아케어경험을 바탕으로 아기의 건강과 엄마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상주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퍼스널케어 진단과, 권위 있는 산부인과전문의의 회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S 고객관리팀의 세심한 산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모유수유사 자격을 갖춘 한국모유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모와의 1:1 모유수유지도를 통해 산모의 올바른 모유수유를 교육하고 있다. 특히, 고급 SPA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체형관리프로그램 등 산전, 산후의 1:1체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C산후조리원은 베이징의 JW메이아트 호텔 내에 위치해 있으며 산후조리원의 상위 법인인 C컴퍼니를 통해 중국 병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제약, 의학 쪽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향후 태국 방콕, 미국 LA, 이탈리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방콕 산후조리원은 개원이 임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모기업인 H그룹을 통해 이탈리아 종합병원과 산후관리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C컴퍼니는 산후조리 및 건강관련 직영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H그룹의 제약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산후조리원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그림 V-1-2] 중국C 산후조리원 로비 & 객실



[그림 V-1-3] 중국C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 신생아용품



[그림 V-1-4] SPA룸



자료: <http://wap.centrefomom.com/>

다. SA산후조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의 옌청시의 산후조리원을 개설한 사례이다. 합작파트너는 옌청시 부유보건원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억이었다. 참여기관은 병원 및 투자 회사 등 컨소시엄을 맺고 추진하였다. 옌청시는 약 721만명의 대도시이고 설립 당시 2015년도에는 4개의 산후조리원만 영업 중에 있었다. 옌청시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위생국의 도움을 받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후조리원 설립 예정지 내부철거 후 인테리어 시공사까지 선정을 완료하였다.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연계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난징의 따메이 산후조리원과 전략적 협약관계를 맺고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실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현재 해당 이름으로 산후조리원을 검색하였지만 검색내역이 없어 이후 추진이 불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Y산후조리원

Y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 가장 큰 산후조리원 체인이었으며 20개 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기업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전(심천) 아이베이루이언(爱贝蕊恩) 건강관리 유한공사에게 산후조리원 REPIRIUM(레피리움)의 중국 경영권 및 상표권을 판매하여,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에 진출하였다. 중국 진출명은 아이베이루이언산후조리원으로 개명하여 중국 단둥, 심양, 심천, 위해, 장춘 등 9개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한국의 사업체는 문을 닫게 되었다. 저출산, 코로나 등의 악재 등으로 국내 지점의 수익이 악화되었으며 무리한 중국의 진출과 중국과의 계약이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형태로는 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폐원하게 되었다. 국내의 지점은 다른 곳으로 인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 SN산후조리원

SN산후조리원은 고양시에 2012년에 개설한 산후조리원으로 총 18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 설립직전까지 진행되었다. 논의가 된 곳은 중국에서 호텔과 리조트, 부동산을 운영하는 J그룹으로 중국에서 2~3권에 해당하는 규모가 큰 기업이었다. 베이징의 핑구구에 위치한 저수지가 잘 보이는 곳에 호텔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계를 완성하였다.

J그룹은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를 원했으며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였다. 우선적으로 베이징 핑구구에서 호텔형 산후조리원을 성공 후 J그룹이 가지고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호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J그룹은 중국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컨설팅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받았다.

당시 한국의 상호명과 동일한 명칭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놓았으며 현재까지도 중국 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업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원 등을 이유로 해외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은 2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SN산후조리원에서 가장 희망하는 정부지원정책은 재정지원이며 해외법률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외진출 시 추진방식은 현지 사정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인과 합자회사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산후조리원 수출에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SN산후조리원의 경우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가족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던 외교관 가족들은 대부분 만족하였으며 모국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SN 산후조리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외국인은 중국인이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산모 입소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V-1-5] SN산후조리원 설치 위치 및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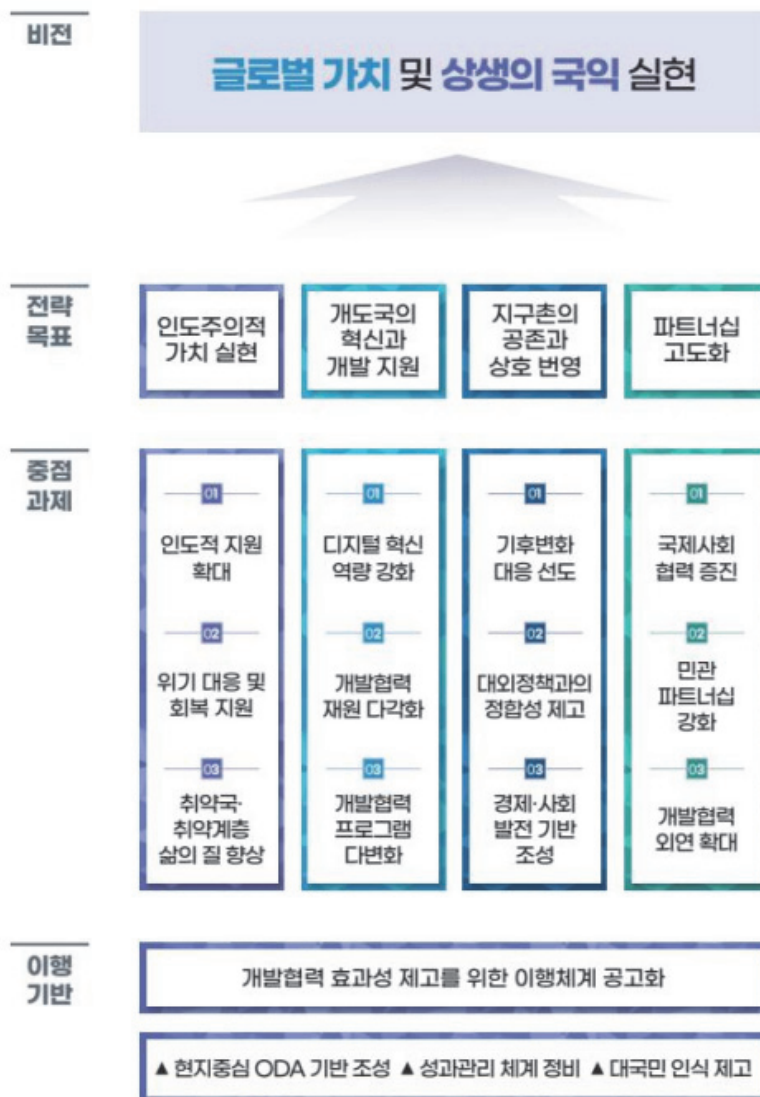
2. 국제개발협력(ODA) 사례

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및 지원 규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ODA 예산을 확대해왔으며, 2024년 중점 지원방향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집중, 대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 등이

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21).³⁰⁾ 2024년 ODA 시행계획(안)의 중점 추진사항 중, 보건위기 극복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원국 긴급 지원'에서 나아가 수원국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보건·의료 개발계획 수립부터 의료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의 지속 발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재원의 다각화를 위해 사업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ODA)와 기업(CSR·임팩트 투자 등)·시민사회(NGO 등)의 재원 및 역량을 결합한 시그니처 패키지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민간의 對개도국 민관협력(PP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EDCF 재원을 활용한 유망사업 발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그림 V-2-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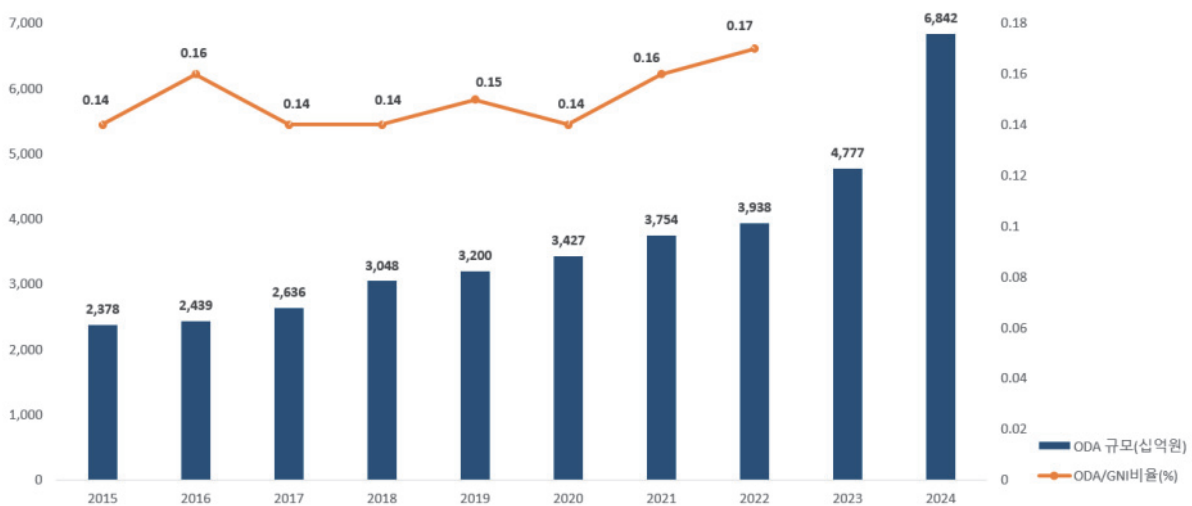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p. 7.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1.21.).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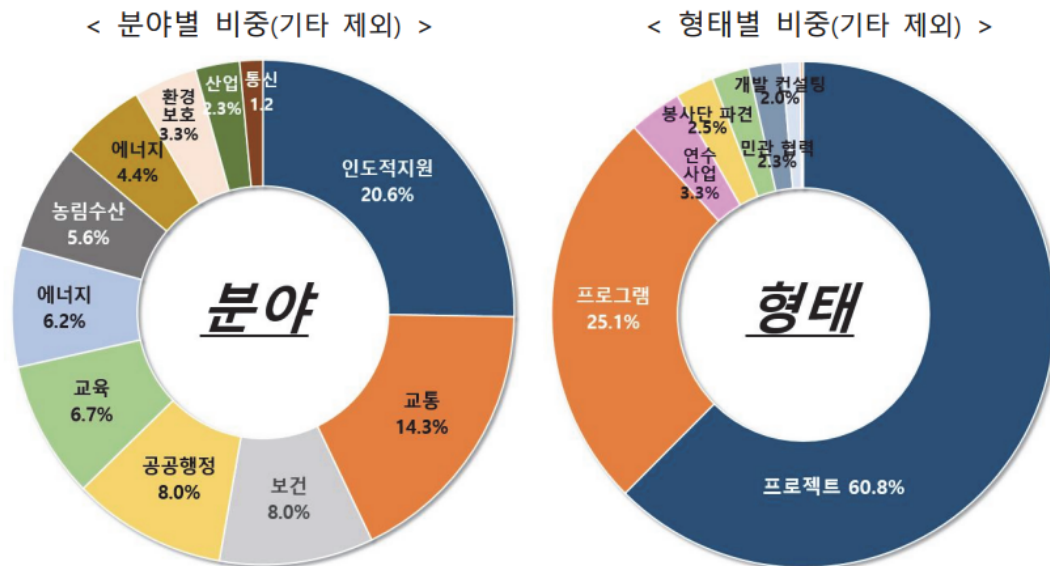
2024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6조 8,421억원으로, '23년 1,840개 대비 138개 사업 증가하였으며, 프로젝트(60.8%) 중심으로 프로그램(25.1%), 연수사업(3.3%)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2024년 ODA 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약 0.29%로 전망되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7) 가입 시 권고된 ODA/GNI 0.7% 달성에는 크게 부족한 수치로 평가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21: 8).

[그림 V-2-2]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2015~2024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p. 9.

[그림 V-2-3] 우리나라 ODA 지원 분야별/형태별 비중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p. 11.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ODA가 가진 분야별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보건 의료(SDG3), 경제 인프라(SDG9), 식량 및 농업(SDG2), 교육(SDD4)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SDGs 분야로 2022년도 조사에서 빈곤 종식(SDG1), 건강 및 복지(SDG3), 식수 및 위생(SDG6)이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21: 17). 한편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ODA 상위 수원국은 베트남·방글라데시·필리핀·캄보디아·에티오피아였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필리핀은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점협력국에 해당하며, 우크라이나와 인도에 대해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2021년에 신규로 추가된 5개국 중 3개국(타지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은 27개 중점협력국 중 지원 실적 및 계획이 가장 저조한 국가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21.).

나.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ODA사업 대부분이 병원, 보건소 및 기타 의료시설 건축사업 및 의료 장비,약품, 기자재 지원사업과 같은 물적 협력에 치우친 경향이 두드러지며, 한 예로 한국 보건의료분야 원조의 두 번째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의 경우 대규모 병원 건립사업 이후 상호협력 계획은 전무하고, 단순히 건물 증여 형태로 사업이 그치는 사례가 많다(홍석표·조명선·장진영, 2011: 10). 또한 현지 여건상 의료시설이나 장비를 유지·보수할 여력이 없을 수 있고, 현지의 교육훈련 수준이 원조 받은 장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협력 및 교육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홍석표, 조명선, 장진영, 2011: 10)³¹⁾.

1) 방글라데시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 감소를 위한 모자보건 증진사업

2015년부터 2018년까지 UNICEF와 공동으로 추진한 KOICA의 사업으로 4년간 총 800만불을 투입하여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수요 창출, 필수 모자보건서비스와 영양서비스의 연계 및 증대,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을 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방글라데시 정부가 신생아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신생아특별치료실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있었다(문무경·조숙인·김나영·김영민·곽재성·Cliff Meyers·Evelyn Santiago·Sungbong Kim·Djassi Raiza·김태중·서민영, 2023)³²⁾.

31) 홍석표, 조명선, 장진영(2011).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문무경, 조숙인, 김나영, 김영민, 곽재성, Cliff Meyers, Evelyn Santiago, Sungbong Kim, Djassi Raiza, 김태중, 서민영(2023). 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필리핀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사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필리핀에서 수행된 사업으로 필리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영양·보건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영양결핍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이 필요한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문무경 외, 2023).

3) 엘살바도르 산후조리원 지원³³⁾

2010년도에 KOICA는 엘살바도르 오지에 임산부를 위한 한국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국제 개발협력을 추진하였다. 엘살바도르는 손소나테 등 8개의 지방도시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였으며 산후조리원 규모는 172m² 규모의 단층건물에 출산 전후 임산부를 위한 요양실, 진찰실, 대기실, 주방과 검진용 소파, 출산지원기기세트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다.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

1) 캄보디아 초등학교 교원 역량강화 현지 연수

연수의 형태는 크게 △교수법 세미나(주제는 교수법 일반, 아동친화적 교육기반 교수법, 자기주도적 학습유도 교수법,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등), △협동 교과과정·교재개발(교수자, 교장, 교사 협력 프로그램), △심층면담(면담은 각 대상별로 교장, 교사교육자, 교사, 학생으로 구분하여 진행), △현지 협력기관(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한국-캄보디아 협력센터(CKCC)145), 왕립프놈펜대학교 사범대학(RUPP)146), 유니세프 캄보디아 사무소, JICA147), KOICA, VVOB148) 시민사회기구 등) 면담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연수를 통해 캄보디아 RUPP대학 관계자 및 교육부 담당자들과 매우 세부적이고 심도 깊은 교원교육 관련 논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기여 가능 분야를 확인하였다(안해정·서예원·최정운·김미숙·윤종혁·김창환·이기석·문무경·박환보·신윤정·윤철경·조지민, 2017)³⁴⁾.

2) 세네갈 교사와 학생의 수학, 과학 역량 강화 사업

이 사업은 NGO(국경없는교육가회)에서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는데, PREMST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PDSI ASEI 연수는 수학 과학 중심의 세네갈 토착적 연수로 세네갈 현장 학교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세네갈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기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두 연수 모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수 만족도가

33)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19>(2024년 3월 2일 인출)

34) 안해정, 서예원, 최정운, 김미숙, 윤종혁, 김창환, 이기석, 문무경, 박환보, 신윤정, 윤철경, 조지민(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I): 기초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매우 높았다(안해정 외, 2017).

라. 육아정책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

1) 베트남 농촌 낙후지역 유치원 신축과 교사 재교육

설립된 유치원이 없는 하이즈엉성 닝하이현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1km 이상 떨어진 유치원에 재학하거나 아예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이 지역에 새롭게 유치원을 건축하여 총 106명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총 120여명이 참석한 교사 보수교육은 3차례에 나눠서 진행되었다(안해정 외, 2017).

2) 우즈베키스탄 교수학습 개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유아교사 역량강화사업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유아교육 체험관과 연구유치원을 포함한 교수학습개발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유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아교육 전문가협의회(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s Council)’를 현지에 구성하여 수원국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누리 과정을 벤치마킹해 현지화하는 K-Edu 확산의 의미가 있다(안해정 외, 2017).

VI

정책제언

- 01 산후조리원 해외 시장조사 종합 및 해외수출 SWOT 분석
- 02 산후조리원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

VI. 정책제언

1. 산후조리원 해외 시장조사 종합 및 해외수출 SWOT 분석

가. 산후조리원 해외시장 종합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수출 시장을 조사하여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1996년에 처음 탄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도에 612개소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23년 기준 469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후조리원 개소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용률 증가와 산후조리원 내에서 이뤄지는 산·전후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산후조리원의 시장 규모는 3,500억 정도였지만 2022년 기준 7,800억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산후조리원의 업종 분류에 따르면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산후조리원 수출에 대한 요구는 2010년도부터 추진되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진 못하였다. 일부 한국의료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사례, 민간에서 자체로 추진된 사례, KOTRA를 통한 사례가 있었으나 일부 성공사례를 잇기는 하였지만 많은 기관이 진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진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는 대만이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이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보다 고가의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산후조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한인과 중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대상이 확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유럽 국가는 출산 후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다. 네덜란드에 유일하게 kraamhotel이라는 기관을 운영 중인데 이사 등으로 인해 집안에서 산모가 쉬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외(프랑스)에 산후조리 기간에 휴양목적으로 쉴 수 있는 휴양지 형식의 산후조리 시설이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 중에 있다.

UAE의 국민은 고소득층이 높아 산후조리 기간에는 외국인 보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호텔 서비스와 결합된 Postnatal retreat 시설이 2023년에 개설되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 객실 중 산후조리를 위한 전용 객실이 따로 마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원정 산후조리를 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산후조리를 오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기관이 탄생하여 시설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유일하게 숙박은 하지 않은 데이케어 형태의 산후조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한류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이란 곳을 알고 있으며 현지 조사원 의견으로는 산후조리원이 보급될 경우 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몽골에서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었으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인구 거의 대부분이 울란바토르에 밀집되었기 때문에 몽골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가장 잘 정착될 국가로 판단된다.

〈표 VI-1-1〉 산후조리원 시장 조사 개요도

국가	인구	출산율	산후조리 기간	산후조리원 유무	비고
중국	약 14억 2천만명	1.16	30~45일	있음	산후조리원 문화 확산 단계
미국	약 3억 4천만	1.64	-	있음	한인/중국인 대상 산후조리원
일본	약 1억 2천만	1.30	7일~30일	있음	일부만 산후조리 이용 낮에서 활용하는 데이케어센터 (지자체 등 지원)
베트남	약 9천 9백만	1.944	3개월	없음	2~3일 단기 체류하는 시설은 있음
몽골	약 350만	2.8	3개월	있음	산후조리원 문화 확산 단계
말레이시아	약 3천 5백만	1.8	28일~44일	있음	산후조리원 문화 확산 단계 중국/대만 영향
UAE	약 950만	1.5	40일	없음	호텔과 결합한 서비스가 일부 있음
인도네시아	약 2억 8천만	2.2	40일	없음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
독일	약 8천 3백만	1.58	-	없음	전문 간호사 산후조리 지원
네덜란드	약 1천 8백만	1.55	-	없음	kraamhotel: 산후조리 장소가 없는 가구 대상 운영
영국	약 6천 8백만	1.56	-	없음	국외(프랑스) 휴양 시설
대만	약 2천 4백만	0.87	30~45일	있음	산후조리원 문화 정착단계
우즈베키스탄	약 3천 6백만	2.90	14일	없음	산후조리 문화가 없음
미얀마	약 5천 5백만	2.17	7일	없음	산후조리 문화가 없음

나.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SWOT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해외진출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가장 큰 산후조리원의 강점은 우선 산후조리원 탄생의 원조라는 점이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현재 산후조리원 문화가 확산 증거거나 정착된 국가인 중국이나 대만보다 최소 3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즉 세계 최초의 산후조리원은 한국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설에 영감을 받아 중국과 대만에 산후조리원이 확산되었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문화가 정착되어 산모의 80% 이상이 이용 중에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대만도 아직 이용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이용 확산을 통해 관련 제도도 정책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 감염·소방·시설 안전 등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관리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산후조리원 평가가 도입되어 국가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산후조리바우처 등 산후조리원에서 쓸 수 있는 지원금이 한국 산모들에게 지급되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산후조리원 책임 보험 등 관련 보험 상품은 전세계 우리나라만 만들어진 상품이다.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배후산업이 발전되었다는 것도 강점이다. 현재 저출산으로 타격이 있긴 하지만, 조제분유, 기저귀, 영유아용 물티슈 등은 세계에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 미용/뷰티 산업이나 기술적 측면에 있어도 잘 발달되어 있다. 병원, 의료기기, IT 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다.

한국 산후조리원의 약점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내수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15~6년도에는 600개가 넘는 산후조리원이 4백 중후반대의 숫자로 줄어들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체인점이 없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산후조리원 규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인력과 시설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기회 부분에 있어서는 한류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문화가 인근 동아시아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특한 시설인 산후조리원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산 등 고위험 산모는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도는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진출하진 못했지만 산후조리원에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높은 출산율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구매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가 저출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출산/육아용품 시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산후조리원 업체 등이 대형 펀드를 받아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후조리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에게는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 전통문화인 쥐위에즈(坐月子) 문화로 흡수하여 산후조리원을 고유한 문화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법적 기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탄생한 초기에 의료기관인지 숙박시설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업종 등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허가 받을 경우에 건강 취약층인 산모와 신생아가 거주할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높은 수준에 관리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그림 VI-1-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SWOT 분석 결과



2. 산후조리원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

<표 VI-2-1>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영역	내용	관련부처	관련기관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 세계지식재산기구 등록 - IP확보 및 지원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 상담 및 컨설팅 마련	- 서비스 수출 상담창구 개선 - 수출바우처 사업과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 특성별 맞춤 전략 개발	- 국가 특성별 해외진출 전략 개발 - 서비스 차별화 및 컨설팅을 통한 홍보 - 유망 국가 KSP적극 추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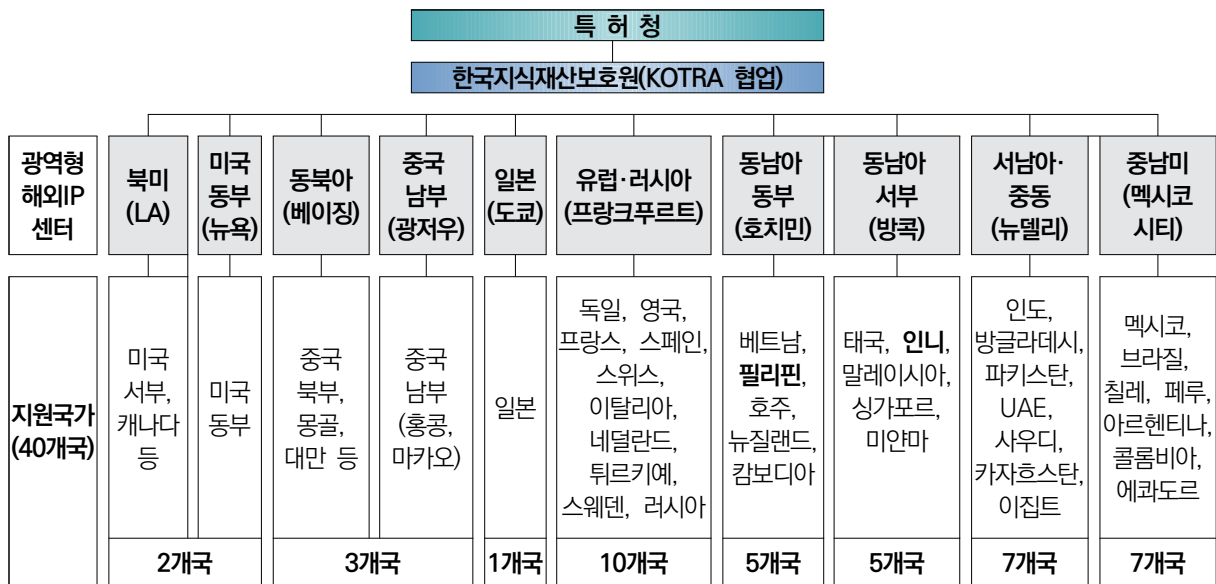
영역	내용	관련부처	관련기관
문화 수출과 연계와 산후조리원 수출홍보사이트	-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 구축 - 한국 산후조리 문화에 스토리 구축 - 한국 서비스산업 수출 홍보사이트 개설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 무역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서비스산업 무역박람회 추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어 거래 알선	-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개별 바이어 초청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 자금용자	- 내수초보 기업 육성 강화 - 서비스업종 매출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테나숍 모델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 산후조리원 안테나숍 형식의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ICA
재외공간 네트워크 활용	- 대사관 및 외교관을 활용한 산후조리 홍보 강화	외교부	주한 외국대사관 국외 한국대사관
산후조리원과 연계한 동반 수출 전략 개발	- 배후 산업과 연계한 수출 모델 개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후조리원 영역 R&D 투자 증대	- 관련 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후조리원 관련 인력 국제 자격증	-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자격증 개발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문대학 등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산업 발달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다양화 추진	- 중국 호텔형 산후조리원, 일본 데이케어 센터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 시설 개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가.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원 체계 구축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산후조리원을 공식상품명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산후조리원을 '위에즈센터(月子中心)'라는 명칭으로 보급하여 독자적인 문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과 원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먼저 선점한다면 향후에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된 한국 상품은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다.³⁵⁾

더불어 한국 산후조리원 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이후에 산후조리원 해외진출이 중국을 통해 많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중국 업체가 산후조리원의 운영의 노하우만 빼앗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설치 및 법률서비스 지원사업(‘24.2)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지원 국가도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여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허청 보도자료, 2024. 2. 26). 또한, 해외지식센터(ip-desk) 운영이 2023년도에 KOTRA에서 운영되다가 2024년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산후조리원 수출 유망국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산후조리원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2-1] 해외지식재산센터 모형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2024. 2. 26, p. 3.

나. 수출 상담 및 컨설팅 강화(서비스 수출 전문가양성)

산후조리원의 기관 특성 상 의료기관도 순수한 서비스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수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였다. 현재 산후조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수출 컨설팅 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의 GHKOL의로 해외진출컨설팅, KOTRA와 무역협회 컨설팅 등인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부족한 상황이다.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GHKOL의로 해외진출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 컨설팅 사업과 수출 바우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5)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725936402>

다. 국가 특성별 맞춤 전략 개발

〈표 VI-2-2〉 국가 별 산후조리원

국가	특성	전략
중국, 대만	산후조리 문화 정착한 국가	- 컨설팅 추진 및 한국 산후조리원 고유의 브랜드 확보 - 서비스 차별화 - 조제분유 등 육아용품, 의료기기, IT 품목과 수출과 연계 (본토 - 산후조리원에 판매 상품)
말레이시아, 일본	산후조리 문화 확산 단계에 있는 국가	- 마케팅 및 시장조사 지원
미국, UAE	산후조리보다 휴양 개념	- 호텔, 휴양 서비스, 뷰티 업종과 연계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후조리원은 없으나 수요가 있는 국가	- 지식공유사업 추진 - 재외공간 네트워크 활용 -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지원 체계 전반적인 시스템 이식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저개발로 산후조리 문화 확산이 어려운 국가	- 모자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

본 시장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국가별로 산후조리원 보급 수준과 산후조리 문화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문화가 거의 정착된 국가이고 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서비스 차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산후조리원이 진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 산후조리원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산후조리원의 고유의 브랜드와 문화 등을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현지의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서비스를 참고하는 현지화 전략이 아닌 한국의 산후조리 특성(운동, 산후조리원 내 커뮤니티 형성, 산후우울관리, 산후조리원 평가)을 그대로 재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산후조리원 고유의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진출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용 물티슈, 화장품을 비롯한 미용 관리 용품, 여성 보정 속옷, 베이비캠, 로타바이러스 진단키트, 황달검사 측정 및 치료 기기, 관련 앱(산모 건강관리 앱) 등은 산후조리원 특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출 도모할 수 있다.

산후조리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데이케어 등 새로운 형태의 산후조리 시설이 탄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화교문화와 이슬람문화가 혼합된 형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현재 산후조리문화 특성과 향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한 후 해외진출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가 없는 유럽, 미국, UAE 등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개념보다는 휴양시설 관점으로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는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하는 문화가 아닌, 출산 후 자녀가 영유아 시기에 휴양하는 형태로 호텔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호텔과 휴양서비스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과 관계없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따뜻한 유럽 내 휴양지로 알려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호텔 및 리조트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UAE도 관광지인 두바이 중심으로 호텔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관련 수요가 높고 출산율이 높아 향후 산후조리원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국가이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를 한류 등으로 이미 알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빠르게 지식공유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한국 산후조리원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 확산 초기 단계부터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이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이 아직 산후조리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전무한 국가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진출 보다는 모자보건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산후조리 관련 인력 양성 및 문화 형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문화 수출과 연계와 산후조리원 수출홍보사이트

산후조리원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문화 수출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추진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의 유도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7.16). 한류를 연계한 K-푸드 마케팅, 한류 콘텐츠 활용, 관광산업 연계강화, 한국문화축제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산후조리원과 유관 산업인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 환자 중심 스토리 콘텐츠 채널 강화, 의료·치유 관광 육성 등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한 연예인의 경우도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수출 홍보사이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 국제 무역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산후조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G산후조리원도 KOTRA에서 진행하는 국제박람회를 통해 진출에 성공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아용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아용품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하는 무역박람회에 산후조리원업체 등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4 상반기 봄업코리아의 경우에는 KOTRA에 문의한 결과 산후조리원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향후에도 관련하여 산후조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무역 박람회 등을 꾸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

〈표 VI-2-3〉 중국, 말레이시아 유아용품 박람회 예시

유형	내용
2023 중국 베이징 유아용품 전시회(MICF)	중국 국내외에서 임신출산 유아용품 분야의 영향력이 가장 큰 전시회 개최 기간: 2023.04.22 - 2023.04.24. / (예정) 2024.04.13. - 2024.04.15. 개최 장소: New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연혁: 1982년부터~ 개최 규모: 53000sqm(㎡) 참가업체 수: 340개사 참관객 수: 33,000명 전시 품목: 임신출산 및 유아용품 주최 기관: 北京京正国际展览有限公司
2023 중국 상하이 유아용품 전시회(CBME)	CBME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B2B산업 전시회 개최기간: 2023.06.28 - 2023.06.30. / (예정) 2024.07.17. - 2024.07.19 개최 장소: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연혁: 2001년부터~ 개최 규모: 325000sqm(㎡) 참가업체 수: (한국관 주관부서) 중소중견기업본부 전시컨벤션실 해외전시팀 / (수행부서) 중국 지역본부 상하이무역관 / (공동 수행기관) (주)베페 전시 품목: 1.육아 용품 2.청결, 세척 용품 3.아동 전자 용품 4.유모차 및 차량용 유아 시트 5.아동용 가구 및 침구용품 6.아동 의류 및 장신구 7.임부 의류 및 장신구 8.완구 및 게임 9.아동 기념품 10.식품 보건 제품 11.서비스 단체 주최 기관: Informa Markets
2023 중국 청두 임신 및 유아제품 전시회(CIPBE)	중국 대형 슈퍼마켓과 신생아 구매처 채널과 협력하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매 무역 교류 플랫폼을 만든 전시회 개최기간: 2023.08.19 - 2023.08.21 개최 장소: 청두세기성국제전람센터/成都世紀城國際展覽中心 연혁: 2011년부터~ 개최 규모: 50000sqm(㎡) 참가업체 수(2022): 600 (참가국 수 10) 참관객 수(2022): 550백명 전시 품목: 아기용품, 내의 및 액세서리, 아동화 및 액세서리, 교구 및 기념품, 서비스 기관, 영양 식품 및 간식, 원부자재 천연 제품, 임산부 식품 및 영양 제품 주최 기관: 成都华澳展览公司
20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유아용품 전시회 (TCE Baby Expo)	개최 기간: 2023.09.22 - 2023.09.2. / (예정) 2024.04.13 - 2024.04.15. 개최 장소: 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re (MITEC) 개최 규모: 4212sqm(㎡) 참관객 수: 33,000명 전시 품목: 태교, 영아관련 정보제공 안전용품, 임산부용품, 출산용품, 태교용품, 영·유아식품, 교육, 출판, 학습보조용품, 문구, 완구, 게임, 가구 및 인테리어, 관련서비스 주최 기관: The Concept Exhibition Malaysia Sdn. Bhd 홈페이지: http://tce.com.my/

바. 바이어 거래 알선

박람회 이외에 해외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는 바이어 거래알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바이어 거래 알선 산업으로 BKF(K-Food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별바이어 초청지원, 온라인 바이어 알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BKF는 해외 바이어-국내 수출업체 온·오프라인 1:1매칭 수출상담 지원 프로그램이고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은 바이어 초청 및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바이어 알선 사업은 맞춤형 바이어 정보 제공 및 화상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출 영역이 작기 때문에 관련 산업(예, 의료산업)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 모델을 참고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VI-2-4〉 농림축산식품부 바이어 거래 알선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BKF	• 해외 유통관계자(수입바이어·벤더·유통업체 등) 및 국내 수출업체	• 해외 바이어-국내 수출업체 온·오프라인 1:1 매칭 수출상담 지원
개별바이어 초청지원	•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바이어초청 및 상담 비용 지원 - 항공료(이코노미) 및 숙박비 / 250만원 한도 내 80% 실비 지원
온라인 바이어 알선사업	•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맞춤형 바이어 정보 제공 및 화상상담 지원 - 희망 국가 및 품목에 따른 바이어 정보 리스트 및 신용정보 제공

사. 수출지원 자금용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외진출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관련하여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필요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내수초보 기업 육성 등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매출액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표 VI-2-5〉 사업별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수행기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산업부)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기부)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 또는 수출초보(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내수초보 기업 육성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KOTRA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수출액 10만불 이상~500만불 이상	KOTRA
수출촉진자금	중수/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서비스산업: 보건의료, 콘텐츠, SW/ICT, 관광 기타 - 친환경에너지신사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 산업	수출입은행

아. 안테나숍 모델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안테나숍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 소비자의 선호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즉, 시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점포를 의미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는 수출전 해외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안테나숍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 일부를 안테나숍 형태로 운영하여 해외진출 전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탐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자. 재외공간 네트워크 활용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에 대한 해외 확산은 초창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교관 가족이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외교관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만큼 재외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국가의 산후조리원 수요 및 진출 유망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바이어 등의 알선도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주한 국외 대사관이나 국외의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한 한국의 모자보건정책, 산후조리원 문화 소개 행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차. 산후조리원과 연계한 동반수출 전략 개발

앞서 지역별 맞춤형 조사 및 전략개발에서 언급하였듯이 산후조리원의 경우 다양한 배후 산업과 동반하여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난임 센터를 비롯하여 산부인과, 조제분유, 관련 의료기기(황달측정 및 치료), 감염병 진단키트, 피부/미용 관리에 필요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을 연계하여 수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여성 건강에 대한 증진으로 인해 산후 회복 용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출산과 동시에 골반 변형, 호르몬 변화, 자궁 복구 과정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산후관리는 향후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산만큼 산후 체형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산후용품 시장은 2014년 9.2억 위안에서 2019년 54.4억 위안으로 43.9%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0년 전년대비 40.3% 증가한 76.3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14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I-2-6〉 중국 산후회복용품(산후용품)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
시장 규모	9.2	14.8	21.9	29.1	39.5	54.4	76.3
증가율	-	60.9	48.0	32.9	35.7	37.7	40.3

자료: 즈엔자문

〈표 VI-2-7〉 중국 산후관리 1인당 평균 소비액

단위: 위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액	2,650	2,740	2,850	3,055	3,250	3,500	3,765 (70만원)

자료: 즈엔자문

중국 산후회복 용품 수입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요인으로 수입액은 전년대비 16.7% 감소한 6억 2,634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미국, 스위스로 이들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80%이상 차지하였다. 2020년 對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1.4% 감소한 404만 달러로 수입비중은 1% 미만이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산후회복 용품은 골반기저근 회복, 복직근이개 회복, 골반 교정, 몸매 보정 등을 위한 제품으로 분류되며, 워킹맘들을 위한 가정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산후조리원 관련 품목과 연계하여 수출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표 VI-2-8〉 중국 산후회복 제품

브랜드	국가	이미지	가격	비고
易舒美 (이수메이)	중국		1,299위안	복직근이개 치료, 가정용
大悦 (따웨)	중국		4,499위안 (80만원)	골반기저근 회복치료, 가정용
麻麻康 (마마캉)	중국		929위안	골반기저근 회복치료, 가정용
澜亭 (란팅)	중국		3,680위안 (70만원)	골반기저근 회복치료, 가정용
医而维 (의얼웨이)	영국		1,570위안	복직근이개 치료, 가정용
佩如 (페유)	중국		650위안	골반기저근 회복치료, 가정용
么宁妃 (머닝페이)	중국		2,980위안	골반 복원 교정, 가정용
倍量 (베이량)	중국		268위안	골반기저근 회복치료, 가정용
LEBODY	한국		2,100위안	산후 몸매 보정, 가정용
SALUA	한국		133.19위안	산후 몸매 보정, 가정용

자료: 징둥닷컴

카. 산후조리원 영역 R&D 투자 증대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기술과도 연계하여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크래들이나 산모의 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앱 등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 등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에는 산후조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영역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영역에 모자보건법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VI-2-9〉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전	개정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7. 30.>	제2조(정의) ①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8.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모자보건법」

타. 산후조리원 인증과 연계(K-브랜드)

산후조리원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의 근거로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국가에서 산후조리원을 평가하는 유일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높은 산후조리원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산후조리원 평가를 인증제 형식을 도입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과 같은(혹은 산후조리원을 포함) 외국인 이용객 이용 시 비자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가 인정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BRAND K처럼 독자적인 인증 받은 기관에 독자적인 브랜드(산후조리, 몸풀이, 삼칠일 등 한국 용어로 된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해외 진출 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파. 산후조리원 관련 인력 국제 자격증 개발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살펴야 하므로 간호사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사하는 인력에게 산모와 신생아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간호사의 높은 임금과 출산율의 감소로 산후조리원이 유지되기 힘든 현실이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수출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관한 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해당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산후조리원 관련 인력 자격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정하고, 전문성을 검증하여 국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은 산후조리원과 함께 수출할 경우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산후조리원 산업 발달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다양화 추진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가 타국에 전파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호텔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데이케어라는 낮시간에만 이용하는 형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몽골의 경우에는 신생아뿐만 아니라 영아까지 돌보는 형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타국의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발전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모델들을 도입하여 낮 6~8시간 정도 산후 회복과 상담, 모유수유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카페 형식의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에 임신부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센터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면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시설이 탄생할 수 있다.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형 산후조리원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UAE, 유럽, 미국 등에서는 산후조리 문화보다는 휴양의 개념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성급 이상의 호텔과 산후조리원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호텔 일부 객실을 산모와 신생아 돌봄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 강성호·김혜란(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보험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 관계부처합동(2023. 6. 5).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와 추진방안.
- 관계부처합동(2023. 11. 27).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래·산후조리).
- 관계부처합동(2023. 11. 27).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래·산후조리).
-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6. 5).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7년까지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 수출금융 64조원 공급
- 김유미(2022). 중국, 장기요양보험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연구원.
- 김자연·이정원·조혜주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서비스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종덕·조문희·김현수·김혁황·강준구·권현호·김천곤(2022).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1.21.).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 문무경·조숙인·김나영, ·김영민, ·곽재성·Cliff Meyers, Evelyn Santiago, Sungbong Kim, Djassi Raiza, 김태중, 서민영(2023). 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용태·김문수·강인태·김철현·윤병운·신준석·이성주·이학연(2010), 서비스공학, 경기 : 생능출판사.
- 백용훈(2020). 베트남 보건의료의 개혁: 이슈와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15, 88-100.
- 보건복지부(2021).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3. 2. 23).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 안해정·서예원·최정윤·김미숙·윤종혁·김창환·이기석·문무경·박환보·신윤정·윤철경·조지민(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I): 기초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우경숙·신영전(2022).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 의료보험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228-247.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2023). 수출지원 프로그램 안내 책자.

- 이소영·최인선 (2021).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림·이재희·조미라·박여정(2021).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재희·조미라·박여정(2021).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제상·송유미 (2023).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3(4), 179-193.
- 이창우·이상우(2010).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 정윤선·권영대 (2017). 출산 여성의 산후관리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1(1), 143-158.
- 조성은(2023).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나금융그룹(2011). 산후조리업의 현황과 전망. 하나 경영정보 Brief, 제51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제 2023-229호).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을 위한 국외출장 (일본, 독일) 결과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산후조리원 중국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2017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 (염성시 수애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 한성원(2019). 홍콩, 새로운 민영 의료보험제도 도입. 보험연구원.
- 홍석표·조명선·장진영(2011).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otra 보도자료(2023. 10. 19). KOTRA, 초대형 수출상담회 '봄업코리아' 열어.
- KOTRA(2023). 2023KOTRA 서비스 가이드북.
- KSP(2022b). 2022 KNOWLEDGE SHARING PROGRAM 연차보고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Kotra.

【웹자료-국내】

- 공 산후조리원(<http://gangnam.goongs.com/>)(인출일: 2024. 3. 2)
- 드라마 산후조리원(<http://www.derama.co.kr/main.html>)(인출일: 2024. 3.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d=000183&ancYnChk=0#0000> (인출일: 2024. 1. 17).
- 센트레오브맘(CENTRE OFMOM, <http://www.centreofmom.com/kr/contact.html>)(인출일:

2024. 3. 2)
- 위키피디아, 네덜란드,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네덜란드> (인출일: 2024. 1. 3)
- 위키피디아, 몽골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몽골의_정치 (인출일: 2024. 1. 3)
- 위키피디아, 일본,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의_정치 (인출일: 2024. 1. 3)
- 위키피디아, 홍콩, <https://ko.wikipedia.org/wiki/홍콩> (인출일: 2024. 1. 3)
- 주식회사 와이케이동그라미(<http://www.dgrmfnc.co.kr/main/intro.php>)(인출일: 2024. 3. 2)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info/standard/standardSearch.do>, 2024. 2. 27 인출).
- 초록우산 홈페이지, [베트남]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베트남 빈곤층 건강보협지원사업, <https://www.childfund.or.kr/contents/greenView.do?bdId=20016098&bmId=10000148> (인출일: 2024. 1. 3)
-
- [https://www.ksp.go.kr/pageView/ksp-intro](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2024. 1. 22 인출).</p>
<p><a href=), 2024, 1. 18 인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info/standard/standardSearch.do](https://www.ksp.go.kr/pageView/ksp-statistics(2024, 1. 22. 인출).</p>
<p><a href=) 중 ‘유아’ 관련 품목 검색(2023. 2. 29 인출).
- KBS뉴스(2023.12.22. 기사). “2050년 일본 인구, 도쿄 빼면 모든 곳 줄어든다…아키타현 41% 하락”(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9062&ref=A).
- KSP(2022a). KSP 민간 제안사업 소개자료. [### 【웹자료-국외】](https://www.ksp.go.kr/post/news/6701(2024. 1. 22 인출).</p>
<p>KSP(2022b). 2022 KNOWLEDGE SHARING PROGRAM 연차보고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Kotra.</p>
</div>
<div data-bbox=)

- 국제의료정보포털 홈페이지,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몽골 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GHI_NATION_4&nationCode=MN&detailCd=GHI_DETAIL_2 (인출일: 2024. 1. 3)
- 국제의료정보포털 홈페이지,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독일, <https://www.medicalkorea.or.kr/g>

[hip/nationInfo/view?srchCtgr=GHI_NATION_7&nationCode=DE&detailCd=GHI_DETAIL_3](http://ghip/nationInfo/view?srchCtgr=GHI_NATION_7&nationCode=DE&detailCd=GHI_DETAIL_3) (인출일: 2024. 1. 3)

국제의료정보포털 홈페이지,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네덜란드, 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GHI_NATION_7&nationCode=NL&detailCd=GHI_DETAIL_ (인출일: 2024. 1. 3)

국제의료정보포털 홈페이지,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중국, 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GHI_NATION_4&nationCode=CN&detailCd=GHI_DETAIL_2 (인출일: 2024. 1. 3)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미국,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US (인출일: 2024. 1. 3)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독일,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DE (인출일: 2024. 1. 3)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중국,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N (인출일: 2024. 1. 3)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MO (인출일: 2024. 1. 3)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베트남,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VN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미국,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독일,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DE>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네덜란드,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NL>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일본,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JP>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중국,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CN>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홍콩,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HK> (인출일: 2024. 1. 3)

세계은행, GDP, 마카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MO> (인출일: 2024. 1. 3)

- 세계은행, 베트남, <https://data.worldbank.org/country/VN> (인출일: 2024. 1. 3)
- 세계은행, GDP, 몽골,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MN> (인출일: 2024. 1. 3)
- 치엔잔 산업연구원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80323-246b33fe.html>)
- Air corporate 홈페이지, Exploring Hong Kong's Minimum Wage Landscape in 2023, <https://air-corporate.com/blog/hong-kong-minimum-wage> (인출일: 2024. 1. 3)
- China Briefing 홈페이지, A Guide to Minimum Wages in China (Last Updated on January 17, 2024), <https://www.china-briefing.com/news/minimum-wages-china> (인출일: 2024. 1. 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Cesarean Delivery Rate by State, https://www.cdc.gov/nchs/pressroom/sosmap/cesarean_births/cesareans.htm (인출일: 2024. 1. 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Immunization, <https://www.cdc.gov/nchs/fastats/immunize.htm> (인출일: 2024. 1. 3)
- DESTATIS Statistisches Bundesamt 홈페이지, Quality of employment, weekly working hours, https://www.destatis.de/EN/Themes/Labour/Labour-Market/Quality-Employment/Dimension3/3_1_WeeklyHoursWorked.html (인출일: 2024. 1. 3)
- DESTATIS Statistisches Bundesamt 홈페이지, Marriages and average age at marriage of singles, <https://www.destatis.de/EN/Themes/Society-Environment/Population/Marriages-Divorces-Life-Partnerships/Tables/marriages-average-age-marriage.html> (인출일: 2024. 1. 3)
- Euronews 홈페이지, Average working hours in Europe: Which countries work the longest and shortest weeks? <https://www.euronews.com/next/2023/07/22/average-working-hours-in-europe-which-countries-work-the-longest-and-shortest-weeks> (인출일: 2024. 1. 3)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Netherlands - Parenthood,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2&langId=en&intPageId=4987> (인출일: 2024. 1. 3)
- ExpatriFocus 홈페이지, Vietnam - Maternity and Giving Birth, <https://www.expatrifocus.com/vietnam/guide/vietnam-maternity-and-giving-birth> (인출일: 2024. 1. 3)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홈페이지, Amount of the hourly minimum wage,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minimumloon> (인출일: 2024. 1. 3)

- [//www.government.nl/topics/minimum-wage/amount-of-the-hourly-minimum-wage](https://www.government.nl/topics/minimum-wage/amount-of-the-hourly-minimum-wage) (인출일: 2024. 1. 3)
- Globaldata 홈페이지, Working Hours per Week in Hong Kong (2010 - 2021), <https://www.globaldata.com/data-insights/macroeconomic/working-hours-per-week-in-hong-kong-2095940/> (인출일: 2024. 1. 3)
- Global Times 홈페이지, Average marriage age delayed to 30 in East China's citi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2/1285035.shtml> (인출일: 2024. 1. 3)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홈페이지, Mongolia - Maternity protection - 2011, https://www.ilo.org/dyn/travail/travmain.sectionReport1?p_lang=en&p_structure=3&p_year=2011&p_start=1&p_increment=10&p_sc_id=2000&p_countries=MN&p_countries=BG&p_print=Y (인출일: 2024. 1. 3)
- JAMA Network 홈페이지, Trends in Cesarean Delivery Rates in China, 2008-2018 (2018년 기준),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58441> (인출일: 2024. 1. 3)
- Japan Healthcare Info 홈페이지, Where Can I Give Birth?, <https://japanhealthinfo.com/pregnancy-and-childbirth/childbirth-delivery/> (인출일: 2024. 1. 3)
- MACROTRENDS, Hong Kong Life Expectancy 1950-2024,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HKG/hong-kong/life-expectancy> (인출일: 2024. 1. 3)
- MACROTRENDS, Vietnam Life Expectancy 1950-2024,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VNM/vietnam/life-expectancy> (인출일: 2024. 1. 3)
- MACROTRENDS, Mongolia Life Expectancy 1950-2024,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MNG/mongolia/life-expectancy> (인출일: 2024. 1. 3)
- PWC(Worldwide Tax Summaries) 홈페이지, Mongolia Individual - Significant developments, <https://taxsummaries.pwc.com/mongolia/individual/significant-developments> (인출일: 2024. 1. 3)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Germany,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germany> (인출일: 2024. 1. 3)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Netherlands,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netherlands> (인출일: 2024. 1. 3)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Japan,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japan/> (인출일: 2024. 1. 3)
- OECD iLibrary 홈페이지, Caesarean sections (2017년 기준), <https://www.oecd-ilibrary>.

- org/sites/fa1f7281-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fa1f7281-en (인출일: 2024. 1. 3)
-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Average annual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 in China from 1990 to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8698/annual-per-capita-income-of-households-in-china>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of al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from 2007 to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93949/average-weekly-working-hours-of-all-employees-in-the-us>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Average weekly hours actually worked by persons employed in enterprises in China from January 2022 to December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91557/weekly-average-working-hours-china/>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per employed person in Vietnam in 2021, by gender,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90342/vietnam-average-working-hours-by-gender/>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Average age at marriage in the Netherlands from 1950 to 2022, by gender,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0103/average-age-at-marriage-in-the-netherlands-by-gender/>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Mean age at first marriage in Japan from 1955 to 2021, by gender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11957/japan-mean-age-marriage-by-gender/>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Estimated median age of Americans at their first wedd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8 to 2022, by sex,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71933/median-age-of-us-americans-at-their-first-wedding/>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 in Vietnam from 1999 to 2021(in year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58269/vietnam-singulate-mean-age-at-marriage/>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Life expectancy at birth in Macao from 2012 to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19485/macau-life-expectancy-at-birth/> (인출일: 2024. 1. 3)
- Statista 홈페이지, Median age of women at first marriage in Hong Kong from 2012 to

-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26454/hong-kong-median-female-marriage-age/> (인출일: 2024. 1. 3)
-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https://news.mn/en/789081/> (인출일: 2024. 1. 3)
- STI Graduate Institute/SIT Study Abroad, Mongolian Women's Voices: A Case Study on Maternal Healthcare, Pregnancy, and Birth in Ulaanbaatar's Public Hospitals, https://digitalcollections.sit.edu/cgi/viewcontent.cgi?referer=&httpsredir=1&article=2478&context=isp_collection (인출일: 2024. 1. 3)
-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Japan Minimum Hourly Wages,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minimum-wages> (인출일: 2024. 1. 3)
- The Statistics and Census Bureau (DSEC) <https://macaonews.org/community/macao-population-hits-683100/> (인출일: 2024. 1. 3)
- The Euro Journal 홈페이지, 독일 육아 휴직, 배우자도 2주 유급 휴가 도입, <http://www.eknews.net/xenews/German/35418950> (인출일: 2024. 1. 3)
- TOKHIMO 홈페이지, Maternity, Paternity, and Childcare Leave in Japan, <https://www.tokhimo.com/post/maternity-paternity-and-childcare-leave-in-japan-1> (인출일: 2024. 1. 3)
- U.S. Department of Labor 홈페이지, State Minimum Wage Laws, <https://www.dol.gov/agencies/whd/minimum-wage/state> (인출일: 2024. 1. 3)
- U.S. Census Bureau, Income in the United States: 2022, <https://www.census.gov/library/publications/2023/demo/p60-279.html> (인출일: 2024. 1. 3)
- Unicef 홈페이지, Immunization, <https://data.unicef.org/topic/child-health/immunization/> (인출일: 2024. 1. 3)
- Vietnam Briefing 홈페이지, What are the minimum wage rates in Vietnam?, <https://www.vietnam-briefing.com/doing-business-guide/vietnam/human-resources-and-payroll/minimum-wage> (인출일: 2024. 1. 3)
- VIETNAMNET GLOBAL 홈페이지, Vietnam's cesarean section rate unusually high, exceeds WHO recommendations (2022년 기준), <https://vietnamnet.vn/en/vietnam-s-cesarean-section-rate-unusually-high-exceeds-who-recommendations-2115587.html> (인출일: 2024. 1. 3)
- WageIndicator.org 홈페이지, Minimum Wage-Germany, <https://wageindicator.org/salary/minimum-wage/germany> (인출일: 2024. 1. 3)
- Weekly HK 홈페이지, [제보의 창] 사설 의료기관 VS 정부 의료기관? -1탄, <http://www.weekl>

- yhk.com/m/view.php?idx=24809&mcode=m331evx&page=2 (인출일: 2024. 1. 3)
- Welcome Center Germany 홈페이지, Understanding Maternity Leave in Germany: A Comprehensive Guide for Expats, <https://www.welcome-center-germany.com/post/understanding-maternity-leave-in-germany> (인출일: 2024. 1. 3)
- Wikipedia, Childbirth in China, https://en.wikipedia.org/wiki/Childbirth_in_China (인출일: 2024. 1. 3)
- World Bank Blogs, What can we learn from the new labor law in Mongolia?, <https://blogs.worldbank.org/jobs/what-can-we-learn-new-labor-law-mongolia> (인출일: 2024. 1. 3)
- 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BCG Immunization coverage estimates by country, <https://apps.who.int/gho/data/view.main.80500?lang=en> (인출일: 2024. 1. 3)
- Zorgkaart Nederland 홈페이지, Being pregnant and giving birth in the Netherlands, <https://verloskundigenbreedstraat.nl/en/being-pregnant-and-giving-birth-in-the-netherlands/> (인출일: 2024. 1. 3)
-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2018). Optimizing Postpartum Care. <https://www.acog.org/clinical/clinical-guidance/committee-opinion/articles/2018/05/optimizing-postpartum-care>에서 2024년 1월 24일 인출.
- KOTRA (2022a). 미국, '브레인 케어'의 시대 오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910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pIndustCd=I001210&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에서 2024년 1월 24일 인출.
- KOTRA (2022b). MZ세대 부모 비중 증가에 따른 미국 온라인 유아용품 시장 트렌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5&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932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에서 2024년 1월 24일 인출.
- Singh, S. (2023. Decemer. 11). 15 Global Trends For 2024. Forbes,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sarwantsingh/2023/12/11/15-global-trends-for-2024/?sh=2aced36a63f0>

The White House (2021). White House Blueprint for Addressing the Maternal Health Crisis. The White House. chrome-extension://efaidnbnmnnibpcajpcglclefindmkaj/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6/Maternal-Health-Blueprint.pdf>에서 2024년 1월 23일 인출.

厚生労働省 令和2年9月 「産後ケア事業の利用者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報告書」

韓国の産後調理院の制度と現況 韓国視察報告

「産後ケア事業の現状及び今後の課題並びにこれらを踏まえた将来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男女間での認知ギャップと利用の現状

より良い産後ケア事業を目指して：地域における分娩施設 と産後ケア施設の連携体制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법령】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미국,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년 기준 법제동향,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1=1&AST_SEQ=3891&CTS_SEQ=48512&searchNtnl=WD&ETC=4&nationReadYn=Y)"

육아·개호 휴직법

인구·가족계획법 및 조례

사회보험법 제34조제2항

Article 34 of the Law on Social Insurance 2014

Exceptional Medical Expense Act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Labour Law §104(1)-(3)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benefit (WAZO, Work and Care Act)

Special Provisions on Labor Protection for Female Employees (State Council Decree No. 619)

The Maternity Protection Act [Mutterschutzgesetz - MuSchG]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